東北亞 地方政府의 女性政策 方向 摸索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International Women's Policy Symposium

일 시 : 2001. 9. 20 (木) 10:00~16:30
장 소 : 천안대학교 국제회의장
주 최 : 충청남도
주 관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354.117
충북2-7

장서
등록번호
10364
등록일 년 월 일
충청남도행정자료실

東北亞 地方政府의 女性政策 方向 摸索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International Women's Policy Symposium

일 시 : 2001. 9. 20 (木) 10:00~16:30
장 소 : 천안대학교 국제회의장
주 최 : 충청남도
주 관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目　　次

Ⅰ. 進行 順序 3

Ⅱ. 忠淸南道 女性政策開發院長 開會辭 5

① 韓　國　語 7

② 中　國　語 11

③ 日　本　語 13

Ⅲ. 女性部長官 激勵辭 17

① 韓　國　語 19

② 中　國　語 23

③ 日　本　語 27

Ⅳ. 忠淸南道知事 歡迎辭 31

① 韓　國　語 33

② 中　國　語 37

③ 日　本　語 39

Ⅴ. 韓國女性開發院長 基調 演說文 43

① 韓　國　語 45

② 中　國　語 53

③ 日　本　語 59

Ⅵ. 3地域 主題 發表文 67

[1] 河北省 : 婦女子業務委員會 辦公室 副主任 呂愛英 (Luaiying) ... 69

① 韓 國 語 71

② 中 國 語 83

③ 日 本 語 97

[2] 熊本縣 : 辯護士 藤田光代 (Hujita Mitsuyo) 115

① 韓 國 語 117

② 中 國 語 129

③ 日 本 語 137

[3] 忠淸南道 : 國立 公州大學校 敎授 金景淑 (kim, kyung-Sook) . 151

① 韓 國 語 153

② 中 國 語 179

③ 日 本 語 189

附 錄 **主要 參與者 프로필**

進 行 順 序

區 分	時間			內 容
	부 터	까지	所要	
第1部	司會 : 忠淸南道女性政策開發院 政策開發部長 閔庚子(Min, Kyong-Ja)			
	10:00	10:30	30′	○ 登 錄
	10:30	11:00	30′	○ 開會宣言(司會者) ○ 開會辭(忠淸南道 女性政策開發院長 李在隅) ○ 激勵辭(大韓民國 女性部長官 韓明淑) ○ 歡迎辭 (忠淸南道知事 沈大平)
	11:00	11:20	20′	○ 基調演說(韓國女性開發院長 張夏眞)
	11:20	11:30	10′	○ 休 息
第2部	司會 : 國立 忠南大學校 敎授 林善姬(Lim, Sun-Hee)			
	11:30	12:30	60′	○ 3地域 主題發表 - 河北省 婦女子業務委員會辦公室 副主任 呂愛英(Luaiying) - 熊本縣 辯護士 藤田光代(Hujita Mitsuyo) - 國立 公州大學校 敎授 金景淑(Kim, Kyung-Sook)
	12:30	14:00	90′	○ 午 餐
第3部	司會 : 國立 忠南大學校 敎授 林善姬(Lim, Sun-Hee)			
	14:00	15:30	90′	○ 綜合 討論(3地域 指定討論者) - 河北省 婦女聯合會 事業發展部長 劉花冊(Liuhuace) - 熊本縣 男女共同參劃課 課長補佐 緖方洋子(OgataYoko) - 國立 公州大學校 敎授 安貞善(Ann, Jung-Sun)
	15:30	15:40	10′	○ 休 息
第4部	司會 : 忠淸南道女性政策開發院 政策開發部長 閔庚子(Min, Kyong-Ja)			
	15:40	16:30	50′	○ 忠淸南道 國樂管絃樂團 公演觀覽
	16:30			○ 閉 會

「忠南國樂管絃樂團」公演案內

○ **公演　時間 : 15:40 ~ 16:30 (50分間)**

○ **解　　說 : 檀國大學校 國樂科 趙周宇 教授**

○ **客員指揮者 : 元韓基**

- 國立國樂院 指導委員
- 天安大學校 音樂科 教授

○ **公演內容**

管樂合奏 - 수제천(壽齊天)

· 執　拍 : 趙周宇

宮中舞踊 - 춘앵전(春鶯囀)

· 舞　踊 : 徐恩敬

管 絃 樂 - 방　황(彷　徨)

· 指　揮 : 元韓基　· 作　曲 : 이경섭

四物을 위한 管絃樂 - 신모듬

· 作　曲 : 박범훈

· 꽹과리(小金) : 崔鍾姬　· 장고(杖鼓) : 李英仙

· 징 (大金) : 朴花信　· 북 (鼓) : 徐恩敬

忠清南道女性政策開發院長
開會辭

개 회 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 재 우

오늘 우리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 여성정책 관계관과 국내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동북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멀리 중국 허베이성에서 오신 루아이잉 부녀자 어린이 업무위원회 판공실 부주임님과 부녀연합회 사업발전부 리우화처 부장님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오신 후지타 미쯔요 변호사님과 오가타 요꼬 과장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한명숙 여성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님과 충남대학교 임선희 교수님, 공주대학교 김경숙 교수님과 안정선 교수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와같은 훌륭한 「討論의 場」이 마련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두개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아울러 세계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문제가 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 평화, 인권의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즉, 세 나라의 지방정부에서 독특하게 수행되고 있는 「여성정책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및 「여성정책 교류협력 방안」 등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들 3국은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여성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행사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중국의 허베이성, 그리고 한국의 충청남도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이 행사를 통하여 세 지방정부간, 더 나아가 세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의 틀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를 계기로 하여, 동북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성 중심의 국제교류가 충남과 한국, 허베이성과 중국, 구마모토현과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 여성들의 권한을 증진시키는(Empowerment)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대표단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開　幕　辭

忠淸南道女性政策開發院長
李 在 隅

今天忠淸南道友好城市，中國、日本地方政府的有關女性政策人士和國內專家相聚在這里，以<謀求東北亞地方政府有關女性政策方向>爲主題進行研討，爲此感到無限的榮幸。

首先，向來自中國河北省的呂愛英婦女兒童工作委員會辦公室主任和劉花冊婦女聯合會事業發展部長，來自日本熊本縣的藤田光代律師和緖方洋子科長先生表示感謝。

另，向百忙之中參加今天研討會的玄定澤女性部次官也表示感謝。

尤其，給今天將主指發言的張夏眞韓國女性開發院長和忠南大學林善姬教授，公州大學金景淑教授和安眞善教授都表示感謝。

同時，沈大平忠淸南道知事爲能准備今天的討論之場，給予支持和幫助，對此表示衷心的感謝。

向同席的內外貴賓們問好。

目前，世界在地方化和世界化的兩條趨勢加深。

在這樣的趨勢中，對于地方政府爲地區的發展建立志向未來的政策，同時爲解決世界共同問題合作于世界各國的地方政府的必要性逐漸增大。

女性問題也不例外。女性問題不限于一個家庭或地域社會的問題，成爲國際熱門問題。

進一步，以女性爲主題，不僅解決當地地區社會的問題，也要解決全世界的環境、和平、人權問題。

今天的研討會就在上述的背景下舉辦。卽，通過共同交流關于在三國的地方政府實行的「女性政策推進事例和向后推進方向」以及「女性政策交流合作方案」等內容，

希望爲提高東北亞，進一步全世界女性的社會地位和福利增進作出貢獻。

韓中日三國，地理上接近而且文化上擁有很多相似的地方。

由于這三國長時間受到儒教的家父長制影響，女性的社會地位比其他先進國低得多，造成女性人力的浪費。

從這樣的角度來看，本次活動的意義重大。

通過本次研討會，希望實現如下几個問題。

第一，希望日本的熊本縣和中國的河北省，韓國的忠淸南道爲女性的「權益增進」和「福利」互相學習對方的先進政策。

第二，通過本次活動，加深三個地方政府三國之間的理解，更鞏固信賴的基礎。

第三，爲此契機，持續進行東北亞之間的交流，鞏固該地區的和平。

最后，衷心希望以女性爲中心的國際交流，爲增進忠南和韓國、河北省和中國、熊本縣和日本、全世界女性的權限作出貢獻。

向百忙之中抽出時間參加這次活動的內外貴賓，再次表示感謝。尤其，祝來自中國和日本代表團們的健康和幸運！

謝謝！

開　会　辞

忠清南道女性政策開発院長
李 在 隅

本日、我が忠清南道と姉妹関係にある中国、日本地方政府の女性政策関係官や国内の専門家の皆様のご参加で <東北アジア地方政府の女性政策の方向摸索>といったテーマで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ことを大変光栄と存じます。

先ず、中国河北省からお越し頂いた婦女子・児童業務委員会辦公室副主任の呂愛英様と婦女連合会事業発展部長の劉花冊様、そして、日本熊本県から来られた弁護士の藤田光世様、緒方洋子課長にご挨拶申上げます。

又、お忙しい中、本日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列席して下さった韓明淑女性部長官にも心からお礼を申上げながら、

特に、本日基調演説をお願いしました張夏真韓国女性開発院長と忠南大学校の林善姫教授、公州大学校の金景淑教授、安貞善教授にも感謝の意を表します。

そして、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討論の場」の実現に向けて多大な労を取られた沈大平忠清南道知事に感謝の意を表すとともにご参加された内外貴賓の皆様にも心から御礼を申上げます。

今世界は地方化と世界化といった二つの激しい変化の流れに直面しています。

この流れの中で地方政府は地域発展のための未来指向的な政策を立案し、世界共通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世界各国の地方政府との交流・協力の必要性が益々増大されております。

女性問題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今や女性の問題が一家庭や地域社会の問題に限らず、国際的な共通の関心事として論議されている実状であります。

さらに、女性が主体となって各々の地域社会問題だけでなく、全世界の環境、平和、人権の問題等を解決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が広がっております。

本日のシンポジウムもまさにこのような脈絡から設けられたものであります。即ち、3国の地方政府で各自行われている「女性政策推進事例と今後の推進方向」及び「女性政策の交流協力方案」等を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

東北アジア、ひいては全世界の女性の社会的地位向上と福祉増進に寄与させて頂きたく開催されたものです。

韓国、日本、中国は地理的に隣接しているだけでなく、文化的にも多くの類似性を持っています。

3国は儒教的な家父長制の影響を長期間受けてきた国であるため、女性の社会的地位が他の先進国に比べて非常に遅れており、女性人力も十分活用されてない実状であります。

こうした側面から、本日のシンポジウムはさらに意味深いと言えます。
我々は本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以下の幾つかを追求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1. 日本の熊本県と中国の河北省、そして、韓国の忠清南道が女性の「権益増進」及び「福祉」のためにお互いに多くが得られることを希望致します。

2. この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地方政府間、ひいては3国間の相互理解と信頼の土台がさらに固まる基礎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3. これをきっかけとして東北アジアの交流を持続的に活性化させ、この地域に平和を定着させる小さな種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最後に、こうした女性中心の国際交流が忠南と韓国、河北省と中国、熊本県と日本、ひいては、全世界女性の権限を増進させる(Empowerment)基盤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ご多忙中、本日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参列して下さった内外貴賓の皆様にも改めて御礼を申上げながら、特に、中国と日本からお越し頂いた代表団のご健勝を祈念致します。

有難うございました。

女性部長官
激励辞

격 려 사

여성부장관 한 명 숙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가 날로 증대되고 동북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여성정책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여성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여성전문가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북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 문턱에서 더 없이 적절하고도 빠른 대응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충청남도 도지사님, 충청남도 여성개발원장님, 그리고 국제적 심포지움을 개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의 동질성 속에서도 각 국은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즉, 비슷한 문화 속의 여성발전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와 한편으로는 각 국의 고유한 여성발전의 과제와 쟁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상호공감과 합의점을 도출해냄으로써 아태지역 여성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아태지역의 시대라고 합니다. 진정한 아태지역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섬세한 감각과 직관력 등 여성의 장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21세기 벽두에 여성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한 여성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여성들이 이룩해 온 땀과 노력의 성과이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보장을 위해 모성보호관련 법률 개정 및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등 남녀차별적 법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성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 업무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증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생활정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현황은 여성광역의원이 5.7%, 기초의원은 이보다 낮은 1.6%에 불과합니다.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30% 여성할당제를 명시한 정당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결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여성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5월 여성부에서는 한·중·일 3국의 고위급 여성지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동북아 여성지도자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여성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동북아 여성 교류와 협력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여성선언문」을 채택하는 개가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여성부의 회의개최를 계기로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동북아지역간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선두주자로 동북아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동북아 여성들이 서로 협력해야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가와 지역의 이해를 초월하여 여성의 공통적인 목표인 평등, 발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남녀간의 동등한 세력화와 실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이 협력의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고립과 단절이 아닌 상호교류와 협력의 시대인 만큼 오늘 심포지엄이 한·중·일 여성지도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의 여성 뿐 만 아니라 일본·중국과 북한 여성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심포지엄이 되기를 기원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동북아 여성협력, 특히 지방정부간의 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를 견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 관계자 분들과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분들과 참석하신 국내 여성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勉　勵　辭

女性部 部長
韓明淑

尊敬的各位來賓

在婦女的作用和社會參與的日趨增長，以及東北亞在國際社會中，逐步成長爲中心樞紐之際，首先，對韓國・中國和日本三國的婦女政策專家們，相聚在一起以「探索東北亞地方政府的婦女政策方向」爲主題召開這次國際女性研討會，我感到由衷的高興。　并在此，對來自中國和日本的女性問題專家們，表示熱烈的歡迎。

在東北亞交流和協作日趨重要的21世紀的今天，對及時而又恰好時機的組織這次研討會的忠淸南道的道知事和忠淸南道女性開發院院長以及爲這次國際學術會議的擧辦付出辛勤汗水的有關人員表示衷心的感謝。

韓・中・日三國不僅在地理位置上相近，而且在經濟・文化・政治上也是一直保持着緊密的聯系。　在儒敎這一共同的文化圈內，各國都發展了具有各自固有的獨創性文化。也就是說在相似的文化中，一方面帶着共同對女性發展的關注而另一方面又帶着各國自己所固有的女性發展的課題和焦点。

因此，我相信，今天在這里，通過對各自所關心的問題進行充分的討論，溝通思想找到相互協作的共同点，以此來促進對亞太地區的女性發展。

21世紀是亞太地區的時代。爲了使亞太地區能夠成爲本世紀眞正的主人，東北亞地區女性的國際連接和協作是必不可少的。而且21世紀是女性所固有的細膩和洞察力等優点能夠充分發揮的女性時代。

爲了在21世紀開始之際，打開女性的新篇章，韓國成立了女性部，這是韓國女性通過辛勤汗水和努力所取得的成果，這也反映了‘國民政府’對女性政策的强力支持。因此，我想它更具有曆史意義。

女性部正在爲21世紀國家競爭力的基礎卽女性人力資源的開發而努力，爲女性的權益保障，正在積極修正有關保護母性的法律和「關于禁止男女區別對待和限制的法律」等。而且，爲了有效的促進女性政策，正在努力建設所屬部門的協作體系，尤其是爲了鞏固同地方自制團體的協作體系，定期擧辦女性政策說明會，幷且積極探索着地區自治團體有關女性工作的標准化方案。

爲了實現女性政策的主流化，在地方自治團體，提高女性的政治地位是最重要的。這是因爲地方自治是地區居民自己解決自己的問題，改善自己生活質量的生活政治現場。　目前，由我國女性參與地方議會的現狀來看，女性廣域議員占5.7%，而基層議員僅占 1.6%。

在過去的第16屆大選之際，雖然在政黨法上通過的了明確指出對女性代表給予30%配額的國會和廣域議會代表的比例，但是其大選后的結果不盡如意。因此，爲了確保對這種制度的實效性，我們女性部將作出更多的努力。

在今年5月，女性部在漢城首次擧辦了韓・中・日三國高級女性領導

參加的「東北亞女性領導者會議」，通過這次東北亞女性領導者會議，不僅構筑了東北亞地區女性國際協作體系，而且通過開發實現性主流化的具體戰略，譜寫了東北亞女性交流和協作的新篇章。并且也奏響了爲穩定韓半島和平而努力和采納載有爲后代進行公正的曆史教育內容的「漢城女性宣言」的凱歌。

以女性部舉辦的這種會議爲契機，地方政府也積極地開展了東北亞地區間的交流活動。　特別是忠淸南道率先舉辦摸索東北亞地方政府間協作方案的國際硏討會，我想是非常有意義的。

尊敬的各位女性領導者

大家認爲東北亞女性們相互協作的最終目標是什么？我想應該是超越對國家和地區的理解，實現女性共同的目標卽平等，發展，和平。尤其是有男女間平等的實力化和實現有實際平等權利的社會是協作的最終目標。

21世紀不是獨立的也不是間斷的，是相互交流和協作的時代。爲此，我希望今天的硏討會成爲加强韓・中・日女性領導者的交流和協作的良機，也希望不僅是南北間的女性交流，也要促進日本・中國和北韓女性間的交流和協作。

總之，衷心祝愿這次硏討會圓滿成功，祝愿通過有深度的討論加强和鞏固東北亞女性的協作，尤其是要打好地方政府間女性網絡的基礎。并再次向爲了舉辦這次硏討會不惜努力的忠淸南道的有關人員和來自中國和日本的各位以及出席這次硏討會的國內與會者們表示感謝。

激　励　辞

女性部長官　韓 明 淑

尊敬する内外の貴賓の皆様、

女性の役割と社会参加が日増しに増加され、国際社会において東北アジアが新しい中心軸として浮上しているなか、先ず韓国と中国、日本の3国の女性政策専門家が集まり「東北アジア地方政府の女性政策方向の摸索」といったテーマで国際女性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る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中国と日本からお越し頂いた女性専門家の皆様の訪韓を心より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東北アジアの交流や協力の重要性が日ごとに増している21世紀の入り口で、非常に迅速かつ的確な対応をして今回のシンポジウムを設けて下さった忠清南道知事、忠清南道女性開発院長、そして、開催の準備にあたった関係者の方々に心よりお礼申しあげます。

韓·中·日の3国は地理的に近いだけではなく、経済的·文化的·政治的に緊密な関係を続けてきております。なお、儒教文化といった共通した同質性のなかでも各国は独創的な固有文化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即ち、似た文化の中での女性発展といった共同の関心事を持ち、一方では各々の固有な女性発展の課題と争点を抱えていると思います。

従いまして、本日ここでお互いの関心事について十分な議論が行われ、相互共感と合意点を導かせることでアジア・太平洋地域の女性政策 発展の土台になることを信じております。

21世紀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時代と云われています。真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時代になるためには東北アジア地域女性の国際的連帯及び協力の必要性が真剣に要求されています。また、21世紀は繊細な感覚と直感力など、女性の長所が輝ける女性の時代であります。

韓国は21世紀のはじめに、女性の時代を新しく開いて行くために女性部を発足させました。これは韓国女性が成し遂げてきた汗と努力の成果であり、女性政策に対した'国民の政府'の確固たる意志を反映しており歴史的に非常に意味深いことと存じます。

女性部は21世紀の国家競争力の基盤になる女性人的資源の開発のために努力しており、また、女性の権益保障のため母性保護関連法律の改定及び「男女差別禁止及び救済に関する法律」改定等、男女差別的な法制度や慣行を改善しております。そして、女性政策を効率的に推進するための協力体制の構築に努力しております。特に、地方自治団体との協力体制を強化するため、定期的に女性政策説明会を開催する一方、地方自治団体の女性関連業務の標準化の方法を摸索しています。

女性政策が主流になるためには、地方自治団体における女性の政治的役割の増大が非常に重要であります。なぜなら、地方自治は地域住民自らが当面した問題を解決し、暮らしの質を上げて行く生活政治の現場であるからです。現在わが国の女性の地方議会進出状況は広域議員が5.7%、基礎議員はこれより低い1.6%に過ぎません。

さる16代総選挙の前に、国会および広域議会の比例代表に30%の女性割当制を明示した政党法を通過させたが、その結果はまだ期待に及んでいません。そのような制度の実効性の確保のために女性部は努力して参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今年の5月に女性部は韓·中·日3国の高位級女性指導者が初めて集まった「東北アジア女性指導者会議」をソウルで開催しました。東北アジア女性指導者会議を通して東北アジア地域の女性国際協力体制を構築するとともに、女性が主流になるための具体的な戦略を開発することによって東北アジア女性の交流と協力の歴史に新たな扉を開きました。また、韓半島の平和定着のための努力と、後世に伝える正しい歴史教育を強調する内容の「ソウル女性宣言文」を採択する喜びも味わいました。

こうした女性部の会議開催をきっかけとして地方政府においても東北アジア地域間の交流が活発に行われております。特に忠清南道がその先頭を切って東北アジア地方政府間の協力方法を摸索する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たのは非常に意味深いことと思っております。

尊敬する女性指導者の皆様、

東北アジアの女性達がお互い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究極的な目標は何であろうと思われますか。それは国家と地域の理解を超えて、女性共通の目標である平等、発展、平和を実現させるためであります。特に、男女間の同等の勢力化と、実際に平等な権利が保障される社会の具現が、協力の最終的目標になるべき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21世紀は孤立と断絶ではなく、お互いの交流と協力の時代であるからこそ、本日のシンポジウムが韓·中·日の女性指導者の交流と協力を強化するきっかけとなり、引いては南北の女性、そして、日本·中国と北韓女性との交流・協力も促進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なにとぞ、本日のシンポジウムが成功的なものになることを期待しながら、深度のある論議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女性協力、特に、地方政府間の女性ネットワーク構築の土台を固めることを願ってお

ります。

改めて本日のシンポジウムの開催のために努力して下さった忠清南道の関係者の皆様、中国と日本からお越し頂いた参加者の皆様、そして、ご参列して下さった国内女性界の皆様に心からお礼を申上げます。

忠清南道知事
歡迎辭

환 영 사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여성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21세기를 열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멀리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고장을 방문해 주신 뤼아이잉 부주임과 리우화처 부장님, 후지다 미쯔요 변호사님과 오가타 요꼬 과장님, 그리고 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포지엄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이재우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여성의 지혜와 감성에 의해서 그 한 軸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879년, '노라'라는 희곡 속의 여주인공이 "아내이며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이후, 여성은 실로 120년이 넘는 역사를 헤치고 이제 새로운 세기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남성에 비해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관료나 사회단체 구성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모든 직업에서 性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올 연초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였고 지난 7월에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을 제정하여 금년을 남녀평등사회 실현의 元年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道 역시, 이에 발맞추어 올해의 역점시책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로 정하고 여성 여러분을 사회발전의 주체로 동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우리 道의 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웃한 각국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입니다.

실정이 유사한 동북아 3國의 지방정부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류협력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동북아 지역 여성들의 自國內 지위 향상은 물론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를 해온 우리 3개 지방정부가 여성 정책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의 여성은 온실 속의 화초로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사회인의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성의 無限한 잠재력과 탁월한 창조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을 때, 국가와 세계도 더불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는 그런 여성을 위해서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우리 道에서도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의 직업교육 확대 등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엄이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개발에 알찬 밑거름을 제공해 주길 바라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에 참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歡　迎　詞

忠淸南道知事　沈大平

打開由女性創造新价值的21世紀，能在大韓民國忠淸南道擧辦'國際女性政策硏討會'，深感意大。

熱烈歡迎爲參加這次硏討會，來自中國和日本的呂愛英副主任和劉花冊部長、藤田光代律師和緖方洋子科長、參會的所有人士。

對硏討會的擧辦給予支持和協助的李在隅女性政策開發院長以及有關人士表示謝意。

目前的世界以女性的智慧和感性爲軸運轉。

1879年，叫稱'羅拉'的戲曲中的女主角宣布"我願意夫人和母親的人生以前，願意一個人的人生"以后，女性經過120多年的曆史成爲新一代的主人公。

從傳統的觀點來看，把女性認爲比男性依賴性和從屬性强的東洋文化圈里也感受到上述的氣氛。

在各國政府的官僚或社會團體的成員中女性占的比率大大增加，所有的職業中瓦解性的境界，這種現象證明上述內容。

韓國也在年初新設中央行政機關-女性部，7月份制定'21世紀男女平等憲章'，把今年宣布爲實現男女平等社會的元年。

我道把今年的重點施策定爲'提高女性的社會作用'，努力使女性參加爲社會發展的主體。

這次擧辦研討會，是爲了更有效的推進我道的施策跟鄰居共同探討。

情況相似的東北亞三國的地方政府謀求爲適應世界化時代的女性政策發展的方向，推進相關的交流合作。

我希望通過本研討會，東北亞地區女性提高在自國內的地位，同時增大她們在國際舞台上的作用。

通過姐妹關系進行活躍地交流活動的我們三個地方政府，希望對女性政策部門也建立更緊密的合作。

21世紀的女性不再是溫室里的花，在社會活動的女性更美麗。

女性的無限的潛在力和卓越的創造力能夠發揮的話，國家和世界也同樣發展。

今后各位通過更積極的社會參與，成爲自己創造未來的主人公，我們的社會向她們給予更大的關心和愛情。

當然我道也繼續努力，通過穩固兩性平等文化擴大女性的職業教育等方法提高女性的地位。

希望今天的國際女性政策研討會爲東北亞地區地方政府的女性政策開發提供良質的基礎，獲得好的成果。

向參加合作活動的各位表示感謝，祝各位的健康和幸福。

歓　迎　辞

忠清南道知事　沈 大 平

女性により新しい価値が創造される21世紀を開きながら、我が大韓民国忠清南道で「国際女性政策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ることを非常に意味深く存じ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遠路遥々中国や日本から我が忠清南道を訪ねて下さった呂愛英副主任と劉花冊部長、藤田光世弁護士と緒方洋子課長、そして、シンポジウムに参加された皆様を心から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シンポジウムの準備に多大な労を取られた李在隅忠南女性政策開発院長をはじめ、関係者の方々に心より御礼を申上げます。

現在世界は、女性の知恵と感性によって、その一つの軸が働いております。

去る1879年、「人形の家」のヒロイン、ノーラが'褄や母である前に一人の人間として生きる'と宣言した以来、女性は実に120年以上の歴史をかき分けて、今や新たな世紀の主役として堂々と現れたのであります。

伝統的に女性は男性に比べ依存的で従属的な存在とされてきた我がアジア文化圏でも、こうした流れは確実に感じ取られています。

各国政府の官僚や社会団体の構成員のなかで女性が占める比率が大きく上昇され、すべての職業において性の境がなくなる現象がこれを裏付けています。

韓国でも今年の初頭に中央行政機関として女性部を新設し、去る7月には'21世紀男女平等憲章'を制定して、今年を男女平等社会実現の元年と宣言しました。

我が道も又、この流れに合わせて今年の主要施策を'女性の社会的役割を高めること'と決めて、女性を社会発展の主体として参加させるために努力しており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主催もこうした我が道の施策をより効率的に進めるために、お隣の国々と共に知恵を集めようと思ったのであります。

実情が似ている東北アジア3国の地方政府がグローバル時代に相応しい女性政策の発展方向を摸索しながら、これと関連した交流協力も推進したいと思ったのであります。

私は今回のシンポジウムが我が東北アジア地域の女性において、自国内の地位向上は勿論、国際的な役割の増大にも大変お助けになると期待しております。

今まで姉妹提携を通して活溌に交流してきた3国の地方政府が、女性政策分野でもさらに緊密に協力していけると信じております。

21世紀の女性は温室のなかの花として美しいのではなく、活動する社会人として、もっと輝くことでしょう。

女性の無限の潜在力と卓越した創造力を思う存分発揮することが出来る時、国家と世界がともに発展するものです。

女性の皆様はより積極的な社会参加を通して、自ら未来を開く主人公となり、我が社会はそのような女性のためにより大きな関心と愛情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勿論、我が道でも両性平等文化の定着や女性職業教育の拡大等、女性地位の向上のために、続けて努力して参ります。

何とぞ今回の国際女性政策シンポジウムが東北アジア地域地方政府の女性政策開発の土台になることを願いながら、よい成果を期待しております。

本シンポジウムに協力して下さった皆様、ご列席の皆様に改めてお礼を申上げながら、ご多幸とご健勝をお祈り致します。

韓國女性開發院長
基調演說文

동북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방향 모색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동북아 여성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중·일 3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이라는 절실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의 세기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나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여성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북아 3개국이 여성정책의 추진사례와 향후 전망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지방정부간 여성정책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1세기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의 방향 속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이루어나가는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여성정책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 여성정책은 '부녀행정' 업무에 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심포지움을 개최한 충청남도는 타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여성정책 전담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농업여성정책과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있는 모범적인 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여성정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단계로서 그 기초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올해 건국이래 최초로 정부부처로서 여성부가 탄생하므로서 여성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여성부가 거시적 차원에서 마련한 여성정책의 기본 틀이나 법과 제도가 여성의 삶의 질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여성정책의 구체적 실행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새로이 마련한 법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여성의 의식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입니다. 또한 여성부의 정책은 각 지역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지자체 여성정책의 성과와 대안이 충실히 반영될 때에만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점에 동북아 3개국이 함께 모여 각 국 지방정부의 여성문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여성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사례에서 협력점을 찾아내어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중·일 삼국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 문화적 영향력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아·태 시대의 주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과학기술 부분의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영역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여성들에게는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동등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요소로 분단되어 있는 노동시장 속에서 여성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참여는 성차별적인 장애로 제한되어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자원을 적게 소유하고 있는 여성들은 또 다른 정보격차를 경험하게 될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동북아 여성들은 새로운 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인 능력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쟁력과 가치관을 가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여성 주류화의 실현을 위해서 한·중·일 삼국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에서 수립된 여성정책이 지역적 현실에 적합하게 구현해 가는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여성정책 실현의지를 확인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토대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됨과 동시에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각국의 경제·정치·사회는 공동의 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들은 경쟁과 협력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파도 속에서 지방화의 과제가 또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단위로 중앙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책들이 이제는 개인들의 삶의 터전인 지방의 자치적인 운영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은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어진 도전들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새 세기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을 크게 네 영역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경제 질서 내에서 동북아 여성노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급격한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여성노동의 개발과 활용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지식기반 경제구조에서 효율적인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여성은 지식기반 산업에서 더욱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경향 속에서 여성노동의 주변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참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수만이 핵심인력으로 진입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은 2차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인 요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여성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보혁명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서 정보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화 영역은 여성의 창의력과 도전력이 폭넓게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과학기술분야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아직도 널리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에 의해 정보화 격차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되거나 여성적 관점이나 독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게 된다면 정보화 혁명의 진전이 더디어 질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균형있고 다양한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에 여성들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며 여성들의 가치와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와 가치관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동북아 여성들은 보다 활발한 문화적 교류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이 지역의 여성들의 의식과 문화가 더욱 성평등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삼국은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동질적인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평등한 지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개선뿐 만 아니라 평등의식과 문화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고 남녀 평등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제적 의식을 축소 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문화는 서구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평등 의식은 서구적인 것도 아니며 동양적 전통이 남녀평등 문화와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동양적 관습과 미풍양속이 남녀평등 문화 속에 재창조 될 수 있도록 동북아 여성들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연대의 문제입니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영역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서구의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상호의 경험들을 교환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내년의 한국의 지방자치 선거에 일본 여성들이 성공한 사례와 전략들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국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초의원의 단 1.6% 만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의 지방선거에서 이웃국가 여성들의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여성들이 정치적 도약을 이뤄 더욱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충청남도에서 마련한 이번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움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이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동북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실천의 터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의 여성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실천적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삶에 적합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도 다원화된 여성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3국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각국 나름의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함께 이해하고 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동북아의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이 보다 풍성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국간의 긴밀한 연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 3개국의 지방정부는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다원성과 적절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라는 여건 속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동북아 3개국 지방정부 간에 여성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한층 성숙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북아지역의 여성연대가 이 지역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들의 권익보장과 평화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對東北亞地方政府女性政策方向的探討

韓國女性開發研究院 院長
張 夏 眞

尊敬的沈大平道知事, 東北亞女性領導者們, 以及今天在座的各位來賓.

今天, 韓・中・日三國的女性領導者們能夠聚在一起以‘地方政府的女性政策’這切實的主題進行深層次的討論, 我感到由衷的高興, 也感到具有深遠的意義。

一方面, 隨着全球經濟的加速發展, 另一方面, 在這地方化的重要性得到進一步加强的時機, 能和肩負着實際完成女性世紀重要使命的地方政府的女性領導者們在一起交換意見是一件非常有意義的事情。

今天的會議是探索東北亞三國促進女性政策的案例和今后前景, 并且是策划東北亞地方政府間女性政策的交流協作體系的會議。特別是我們應當在21世紀女性政策的基本卽女性地位的提高,福利的向上方面, 摸索出地方政策在女性主流化(Gender Mainstreaming)上應當擔當的角色。

以我國的情況來看, 地方女性政策是在1995年實施地方自治時期才開始了實質性的變化。

過去的地方女性政策主要是限制在‘婦女行政’工作上。但是, 現在

爲了男女平等及女性參與社會和促進福利，着手准備了所需要的具有法制的設施，而且在整个地方行政業務上都反映了女性觀点。　舉辦這次研討會的忠淸南道比其他道先一步創立了專門從事女性政策的忠南女性政策開發院來專門從事女性政策，不僅開發了農村女性政策和多種多樣的女性敎育節目，幷且在道政府的議事日程上，反映了一个很好的模範作用。但是，我國的地方女性政策從全國範圍來看，還是處于 初步的奠基階段。

尤其是在今年，韓國建國以來在政府部門首次創立了女性部，使女性政策迎來了新的轉機。　但是，中央女性部是從宏觀上建立在女性政策的基本框架和法律制度中，要想眞正改變女性的實際生活質量，關鍵還在于地方自治團體的具體落實。　所以，爲了提高女性的地位，新創立的法制能夠眞正帶來女性意識和生活的變化，實現眞正的男女平等才是地方政府的女性政策。幷且女性部的政策只有在以各地區的現場經驗爲基礎，能夠充分體現地區自治團體女性政策的成果和對策時，才能生存和發展。

今天，東北亞三國相聚在一起，有機會共同討論各國地方政府關于女性問題的現行方案，摸索地方政府女性政策的新發展方向，不能不說意義深遠的。　我想這次聚會不僅成爲對各國女性問題進行國際性探討的機會，而且會成爲通過相互的實際找到協作点，携手共進的一个重要的契機。

韓・中・日三國作爲世界經濟的一个共同軸，具有巨大潛力而受到擧世矚目，而且在政治和文化上的影響力也將得到進一步的加强。　爲了肩負面臨的亞・太時代主角，不論在政治・經濟和科學技術領域的

協作必要性將會得到不斷的發展，在此，女性應該發揮其重要作用。

但是，對于東北亞女性來說，在傳統的儒教文化中，還存在着對女性的差別和偏見，對于女性的能力沒有提供同等的機會，也沒有充分的保障女性的人權。　并且，在由于性別的差異而造成的勞動市場中，被性別差異的阻碍限制了女性們參與經濟活動的自由，使女性們尋求經濟上的自立，發揮其競爭力方面受到了限制。　而且，由于走向信息化社會過渡的加速，有可能使沒有充分掌握社會資源的女性再一次受到在信息上落后的遭遇。

在這種時代和曆史的背景中，東北亞的女性們要適應新世紀的變化，自主解決面臨的問題，更加要主動的完善和適應知識社會的競爭能力和價值觀。爲了實現21世紀女性的主流化，希望韓・中・日三國能以携手和協作爲基礎，在東北亞發揮帶頭作用。尤其是在得到地方政府重視的今天。我們期待在肯定中央樹立的女性政策符合地區的現實，而且在地方政府的支持下得到體現的同時，以多種多樣的體驗爲基礎，形成生産性的討論。

尊敬的各位來賓!

21世紀是世界化・地方化時代。　主宰世界的冷戰觀念期結束的同時，由于咨詢的急速發展，各國的經濟・政治・社會掀起了共同的浪潮，世界各國在競爭和協作中樹立着新的秩序。在這樣的世界浪潮中，地方化的課題又擺在了我們的面前。　以往以中央爲中心所形成的政策，現在隨着以个人生活的現場卽地方的自治運作，得到自由實現的同時，世界性的携手和協作的必要性是千眞萬確的事實。　隨着這種時代的

現狀，未來的女性政策應克服曆史局限，積極而又富有創造力地去實現。本人在此對新世紀地方政府的女性政策方向大體分爲四个領域作了探討。

第一， 關于世界經濟秩序中東北亞女性勞動的問題

隨着急劇變化的世界，在經濟結構的再組合過程中，女性勞動的開發和活用，比任何時候都顯得重要。21世紀以知識爲基礎的經濟結構中，活用有效的女性勞動力，將會決定一个國家的競爭力。對于韓中日三國來說，我想女性參與經濟活動的前景是有增無減的。而且，也在知識産業中得到了女性的勞動力將會發揮更大競爭力的社會評价。 但是，由于高速發展的勞動市場的柔軟化使在勞動市場出現的兩極化傾向中出現了女性勞動的可變性現象。

雖然，參與經濟活動的女性在增加，但是，只有少數以核心人力參與，大部分都是處于受第二勞動市場影響的不穩定的地位。 所以在勞動市場上應更加努力地消除性差別因素，使女性能夠充分的發揮自己的能力，在以知識爲基礎的經濟領域中作爲核心人力得到活用。

第二， 關于信息革命和女性作用的問題

我們在經曆了農業革命和産業革命之后，現在生活在信息革命的新時代。信息化不僅是技術力而且其內容和質量也是非常重要的。 目前，認爲雖然在信息化領域廣泛地需要女性的創造力和挑戰力，但是尙有大多數人存在着‘科學技術是男性的領域’的這種傳統的固有觀念。如果由于這種舊觀念，而導致在信息化差距中，女性成爲相對的薄弱集團，或者未能充分反映女性的觀点及獨創性的話，這不僅會緩慢信

息革命的邁進，而且整个信息化的發展也會失去平衡，我們更無法不可期待向良好的方向前進。　所以，應該持久的推行能夠使女性們更容易接近信息化的政策，幷創造開放的結構使女性們的价值和創造力得到充分的發揮。

第三，　關于文化和价值觀以及教育的問題

東北亞女性應通過更加活躍的文化交流和新的教育節目的開發，共同努力建設東北亞地區女性的意識和文化上得到更加女性平等的體系。

從整个世界來看，三國具有共同的文化根基，保持有衆多的相似性，尤其是在大男子主義的觀念下，存在着共同的內容和形式。爲了女性能夠參與社會活動和取得平等的地位，不僅要改善法制，還要樹立平等的意識和文化。互相交換各國開發的多種教育節目和普及男女平等文化的事例，縮小還殘留着的大男子主義思想。但是，東洋文化具有同西歐不同的特殊性，男女平等意識既不是西歐式的這幷不是說東洋傳統不能和男女平等共存。所以，東北亞的女性應該爲了使東洋傳統習俗和美風良俗在男女平等的文化中得到新的發展而努力奮斗。

最后是關于政治上的携手問題

爲了建設女性政策的主流化，要加强女性的影響力讓更多的女性參與政策的確定，使女性觀點全部體現在政策之中，尤其是在確定政策中能夠發揮重要作用的政治領域，擴大女性的參與。但是，目前東北亞女性的政治參與同西歐的國家相比還處于極爲低潮的狀況。因此，如果更多的女性參與政治，交換在競選中能夠取勝的成功經驗，共同摸

索划時代的方案的話，我想能夠取得更大的成果。比方說，明年的地方自治選擧中，如果能通過緊密結合日本女性的成功事例和戰略，幷以此來支援韓國女性的話，我想能夠取得更有效的結果。

特別是在地方議會中，雖然女性的參與相對來說比較容易，而且女性的作用也很大，但是在韓國的基礎議員中女性僅占1.6%。在這種狀況下，如果在2002年的地方選擧中能夠得到鄰國女性們的關心和協助，韓國的女性們將會取得在政治上更上一層樓的成果。

親愛的各位來賓

由忠淸南道安排的這次國際硏討會給建立獨特的運作體制的地方政府女性政策專門機構創造了爲擁有相同曆史性質的東北亞帶來更爲廣闊的實踐基地發展的契機。因此，這次硏討會將成爲對東北亞女性問題提供具有實效性的開發政策的洞察力和解篇章。　應在實施同各階層的女性生活相適合的政策的同時，建立多元化的能夠充分肯定幷給予支援政策。　對于這些問題東北亞三國應帶着各國所特有的背景來解決，同時，彼此理解，交換智慧。爲了在國際上建立和執行更加豐富和有效的東北亞女性政策，三國間必需形成緊密的携手和協作。

我想再一次强調東北亞三國的地方政府是在世界上肩負着女性政策的多元性和適合性以及確保有效性的重要使命。

通過這次硏討會，在世界化和地方化的條件下，摸索帶着共同問題意識的三國地方政府間女性政策協作方案，幷以此，建立期待着更成熟的女性政策的實施。　希望東北亞地區的女性携手不僅要爲東北亞地區解決女性的生存問題，還要在世界女性們權利保障及和平穩定中起到其應有的作用。

謝謝。

東北アジア地方政府の女性政策方向の摸索

韓国女性開発院長　張 夏 真

尊敬する沈大平知事と東北アジアの女性指導者の皆様、そして、ご列席の皆様、

先ず韓・中・日　3国の女性指導者がここに集まり'地方政府の女性政策'という切実なテーマを以て深い論議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非常に嬉しく、又、意味深く思います。

グローバル経済化が加速されながら、一方では地方化の重要性が強調される時点で、女性の世紀を実質的に主導していく重要な任務を担当している地方政府の女性指導者が直接会って、意見を出し合うことは大変意味のあることです。

本日のこのシンポジウムは東北アジア3ヵ国が女性政策の推進事例や今後の展望を摸索しながら、東北アジア地方政府の女性政策の交流協力体系構築を図る場であります。特に、21世紀女性政策の基本目標である'女性の地位向上と福祉増進'の方向の中で、性主流化(Gender　Mainstreaming)の達成に必要となる地方政府の具体的な役割探すことになります。

韓国の場合、地方女性政策は1995年の地方自治制の実施とともに本格的に変化しております。

従来の地方女性政策は'婦女行政'業務に限られていましたが、今や男女平等及び女性の社会参加、福祉増進のために必要な法的、制度的装置をつくって地方行政全般に性認知的な観点を反映して実行しています。何よりも本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た忠清南道は他の道に比べて先導的に、忠南女性政策開発院という女性政策の専門担当機関を設立して、農業女性政策や様々な女性教育プログラムを開発して道政に反映させている模範的な道であります。しかし、韓国の地方女性政策は全般的に今歩き出したところで、その基礎を作り上げております。

特に韓国は今年建国以来はじめて、政府組織として女性部が誕生したことで、女性政策の新たなページを開くこととなりました。しかし、中央の女性部が巨視的次元でつくる女性政策の基本枠や法律、制度が女性の暮らしに実際の変化をもたらすには自治体の女性政策の具体的な実行に関わります。従いまして、女性の地位向上のために新しく設けた法律や制度が現実的に女性の意識と生活に変化をもたらし、男女平等を実質的に成し遂げるには地方政府の女性政策が重要であります。又、女性部の政策は各地域の生きた経験に基づいた自治体の女性政策の成果や代案が充実に反映されてこそ、生き生きとした現実的な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

こうした重要な時点で、東北アジア3ヵ国が各地方政府の女性問題の懸案を論議し、地方政府女性政策の新しい発展方向の模索の機会をつくったのは非常に意味深いことであります。これは各国の女性問題を国際的な次元で論議するだけでなく、お互いの事例から協力できることを探し出して、連帯して行ける非常に重要なきっかけになることでしょう。

韓・中・日　3国は世界経済の一つの軸として、無限の潜在力が注目されており、政治・文化的影響力もさらに広がって行くと思われます。近づいてくるアジア・太平洋時代の主役を努めるために政治・経済・科学技術部分の協力の必要性がより大きくなっており、そのような分野で女性が重要な役割を遂行し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東北アジアの女性には儒教文化の伝統の中で、未だに女性に対する偏見や差別が存在し、女性の能力に対する平等な機会と女性の人権に対する同等な保障が十分行われておりません。又、性的な要素で分かれている労働市場のなかで、女性の自由な経済活動への参加は性差別的な障害によって制限されて、女性の経済的自立と競争力の発揮には限界があります。さらに、情報社会への移行が加速化し、既存の社会的資源から離れている女性は、もう一つの情報格差を経験する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

こうした時代的、歴史的背景のなかで、東北アジアの女性は新たな世紀の変化に適応し、直面している問題を自ら解決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主体的な能力で知識基盤社会に適合した競争力と価値観を培って行かねばなりません。21世紀の女性主流社会の実現のために韓・中・日の3国が連帯と協力に基づいて東北アジアで主導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希望致します。特に、地方政府の重要性が強調されている現時点で、中央で立てられた女性政策を地域的な現実に合わせて実行していく地方政府の主体的な女性政策実現意志を確認しながら、様々な体験を踏まえた生産的な討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ご参列の皆様

21世紀は世界化、地方化の時代であります。全世界を支配していた冷戦イデオロギーが終りを告げると、情報通信の画期的な発達により各国の経済・政治・社会は同じ波に乗っており、全世界の国々は競争と協力のなかで新たな秩序を立てております。こうした世界化の流れのなかで、我々には地方化の課題がおかれております。今まで国家単位で中央中心的に行われてきた政策が、今や個人の暮らしの根拠である地方の自治的な運営によって自律的に行われると同時に世界的な連帯や協力の必要性が提起されております。こうした時代的状況で、未来指向的な女性政策は歴史的限界を克服し、与えられた挑戦に対して積極的かつ創造的に取り組んで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人はここで、新しい世紀の地方政府の女性政策方向を四つの領域に分けてアプローチして見たいと思います。

先ず一番目は世界経済秩序の中での東北アジア女性労動についての問題です。

急激な世界化にともなう経済構造の再編過程で、女性労動の開発と活用が何時よりも増して強調されております。21世紀の知識基盤経済構造で、效率的な女性労動力の活用が国家競争力を左右すると思います。韓中日3国で女性の経済活動参加はさらに増える見込みで、女性は知識基盤産業においてもっと競争力が発揮できる労動力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しかし、一方では速いスピードで進む労動市場の柔軟化により労動市場の両極化傾向の中で、女性労動の周辺化現象が発見されています。

女性の経済活動参加は増えているが、小数だけが核心人力として

進入し多くの女性が2次労働市場の不安定な地位を占めています。従って、労働市場で性差別的な要因をより積極的に除去して女性が十分能力を発揮して知識基盤経済の核心人力として活用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二番目は情報革命と女性の役割に対する問題です。

我々は農業革命、産業革命を経て情報革命といった新しい時代を生きております。情報化は技術力だけでなく、その内容と質が大変重要で女性の創造力と挑戦力が幅広く要求される分野であるけど、'科学技術分野は男性の領域'といった伝統的な固定観念が未だに多く残っ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固定観念により、情報化格差から女性が相対的に脆弱な集団になる恐れがあり、女性的観点や独創性が十分反映されなければ情報化革命の進展が遅れて、情報化時代のバランスのとれた、多様で健康な発展が期待できなくなります。従って、情報化により簡単に女性を接近させる政策を実行し続けて、女性の価値と創造力が発揮させるような開かれた構造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三つ目は文化や価値観、教育の問題です。

東北アジアの女性は、より活溌な文化的交流や新しい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を通して、自らの意識と文化がさらに性平等的な体系を形成するように、共に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世界的にみると3国は共通の文化的ルーツを持ち多くの類似性があって、特に家父長的イデオロギーにおいて同質的な内容と形式が存在しています。女性の社会進出と平等な地位を獲得するためには法律や制度の改善だけでなく、平等意識と文化の構築が共に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各国

で開発された様々な教育プログラムを交換し、男女平等文化拡散の成功事例を紹介しながら、まだ残っている家父長制的な意識を縮小し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東洋文化は欧米とは異なる特殊性を持っており、男女平等意識は欧米のものでもなく、東洋的伝統が男女平等文化に反す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従って、東洋的慣習が男女平等文化の中で再創造できるように東北アジアの女性は一つになって努力し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最後に、政治的連帯の問題です。

女性政策が主流になるためには、さらに多くの女性が政策決定過程に参加して、性認知的観点がすべての政策に反映されるように女性の影響力を増大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特に政策決定に重要な影響力が発揮できる政治領域に女性の参加拡大が必要です。しかし、現在東北アジア女性の政治参加は欧米に比べ非常に低い状況であります。従って、より多くの女性が政治に参加し選挙に勝てるお互いの経験を交換し画期的な方案を共同摸索したら、さらに大きな成果が期待できると思います。一例をあげると、来年の韓国地方自治選挙に、日本女性の成功事例や戦略を研究し、日本女性からの支援があればより効果的な結果をもたらせるかもしれません。

特に地方議会は女性の接近が容易で、女性の役割がもっと大きいのにも関わらず、韓国では基礎議員の1.6%だけを女性が占めています。こうした状況で2002年の地方選挙でお隣の国の女性からの関心や協力があれば、韓国女性も政治的に跳躍してより多くの成果が期待できると思います。

親愛する皆様

忠清南道が設けた今回の国際女性政策シンポジウムは、独自的な運営体制を構築している地方政府の女性政策担当機構が歴史的同質性を持つ東北アジアというより広い実践の場に進むきっかけにな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従って、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東北アジアの女性問題に対して、より実効性のある政策を開発する洞察力を提供する実践的な和合の場となるでしょう。多様な階層の女性の暮らしに適合した政策が施行され、多元化された女性の状況を十分認めて支援できる政策を樹立すべきであります。東北アジア3国はこうした問題に各国固有の背景を考慮してアプローチし、お互いを理解し、知恵を分け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グローバル化された世界のなかで東北アジアの女性政策樹立と施行がより活性化されるためには3国間の緊密な連帯や協力が不可欠であります。

私は東北アジア3ヵ国の地方政府は世界的にも、女性政策の多元性や適切性及び効率性の確保のために非常に重要な役割を担当する主体であることをもう一度強調したいと思い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世界化や地方化時代の流れのなかで共通の問題意識を持った東北アジア3ヵ国地方政府間の女性政策における協力方案を摸索し、これを通じて一層成熟された女性政策を樹立して施行できると期待します。東北アジア地域の女性連帯がこの地域の女性の生活問題を解決すると共に、世界女性の権益保障や平和定着に先導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希望致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3地域 主題發表文〉

○ 河 北 省：婦女子業務委員會 辦公室
副主任 呂愛英

○ 熊 本 縣：辯護士 藤田光代

○ 忠清南道：國立 公州大學校 教授 金景淑

河北省 婦女子業務委員會 辦公室

副主任　　呂　愛　英

여성정책 발전현황 및 금후대책

허베이성 부녀자업무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여 애 영

신사, 숙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처럼 찬란한 황금계절에, 저희들은 한국 충청남도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모여,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방향 등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저는 중국 허베이성 부녀자연합을 대표하여 이번 포럼을 개최하시는 한국 충청남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성정책 관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등、발전과 평화는 세계 각국 여성들의 공통요구이며 소망입니다. 세계 여성인구의 5/1이 중국여성이며, 그들은 평등、발전과 평화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웠습니다. 중국정부는 여성의 진보와 발전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실현은 사회문명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여겨, 남녀평등을 국가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국책으로 삼았습니다. 기본국책의 내용은 여성멸시현상의 절대적 반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활동 중에서의 평등한 지위와 각종 권익의 옹호과 보장, 중국여성발전을 위한 법률보장과 정책적인 지지 등이 있습니다.

6년 전 중국정부는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비정부단체논단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197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온 대표 및 유엔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직, 비정부단체 등의 45,000여명과 회의 참가자가 모두 북경에 모여, 전세계 여성의 공통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광범위한 교류로 공통인식에 도달하여, 《나이로비전략》의

집행을 가속화할 《북경선언》과《행동강령》을 제정통과하고, 전세계 여성사업의 발전과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중국정부는 실제행동으로 대답을 표하고자《북경선언》과《행동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총 목표에 근거하고 중국여성이 평등하게 발전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1995~2000) 중국여성발전개요》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여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계획으로 중국의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국책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중국정부가 제4차 세계여성대회《북경선언》과《행동강령》의 후속조처를 정식으로 시작했음을 확정짓는 상징입니다. 《중국여성발전개요》를 전면적으로 효과있게 실현하기 위해 중국 31개 성·시와 80%이상의 현(구, 시)에서 모두 당 지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각급 정부는 국가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카니즘을 강화했는데, 국무원 여성·아동 업무위원회는 24개 성원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허베이성 정부는 1989년 허베이성 여성권익 보호위원회를 설립했고, 1999년 허베이성 여성·아동 업무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들은 정부의 34개 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성의 11개시와 173개 현(구)이 모두 조직기구를 성립하였으며, 전문지도자와 요원 및 비용을 배치하고 종횡교차 조직망을 형성하여 여성계획의 실시를 위해 조직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발전개요에서 제시한 각종목표의 전면적인 실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원 여성·아동 업무위원회는 전국 통일의 감독통계지표체계를 건립하였고, 감독평가업무 메카니즘을 건립하였습니다. 허베이성은 여성계획의 초기부터 여성계획 감독평가지도팀을 설립하여, 하부에 감독통계팀과 전문가평가팀을 설치했으며, 현이상급 정부에는 감독평가 업무체계를 형성했습니다.

국무원 여성·아동 업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0년말까지 허베이성정부는《중국여성발전개요》의 각종목표를 실현했으며,

2001~2002년의 여성발전계획의 편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중국 현대화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법을 강화하고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기능을 강화하고, 비정부조직의 영향을 발휘하여 국제협력과 교류등 일련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행동강령》,《중국여성발전개요》는 이미 효과적인 집행을 얻었으며, 여성발전상황은 명확하게 개선되었고, 여성의 재능이 발휘되었으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유리하게 촉진하는 현상을 기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1. 여성발전현황

(1) 여성과 경제

중국정부는 여성을 국가경제건설에 참여하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의 주체로 보고, 여성을 위해 취업통로를 열고 교육의 기회를 늘리며 정책을 조정하여 비정부조직을 지지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여 여성들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운동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주동적으로 경제건설에 뛰어들도록 격려한다. 중국의《헌법》,《노동법》,《여성권익보장법》및《여성근로자 노동보호규정》,《여성근로자의 노동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등 일련의 관련법률·법규·명령에서 취업기회와 취업조건분야 -그 중 교육, 승진, 보건과 안전분야를 포함- 및 해고와 직공의 사회보장분야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성차별을 금지한다.

허베이성 정부는 여성의 취업과 노동권익보호를 중요시하고, 특히 경제체제의 궤도변환과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국유기업의 심층개혁, 그리고 압력증대의 상황아래서 실직여성의 재취업과 기본생활보장을 견지하는 것을 개혁, 발전과 안정의 핵심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추진하고, 취업통로를 넓히며, 여성의 특징에 적합한 취업영역과 취업형식을 대폭적으로 늘려 근로여성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상승시킨다. 2000년말 통계에 따르면 성전체의

근로여성이 전체 근로자의 38. 65%를 차지하여, 1995년에 비해 2. 21% 상승했다. 제 3차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은 1995년의 38. 04%에서 41. 31%로 상승하여, 취업영역의 확대와 취업기회의 증대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각종 권익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허베이성정부는 아래의 정책을 채택했다.

첫째, "재취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각급정부와 각급노동 및 사회보장부문에서 여성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점차 직업소개 취업훈련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근로서비스기업 등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도촉진했다. 1999년 성의 각종직업소개기구에 각 분야의 여성을 소개하여 12. 18만명이 취업하였고, 각급 취업훈련센터에서 8. 06만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다.

둘째, 제 3차산업을 대폭 발전시켜 여성의 장점에 적합한 취업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였다. 각급정부와 각급여성연합이 노력하여 서비스업을 개발하고 노동밀집형 중소기업을 재취업의 중요 통로로 여겨 실직여공들을 대량흡수 배치시킨다.

셋째, 실직여공들의 재취업을 위해 특혜정책을 제공한다. 허베이성 정부는 실직여공 한 명을 모집하여 일년이상의 계약을 하는 고용단위에게는 1000원을 보조하고, 2년이상의 계약을 하면 2000원을 보조하는 동시에 부부중의 한명은 직업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대출, 세금등 분야에도 일련의 특혜정책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음할인금을 방출하고, 부분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실직여공의 재취업을 격려했다. 성정부는 100만원을 성여성연합에 보내어 소액보조 형식으로 실직여공들의 재취업을 지지했다.

넷째,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취업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지불원칙을 실행한다. 허베이성은 《노동법》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모든 직원모집단위에서 여성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고, 성별에 따라 여성모집을 거절하거나 임의로 여성채용표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여직공들의 노동보호를 강화한다. 허베이성《여직공 특수 노동 보호규정 실시세칙》을 규정하여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 "4기"에 대해 특수보호를 향유할 수 있으며, 생육보장 및 독이나 해가 있는 일과 강도있는 노동등에 종사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여직공 노동보호의 관련규정을 기본적으로 실현했다.

여섯째, 성전체에서 여직공 출산보험제도를 실행한다. ≪허베이성 성진(城鎭)기업직공의 출산보험 보급계획≫을 실시하여, 여직공 출산보험비용을 전체적인 범위로 점차 확대하고, 여직공 출산보험비용을 기업부담에서 사회총괄관리로 바꿨다. 2000년말, 허베이성 전체 현(구)의 97%를 차지하는 136개현(구)에서 직공출산자금총괄을 실행했다.

(2) 여성교육

90년대이래, 중국정부는 "과학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교육우선의 전략지위를 확립하고 각급 각부문의 교육에 커다란 진전를 얻었다.

허베이성은 국가《교육법》,《의무교육법》,《직업교육법》에 따라《허베이성 의무교육법조례》등 일련의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 하달하고, 매년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증대했다. 각급정부는 법에 따라 여자 어린이 9년 의무교육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9년 의무교육 업무임무를 각급정부와 관련부문의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매년 평가검사와 검사감독지도를 실시하여, 여자어린이가 연령에 맞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했다. 빈곤지역에서는 "빈곤지역 의무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장려, 대출, 원조, 보조, 감면"등의 형식으로 빈곤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설립했다. 여성연합, 공산주의 청년단등 비정부조직이 사회조직에 대응하여 "희망프로젝트" 와

"춘뢰(春蕾)계획" 을 실시하여,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여자 어린이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각급 여성연합조직은 가정교육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가장이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법에따라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했다. 2000년말까지, 허베이성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령에 맞는 여자 어린이의 입학률을 1995년의 95. 54%에서 99. 55%로 올리고, 학업포기율을 1995년의 0. 88%에서 0. 82%로 감소시켰다.

허베이성 정부는《허베이성 여성발전계획》에서 여성이 각급 각분야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을 점차로 올려 각분야의 여성 전문기술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남여학생간 교육을 받는 기회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학생반, 여학교를 만들고 학비면제등의 방법으로 여성의 교육장애를 해소하여 각급 각부문 학교 여성의 비율을 한층 더 높였다. 2000년통계에 따르면, 성전체 여자 초등학생 비율이 48. 91% , 여중생 비율이 48. 38%, 중등 전문학교 여학생 비율이 60. 33%, 여고생 비율이 48. 28%, 직업중학교 여학생의 비율이 52. 49%, 성인고등학교 여학생 비율이 50. 25%, 2000년까지 허베이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분야의 여성전문기술인원이 52. 98만명으로 1995년보다 41. 84%가 증가했다.

(3) 여성위생보건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베이성은《허베이성 모자보건조례》를 규정하고, 여자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권익에 대해 구체적인 보장대책을 제시했다. 《중국여성발전개요》와《허베이성 여성발전계획》에서도 여성위생보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에서 제시한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초급의 위생보건상태를 향유한다"는 목표에 따라, 성정부는 일련의 유효정책을 채택하여 여성위생보건의 질량과 여성의 건강수준을 높였다.

첫째, 도시와 농촌에서 비교적 완전한 시, 현, 향, 촌급 여성·어린이 보건 인테넷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건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강화했다. 2000년말까지, 성전체의 위생보건기구는 189개, 여성어린이 보건전문기술인원 9735명, 향진위생원의 여성 어린이 보건인원 보급율은 100%에 달했다.

둘째, 임산부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전체에서 "모친안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위생부문은 하급 위생원 산부인과의 건설 표준을 제정하고, 현향급 의료보건기구의 응급시설과 산부인과 건설을 더욱 강화했다; 각현은 임산부 응급센터 혹은 위독산모 응급기술 팀을 건설했다; 가정분만을 점차 줄이고 임산부의 병원분만율과 새로운 방법의 분만율을 높였다. 현재, 허베이성의 임산부 보건보급율은 100%에 달하고, 임산부 병원분만율은 85. 4%에 달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분만하는 비율은 99. 8%에 달했다; 성전체 향급 여성·어린이 의사와 시현급 여성어린이 인원에게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빈곤 지역의 임산부 의료보건서비스의 구조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임산부의 사망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셋째, 모자보건보상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임여성과 0~7세 어린이에 대해 보건 시스템관리를 실행한다. 가임여성에 대해 혼전의학검사를 전개하여, 신혼부터 우수분만, 우수양육, 우수교육에 대한 홍보교육을 받고, 임산부 시스템관리를 실시한다. 위생부문은 상부와 하부 모두가 조기임신관리카드, 산전검사, 높은 위험 관리, 입원분만, 새로운 방법으로 조산, 산후관리 등 일련의 임산부시스템보건과 산모보건서비스체계와 제도를 수립하도록 했다.

넷째, 성전체에 아기사랑병원을 건설한다. 조건이 가능한 모든 병원에 모자가 함께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아이로 하여금 태어나자 마자 어머니와 접촉할 수 있게 했다. 모친은 모유를 먹이고 정확한 양육방법과 과학적인 양육지식을 습득한다. 현재 성전체에 아기사랑병원 387개, 아기사랑 위생원 730개를 설립했고, 모유

양육율은 91. 6%에 달한다.

다섯째, 투자를 확대한다. "95 (9차5개년계획)"기간중, 성은 120억원을 투자하여 시, 현, 향의 여성어린이위생보건의 기구건설, 의료설비건설, 인재확충을 강화했다. "세가지 항목의 건설"을 통해, 말단, 특히 농촌 의료보건기구의 서비스조건을 개선했고, 서비스 능력을 높였다.

(4) 여성의 참여권리와 정책

여성의 평등참여권리와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허베이성 정부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했다.

계획을 제정하여 여성 지도자간부를 육성 선발한다. 허베이성은 1995년에 《여성간부 육성선발 5개년 계획》을 제정발표하고, 각기관이 업무인원을 보충할 때 여성간부채용이 반드시 일정 비율에 달해야 하고, 동등한 조건아래 여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빈곤, 국경지역과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위탁학생모집, 위탁양성방법을 채택하여 이런 지역의 여성간부 부족문제를 해결했다. 동시에 현급 예비간부중 여성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향이상의 지도자 집단중 적어도 1명의 여성간부를 배치하며, 50%이상의 성·시·현의 직속부문의 지도자 집단중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각급 인민대회 대표중 여성대표 입후보자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도록 하고, 30%를 쟁취하도록 했다.

각급여성연합은 "대중이 여성공복을 추천한다"는 활동을 전개하여,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추천 여성인재창고를 건설하며, 정기적으로 간부인재부서에 우수 여성간부를 추천했다. 각급조직부문은 여성간부의 직장훈련을 강화했고, 타지와의 교류、직책순환、말단으로 발령등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여성간부를 단련시키고 그들의 실제 업무능력을 강화했다. 선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

성의 정치참여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허베이성은 선발된 여성간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관리를 하여 검사감독과 연도심사를 강화했다. 현재 허베이성의 여성간부는 66. 6만명에 달하여 성전체 간부인원의 40. 55%를 차지하며, 성 및 모든 시、현 지도자그룹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5) 여성과 법률보호

현재 중국은 이미《헌법》을 근거로 하여, 《여성권익보호법》、《미성년보호법》을 주제로하고《혼인법》、《노동법》、《교육법》、《모자보건법》、《장애인보장법》、《노인권익보장법》등 관련 법률법규로 구성되어 비교적 완전하게 여성·어린이의 합법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체계다. 허베이성도 이에 대응하여《허베이성(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 보장법)실시방법》、《허베이성 모자보건 조례》、《허베이성 여직공 노동보호 실시방법》등 상관 법률법규를 제정했다. 최근 우리는《허베이성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임시 규정(초안)》을 세워 이미 성인민대회에 제출했다. 성전체의 여성연합시스템은 여성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완비하여, 성·시·현·향·촌의 5급 인터넷망을 형성하고, 법과 정책을 아는 전문직 혹은 겸직 여성간부를 배치하여 공안국、검찰원、법원의 강력지지를 얻었으며, 여성법률자문기지와 법률구조센터 192개를 설립하고, 이미 여성권리유지합의청 99개를 설립했으며 법률서비스 핫라인 30여개를 개통하여 이익을 받은 여성이 12만명에 달한다.

2. 여성발전 금후대책과 구상

중국 개혁개방의 끊임없는 심화와 사회 진보에 따라, 반드시 여성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여성발전에도 여러 가지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출연할 것이다.

허베이성으로 말하면 현재 여성발전의 주요장애는 :

첫째는 국경지대 일부분 여성이 아직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지역의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여성의 생존조건과 생활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는 여성발전의 사회환경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 몇천년의 남존여비의 봉건문화의 적체 및 생산력 발전수준의 제약때문에, 남녀불평등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취업에는 아직도 남성선호와 임금불균등의 현상이 존재한다. 농촌에는 결혼이나 재혼 여성중 아직도 남녀가 불평등하게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행위와 가정폭력문제도 점점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셋째는 유동인구 중 여성교육, 위생보건, 교육, 권익보호 등의 문제가 각급 정부의 높은 관심과 사회의 보편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금후 오늘의 주요대책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계획을 규정한다.

2001~2010년 《중국여성발전개요》에 근거하여, 2001~2010년 《허베이성 부녀발전계획》을 되도록 빨리 무대에 올려, 성전체의 각시·현(구)가 모두 지속적으로 당지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한다.

2. 자금투자를 확대한다.

중국의 "10차 5개년계획" 계획의 실시에 따라, 허베이성은 빈곤지역의 보조에 힘을 기울여 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빈곤지역의 교육투자를 늘리고 빈곤지역의 교육전문자금을 구축한다. 농촌지역의 위생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성·어린이 보건전문자금을 구축하며, 농촌의료보건인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촌의 위생실은 병실, 약, 의료진,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의료보건제도를 설립 완비하여, 여성어린이 보건

보상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어린이 보건서비스수준을 높인다.

2010년까지 임산부관리율, 입원분만율, 혼전의료검사율을 90%이상으로 올린다.

3. 법의 집행과 감독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헌법》,《여성권익보장법》,《혼인법》,《노동법》,《여직공노동보호규정》, 《의무교육법》, 《모자보건법》, 《미성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성실히 집행한다. 사회전체에서 법제교육과 법제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성민(省民)들의 법제의식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과 감독을 강화한다. 여성의 각분야에서의 법률보장을 강화하여 사회의 구조메카니즘을 완비한다.

4. 여성·어린이 업무위원회기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특히 지도자를 위한 훌륭한 참모, 조직협조부문, 사회역량의 동원 및 조사연구와 의사방면에서 특별히 우위를 발휘하고, 점차로 정부의 총괄, 부문의 실시, 사회의 지지, 군중의 참여와 업무의 구성을 형성하여, 정부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고, 여성발전계획을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사회 각계를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여성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많은 관심을 가진다.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성민의 성별의식을 강화하여 여성에 대한 무시를 없애고, 정부에 의지하여 사회전체 역량의 조정동원으로 여성사업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5. 유동인구중의 어린이 교육의 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 하여 여학생의 학업포기를 감소시킨다.

유동인구중 여성과 어린이 위생보건을 건립하고 면역보장체계를 계획하며, 유동인구중 건강교육과 인구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위생지식을 광범위하게 유포·보급한다.

妇女发展现状及今后对策

河北省 婦女子業務委員會 辦公室
副主任 呂 愛 英

各位来宾、女士们、先生们:

你们好!

在灿烂如画的金秋季节，我们应韩国忠清南道之邀，相聚在这里，共同探讨东北亚地方政府有关女性政策方向等问题，为此感到非常高兴。至此，我谨代表中国河北省妇联，向主办这次研讨会的韩国忠清南道表示诚挚的感谢！向各位同仁致以亲切的问候。

平等、发展与和平是世界各国妇女的共同要求和愿望。占世界妇女人数 1/5 的中国妇女，不仅追求平等、发展与和平，而且取得了举世瞩目的成就。中国政府高度重视妇女的进步与发展，并一向认为，实现男女平等是衡量社会文明的重要尺度，把男女平等作为促进国家社会发展的一项基本国策；中国政府还坚决反对歧视妇女的现象，切实维护和保障妇女在国家政治、经济和社会生活中的平等地位和各项权益，为中国妇女发展提供了法律保障和政策支持。

六年前，中国政府成功的承办了联合国第四次世界妇女大会和非政府组织论坛。来自 197 个国家和地区的代表及联合国机构、政府间国际组织、非政府组织的 45000 多名与会者云集北京，就全球妇女共同关切的问题进行

深入探讨，广泛交流，达成共识，制定并通过了加速执行《内罗毕战略》的《北京宣言》和《行动纲领》，为全球妇女事业的发展，为人类的可持续发展注入了 新的活力。几年来，中国政府以实际行动履行承诺，为实施《北京宣言》和《行动纲领》进行了不懈的努力。一是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的总目标，结合中国妇女平等参与发展的现状，全面实施了《(1995—2000）中国妇女发展纲要》。它是中国历史上第一个妇女发展的政府规划，是中国男女平等基本国策的具体体现，标志着中国政府落实第四次世界妇女大会《北京宣言》、《行动纲领》后续行动的正式启动。为了全面有效的落实《中国妇女发展纲要》，中国 31 个省、市和 80%以上的县（区、市）都制定了本地区妇女发展规划。1995 年 8 月河北省政府在全国率先出台了《(1995—2000 年）河北省妇女发展规划》，同年底 173 个县（区、市）也都制定出台了当地的妇女规划。为确保妇女权利的实现，中国各级政府进一步加强了国家提高妇女地位的机制，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由 24 个成员单位组成。河北省政府于 1989 年成立了河北省妇女权益保护委员会，1999 年成立了河北省妇女儿童工作委员会，由政府 34 个部门构成。目前，省 11 个市、173 个县（区）都成立了组织机构，并配备专门领导和人员以及经费，形成了纵横交错的组织网络，

为妇女规划的实施提供了组织保障。为推动政府全面落实妇女发展纲要提出的各项目标，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建立了全国统一的监测统计指标体系，成立了监测评估工作机制。河北省从妇女规划开始实施就成立了妇女规划监测评估领导小组，下设监测统计组和专家评估组，县以上各级政府基本形成了监测评估工作体系。按照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的要求，到 2000 年底，河北省政府基本实现了《中国妇女发展纲要》的各项目标；基本完成了 2001—2010 年妇女发展规划的编制。

经过几年的努力，我们高兴地看到，随着中国现代化建设的推进，通过加强立法，制定政策，强化政府职能，发挥非政府组织作用，积极开展国际合作与交流等一系列措施，《行动纲领》《中国妇女发展纲要》已经得到有效执行，妇女发展状况有了明显改善，她们的聪明才智得到较好发挥，有利的推动了经济发展和社会进步。

一、妇女发展现状

（一）妇女与经济

中国政府高度重视妇女在参与国家经济建设中不可替代的作用，为妇女开辟就业渠道，增加培训机会，给予政策倾斜，支持非政府组织为政府分忧、为妇女解难的社会行动，鼓励妇女自强、自主、自立，主动投身经济

建设。我国的《宪法》、《劳动法》、《妇女权益保障法》以及《女职工劳动保护规定》、《女职工禁忌劳动范围的规定》等一系列相关法律法规明令禁止在就业机会、就业条件方面，其中包括培训、升级、保健和安全方面，以及在解雇和工人的社会保障方面产生直接或间接的性别歧视。

河北省政府一贯重视妇女的就业和劳动权益保护，特别是在经济体制转轨和经济结构战略性调整，国有企业深化改革，就业压力增大的情况下，坚持把下岗女职工再就业和基本生活保障作为改革、发展和稳定的大事来抓，推进积极的就业政策，广开就业渠道，大力拓展适合女性特点的就业领域和就业形式，使从业女性比例明显上升。据 2000 年底统计，全省女性从业人员占全部从业人员比重达 38.65%，比 1995 年提高了 2.21 个百分点；第三产业从业女性比重由 1995 年的 38.04%上升到 41.31%。为扩大就业领域，增加就业机会，保障妇女在参与经济活动中各项权益不受侵犯，河北省政府采取了以下政策。

第一，实施“再就业工程”，各级政府、各级劳动及社会保障部门强化对妇女就业的服务，逐步建立起了职业介绍、就业训练、就业咨询、开办劳服企业等机构，积极指导并促进妇女就业。仅 1999 年全省各类各级职业

介绍机构为各类妇女介绍并实现就业 12.18 万人次，各级就业训练中心培训女性人员 8.06 万人次。

第二、大力发展第三产业，积极开辟适合妇女特点的就业领域。各级政府、各级妇联努力开发社区服务业，并把劳动密集型中小企业作为扩大再就业的重要渠道，大量吸纳和安置下岗女工。

第三、为下岗女工再就业提供优惠政策。河北省政府规定：招收一名下岗女职工、签定一年以上合同的，给予用人单位1000元补贴，签定2年以上合同的补贴2000元，同时还规定必须保障夫妻一方在岗。在信贷、税收等方面也制定了一系列优惠政策。例如发放贴息贷款、免收部分税费等，扶持和鼓励下岗女职工再就业。省政府还拿出 100 万元 交给省妇联，以小额贷款的形式扶持下岗女职工再就业。

第四、坚持公平原则，保障妇女与男子平等就业的权利，并实行同工同酬。河北省严格执行《劳动法》规定，所有招工单位不得歧视妇女，不得以性别为由拒绝招收女性或随意提高女性录用标准。

第五、加强女职工劳动保护。河北省《女职工特殊劳动保护规定实施细则》规定：妇女享有经、孕、产、哺乳期“四期”特殊保护，生育保障以及禁忌从事有毒有害、强体力劳动等女职工劳动保护的有关规定基本得

到落实。

第六、在全省实行了女职工生育保险制度。实施了《河北省城镇企业职工生育保险覆盖计划》，逐步扩大女职工生育保险费用统筹范围，将女职工生育保险费用由企业负担改为社会统筹管理。到2000年底，全省136个县（区）实行了职工生育基金统筹，占全省县（区）总数的97%。

（二）妇女教育

九十年代以来，中国政府实施“科教兴国”的发展战略，确定了教育优先的战略地位，各级各类教育取得了重大进展。

河北省依照国家《教育法》、《义务教育法》、《职业教育法》制定下发了《河北省义务教育法条例》等一系列相关的法律法规，并逐年加大对教育经费的投入。各级政府依法强力推进女童九年义务教育，把九年义务教育工作任务作为考核各级政府和各有关部门的内容，每年进行评估验收和检查督导，有力的保障了适龄女童接受义务教育。在贫困地区实施“贫困地区义务教育工程”，建立以“奖、贷、助、补、减”为形式的特困生资助政策和制度。妇联、共青团等非政府组织面向社会组织实施“希望工程”和“春蕾计划”，使救助的失辍学女童重返校园。各级妇联组织积极开展家庭教育工作，教育家

长掌握法律知识，依法维护儿童受教育的权利。到 2000 年底，我省小学、初中适龄女童入学率由 1995 年 95.54% 提高到 99.55%，辍学率由 1995 年的 0.88%下降到 0.82%。

河北省政府在《河北省妇女发展规划》中也明确规定：逐步提高女性接受各级各类教育的比例，积极培养各类女性专业技术人才。努力消除两性在接受教育机会上的差别，采取办女童班、办女校、实现免费上学等办法消除妇女受教育障碍使各级各类学校女性比重进一步提高。据 2000 年统计，全省小学女学生比例为 48.91%，中学女学生比例为 48.38%，中专女学生比例为 60.33%，高等学校女学生比例为 48.28%，职业中学女学生比例 52.49%，成人高等学校女学生比例为 50.25%。到 2000 年，我省拥有各类女专业技术人员 52.98 万人，比 1995 年增长 41.84%。

（三）妇女卫生保健

依照《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河北省制定了《河北省母婴保健条例》，对保护妇女儿童的健康权益提出了具体的保障措施。《中国妇女发展纲要》和《河北省妇女发展规划》对妇女卫生保健也都提出了具体目标。根据国家提出的“到 2000 年，人人享有初级卫生保健”的目标，省政府采取了一系列有效政策和措施努力提高妇女卫生保健质量和妇女的健康水平。

一是在城市和农村建立了比较完善的市、县、乡、村级妇幼卫生保健网络，增强为妇女儿童提供健康保健服务的能力。截止 2000 年底，全省共有妇幼卫生保健机构 189 个，妇幼保健专业技术人员 9735 人，乡镇卫生院妇幼保健人员配备率达 100%。

二是为降低孕产妇死亡率，在全省启动了“母亲安全工程”。卫生部门制定了基层卫生院产科建设标准，进一步加强县乡级医疗保健机构急救和产科建设；各县建立了孕产妇急救中心或危重孕产妇抢救技术小组；逐步取消家庭接生，提高孕产妇住院分娩率和新法接生率。目前，我省孕产妇保健覆盖率达 100%，孕产妇住院分娩率达 85.4%,新法接生率达 99.8%；对全省乡级妇幼医生和市县级妇幼人员进行业务培训；积极探索贫困地区孕产妇医疗保健服务的救助方法，大力降低了孕产妇死亡人数。

三是积极推行母婴保健保偿责任制，对育龄妇女和 0—7 岁儿童实行保健系统管理。育龄妇女婚前开展婚前医学检查，新婚开始就接受优生、优育、优教科学知识的宣传教育，实行孕产妇系统管理。卫生部门从上到下都建立了早孕建卡、产前检查、高危管理、住院分娩、新法接生、产后访视等一整套孕产妇系统保健和围产保健服务体系和制度。

四是在全省创建爱婴医院。在有条件的医院都设立了

母婴同室，使孩子一生下来就和母亲接触，实施母乳喂养，并接受正确的喂养方法和科学的育儿知识。目前，全省共建爱婴医院 387 所，爱婴卫生院 730 所，母乳喂养率提高到 91.6%。

五是加大投入。“九五”期间，全省共投入 120 亿元，加强市、县、乡三级妇幼卫生保健的机构建设、医疗设备建设、人才队伍建设。通过“三项建设”，改善了基层，特别是农村医疗保健机构的服务条件，提高了服务能力。

（四）妇女参与权利和决策

为保证妇女平等参与权利和决策，河北省政府主要采取了以下政策:

制定规划，培养选拔女领导干部。河北省于 1995 年制定下发了《培养选拔女干部五年规划》，规定各机关补充工作人员时，女干部录用都必须达到一定比例，并坚持同等条件下优先录用女性。对贫困、边远地区和少数民族地区，采取定向招生、定向培养的办法，解决这些地区女干部缺乏的问题。同时规定在县级后备干部中女干部所占比例不少于 20%，在乡以上领导班子中至少配备一名女干部，50%以上的省、市、县直属部门领导班子中至少配备一名女性。各级人大代表中女代表候选人比例不低于 25%，争取 30%。各级妇联开展了“万众举荐女公仆”活动，积极推荐女性人才，建立妇女人才库，定期向干部人才部门推荐优秀女干

部。各级组织部门加强了对女干部的在岗培训，采取异地交流、岗位轮换、选派到基层等多种形式，锻炼女干部，增强她们的实际工作能力。为加大选拔力度，切实保障妇女参政的权利，我省还对培养选拔妇女干部实行目标管理，加强检查督导和年度考核。目前，全省女干部已达66.6万人，占全省干部总数的40.55%，省及所有市、县领导班子中均配备了女性。

（五）妇女与法律保护

目前，我国已形成以《宪法》为依据，以《妇女权益保障法》、《未成年人保护法》为主体，包括《婚姻法》、《劳动法》、《教育法》、《母婴保健法》、《残疾人保障法》、《老年人权益保障法》等有关的法律法规组成的比较完备的保障妇女儿童合法权益的法律体系。河北省也相应制定了《河北省实施〈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办法》、《河北省母婴保健条例》、《河北省女职工劳动保护实施办法》等相配套的法律法规。最近，我们又起草了《河北省预防和防止家庭暴力暂行规定（草案）》，已提交省人大。

全省妇联系统建立健全了维护妇女合法权益的专门机构，形成了省、市、县、乡、村五级网络，并配备了懂法律、懂政策的专、兼职妇女干部，争取公、检、法、司的大力支持，建立妇女法律咨询站和法律援救中心192个，

已建妇女维权合议庭 99 个，开通法律服务热线 30 多条，受益妇女达 12 万人次。

二、 妇女发展今后对策及设想

随着我国改革开放的不断深入和社会的进步，必将进一步促进妇女事业的发展，但在妇女发展进程中也面临着严峻的挑战，妇女发展也将出现许许多多新情况、新问题。

就我省来讲，当前妇女发展的主要障碍有:

一是边远山区仍有部分妇女没有稳定脱贫，这些地区经济发展滞后，妇女生存条件和生活水平有待于改善;

二是妇女发展的社会环境有待于逐步改善。由于几千年男尊女卑的封建文化的积淀及生产力发展水平的制约，男女不平等现象依然存在。在招工、录用还存在着招男不招女和男女同工不同酬的现象。在农村结婚或离异再婚妇女中还有男女不能平等享用土地使用权等问题。拐卖妇女儿童犯罪行为和家庭暴力问题也越来越引起社会的关注和重视。

三是流动人口中的妇女教育、卫生保健、培训、权益保护等问题引起各级政府的高度重视和社会的普遍关注。

今后我们的主要对策有以下几点:

1、 制定规划。依据 2001—2010 年《中国妇女发展

纲要》，尽快出台2001—2010年《河北省妇女发展规划》，全省各市、县（区）都要相继制定出台本地区妇女发展规划。

2、 加大资金投入。随着我国“十五”规划的实施。我省将加大对贫困地区的扶持力度，改善生产条件和生态环境；加大对贫困地区教育投入，设立贫困地区教育专项资金；增加对农村地区卫生保健的投入，设立妇幼保健专项资金，加强农村医务人员的培训和医疗设施建设，农村医疗保健人员必须经过考核持证上岗，村卫生室要实现有房、有药、有医、有设备；建立并完善医疗保险制度，全面推行妇幼保健保偿责任制，提高妇幼保健服务水平。到2010年，孕产妇管理率、住院分娩率、婚前医学检查率均达90%以上。

3、 进一步加大执法和监督的力度。认真执行《宪法》、《妇女权益保障法》、《婚姻法》、《劳动法》、《女职工劳动保护规定》、《义务教育法》、《母婴保健法》、《未成年人保护法》等有关法律法规。在全社会大力开展法制教育和法制宣传，增强全民的法制观念，加强执法监督；强化妇女在各方面的法律保障，完善社会救助机制。

4、 充分发挥妇女儿童工作委员会机构的功能，尤其是在为领导当好参谋、组织协调部门、动员社会力量以及调查研究和议事方面发挥特殊优势，逐步形成政府

统筹、部门实施、社会支持、群众参与的工作格局，认真履行政府职能，组织实施好妇女发展规划；广泛发动社会各界支持妇女事业发展，并给予高度关注；强化男女平等基本国策的宣传，增强全民的性别意识，消除对妇女的歧视，依靠政府和协调动员全社会力量，全面推进妇女事业的发展。

5、 要进一步规范流动人口中儿童教育的管理，减少女童辍学。建立流动人口中妇女儿童卫生保健和计划免疫保障体系，在流动人口中大力开展健康教育、人口教育，广泛传播和普及卫生知识。

女性政策の發展現況および今後の對策

河北省婦女子業務委員會辦公室
副主任　呂 愛 英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

豊かなこの黄金の季節に、韓國忠清南道のお招きでここに集まり、東北亞地方自治團體の女性政策方向等に對する問題を討論しあうようになったこと、誠に嬉しく存じております。ここで私は中国河北省婦女子連合を代表して、今回のフォーラムを開催された韓国忠清南道に心から感謝の意を表すとともに、参席された女性政策関連の皆様にもご挨拶申上げます。

平等、発展と平和は世界各国の女性の共通した要求であり、願いでもあります。世界女性人口の1/5が中国女性で、我々は平等、発展と平和を追求して刮目すべき成果もあげました。中国政府は女性の進歩と発展を非常に重要なものとし、男女平等の実現は社会文明を測定する重要な尺度と見なして男女平等を国家社会発展の促進のための基本国策としました。基本国策の内容は女性蔑視風潮の絶対的反対、女性の政治・経済・社会・活動の中での平等な地位と様々な権益の擁護及び保障、中国の女性発展のための法律保障ならびに政策的な支持等があります。

6年前、中国政府は国連第4次世界女性大会と非政府団体論壇を成功裏に誘致致しました。197ヶ国と地域からの代表と国連機構、政府間の国際組織、非政府団体等の約45,000人と会議参加者がみんな北京に集まり全世界女性の共通問題についての深い討論と広い交流を以て共通認識に達し、《ナイロビ戦略》の執行を加速化する《北京宣言》と《行動綱領》を制定・通過させ、全世界の女性事業の発展と人類の持続的な発展に新たな活力を与えました。何年間にわた

り中国政府は実際の行動で答えられるよう《北京宣言》と《行動綱領》を実行するための絶え間ない努力を注いでいます。まず、国民経済と社会発展計画の総目標を踏まえて中国女性が平等に発展の現場に参加できるように《(1995～2000) 中国女性発展概要》を全面的に実施しました。これは中国歴史上最初の女性発展に関する政府計画で、中国の男女平等といった基本国策の具体的な具現であり、中国政府が第4次世界女性大会《北京宣言》と《行動綱領》の後続措置を正式に始めたことを確定する象徴であります。《中国女性発展概要》を全面的かつ、効率的に実現するために中国31ヶ省・市と80%以上の県(区・市)で各々の地域女性発展計画を制定しました。女性の権利を確保するために中国各級政府は国が女性の地位を向上させられるメカニズムを強化し、また、国務院女性・児童業務委員会は24の団体で構成されています。河北省政府は1989年、河北省女性権益保護委員会を設立し、1999年には河北省女性・児童業務委員会を設立しましたが、これらは政府の34ヶ部署で構成されました。現在、省の11ヶ市と173ヶ県(区)すべてが組織機構を設置して専門指導者、スタッフ及び経費が与えられ、縦横較差組織網を作って女性計画の実施のために組織補強を行いました。女性発展概要で提示された様々な目標の全面的実行を推進するために国務院女性・児童業務委員会は全国統一の監督統計指標体系を建立し、監督平価業務のメカニズムを作り上げました。河北省は女性計画の初期から女性計画監督評価指導チームを設けて、その下に監督統計チームと専門家評価チームを設置、県以上級の政府には監督評価業務体系を整えました。

国務院女性・児童業務委員会の要求により2000年末まで河北省政府は《中国女性発展概要》の各種目標を実現し、2001～2002年の女性発展計画の編制を基本的に完成しました。

何年間の努力を通じて我々は中国現代化建設を推進するとともに、立法を強化し政策を制定することによって政府機能を強化し非政府組織の影響を発揮して国際協力と交流等、一連の施策を積極的に

改進して《行動綱領》、《中国女性発展概要》はすでに効果的に執行されて女性発展状況は明確に改善され、女性の才能が発揮されました。また、経済発展と社会進歩を有利に促進する現象を嬉しい気持で観望しております。

1. 女性発展の現況

(1) 女性と経済

中国政府は女性を国家経済建設に参加する、取り替えのできない役割の主体と見なし、女性のための就業通路を開いて教育の機会を増やし、政策を調整して非政府組織を支持することによって政府の負担を減らし、女性が解決しにくい社会運動に対して女性自らが中心的に経済建設に参加するように励ます。

中国の《憲法》、《労動法》、《女性権益保障法》及び《女性勤労者労動保護規定》、《女性勤労者の労動範囲を制限する規定》等、一連の関連法律・法規・命令において就業機会と就業条件分野 -教育、昇進、保健及び安全分野を含む-ならびに解雇と職工の社会保障分野で発生する直・間接的な性差別を禁止する。

河北省政府は女性の就業と労動権益保護を重要なものとし、特に、経済体制の軌道変換と経済構造の戦略的調整と国有企業の深層改革、そして、圧力が増大される状況の中で、失職女性の再就業と基本生活保障を保つことを改革、発展と安定の核心問題と見なして積極的な就業政策を推進し、就業通路を広げ、女性の特徴に適合した就業領域と就業形式を大幅に増やして勤労女性の比率を 飛躍的に上昇させた。2000年末の統計によれば省全体の勤労女性が全体勤労者の38. 65%を占めており、1995年に比べ2. 21%上昇した。第3次産業での女性の割合は1995年の38. 04%から41. 31%に上昇して、就業領域の拡大と就業機会の増大によって女性が経済活動に参加する中、様々な権益が侵害されないよう保障するため、河北省政府は次のような政策を採択した。

1. “再就業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て各級政府と各級労動および社会保障部門で女性就業に対するサービスを強化し、順次に職業紹介、就業訓練、就業相談を実施し、勤労サービス企業等の機構を設立して女性の就業を積極的に指導・促進した。1999年、省の様々な職業紹介機構が各分野の女性を紹介して1218万人が就業し、各級就業訓練センターで806万人が教育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

2. 第3次産業を大幅発展させ、女性の長所に適合した就業領域を積極的に開拓した。各級政府と各級女性連合が努力してサービス業を開発して労動密集型　中小企業を再就業の主な通路として失職女工を大量吸収・配置させる。

3. 失職女工の再就業のために特恵政策を提供する。河北省政府は失職女工1人を採用して一年以上の契約をする雇用単位には1000元を補助し、2年以上の契約をする場合、2000元を補助するとともに、夫婦の1人には職を保障するようにした。貸出、税金等の分野においても一連の特恵政策を制定した。たとえば、手形割引金を放出し、部分的に税金の減免など、失職女工の再就業を励ました。省政府を100万元を省女性連合に送り、少額補助の形で失職女工の再就業を支援した。

4. 平等原則に基づき、女性と男性の平等就業の権利を保障し、同一労動の同一賃金支払原則を実行する。河北省は《労動法》規定を厳格に執行してすべての職員募集単位で、女性を蔑視しないようにし、性別によって女性募集を拒んだり、任意に女性採用標準を高めてはいけない。

5. 女子職工の労動保護を強化する。河北省《女子職工の特殊労動保護規定　実施細則》を規定して生理、妊娠、出産、授乳期の“4期”に対して特別な保護が受けられ、生活保障および危険な業務、きつい労動などの禁止を含む女子職工労動保護の関連規定を基本的に実現した。

6. 省全体で女子職工の出産保険制度を実行する。≪河北省チョン

ジョン企業職工の出産保険普及計画≫を実施して、女子職工の出産保険費用を徐々に全体に拡大して出産保険費用を企業負担から社会総括管理にした。2000年末、河北省全体県(区)の97%を占める136ヶ県(区)で職工出産資金総括を実行した。

(2) 女性教育

90年代以来、中国政府は“科学で国を興す”といった発展戦略を実施して、教育優先の戦略地位を確立し各級各部門の教育に大きな進展を得た。

河北省㠯は国家《教育法》、《義務教育法》、《職業教育法》に従い《河北省義務教育法条例》など、一連の関連法律法規を制定し、毎年教育費に対する投資を増大した。各級政府は法律に沿って女子児童9年義務教育制を強力に推進し、9年義務教育業務の任務を各級政府と関連部門の審査内容を決めて、毎年平価検査と検査監督指導を実施して女子児童が年齢に合う義務教育を受けられるように保障した。貧困地域では“貧困地域義務教育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て“奨励、貸出、援助、補助、減免”などの形で貧困学生を支援する政策と制度を策定した。女性連合、共産主義青年団等、非政府組織が“希望プロジェクト”と“チュウンレイ(春蕾)計画”を実施して、学業を中途でやめた女子児童を学校に送り返した。各級女性連合組織は家庭教育業務を積極的に展開して、家長に法律知識を持たせて、法律に従って児童が教育を受ける権利を保護した。2000年末まで河北省の小学校や中学校の年齢に合う女子児童の入学率は1995年の95.54%から99.55%となり、学業放棄率は1995年の0.88%から0.82%に減少された。

河北省政府は《河北省女性発展計画》で、各級・各分野の女性の教育機会を徐々に増やし、各分野の女性専門技術人才を積極的に養成するという内容を明確に規定した。男女学生間教育機会の差を解消するための努力の一環として、女学生班、女学校を設置し、学費

免除等の方法を以て女性教育に対する障害を解消して各級各部門学校の女性比率をさらに高めた。2000年統計をみると、省全体女子小学生の比率は48. 91%、女子中学生48. 38%、中等専門学校の女学生比率が60. 33%、女子高校生比率48.28%、職業中学校の女学生比率は52.49%、成人高等学校の女学生比率50.25%、2000年まで河北省が保有している各分野の女性専門技術人員が 5298万人で、1995年より41. 84%増加した。

(3) 女性衛生保健

《中華人民共和国母子保健法》に従って、河北省は《河北省母子保健条例》を規定し女子児童の健康を保護する権益に対して具体的な保障対策を提示した。《中国女性発展概要》と《河北省女性発展計画》でも女性衛生保健に対して具体的な目標を提示した。国が示した“2000年まで全ての人々が初級の衛生保健状態を享有する”といった目標に従い省政府は一連の有効政策を採択して女性衛生保健の質と女性の健康水準を高めた。

1. 都市と農村において、比較的に完全な市、県、郷、村級女性・児童保健インターネット網を構築して女性と児童のために健康保健サービスを提供する能力を強化した。2000年末まで省全体の衛生保健機構は189ヶ所、女性・児童保健専門技術人員9735人、郷鎮衛生員の女性・児童保健人員普及率は100%に達している。

2. 妊産婦の死亡率を減少させるため、省全体で“母親安全プロジェクト”を稼働した。衛生部門は下級衛生院産婦人科の設立標準を制定し、県郷級医療保健機構の応急施設と産婦人科設立をさらに強化した。また、各県は妊産婦応急センター或は危篤産母応急技術チームをつくった。そして、家庭分娩を徐々に減らして妊産婦の病院分娩率と新しい方法の分娩率を高めた。現在、河北省の妊産婦保健普及率は100%に達し、妊産婦の病院分娩率は85.4%、新しい方法で分娩する比率は99.8%に達している。さらに、省全体の郷級女性

・児童担当医師と市県級女性・児童要員に業務教育を実施、また、貧困地域の妊産婦医療保健サービスの一つである救助方法の積極的な探索によって妊産婦の死亡数を 大きく減少させた。

3. 母子保健報償責任制を積極的に推進し、成人女性と0～7才の児童に対して保健システム管理を実行する。成人女性に対する婚前医学検査を展開して、新婚から優秀分娩、優秀養育、優秀教育についての広報教育を受けさせ、妊産婦のシステム管理を実施する。衛生部門はすべて、早期妊娠管理カード、産前検査、高水準のリスク管理、入院分娩、新しい方法の助産、産後管理など、一連の妊産婦システム保健と産母保健サービス体系及び制度を樹立するようにした。

4. 省全体に"子供を愛する病院"を建設する。条件が可能なすべての病院に母子が一緒に休める部屋を設け、赤ちゃんが生まれてすぐに母と接触できるようにした。母親は母乳を与え、正確な養育方法と科学的な養育知識を習得した。現在、省全体に"子供を愛する病院"387ヶ所、子供を愛する衛生院730ヶ所を設立し、母乳養育率은は91. 6%に達している。

5. 投資を拡大する。'95(9次5ヶ年計画)'其間中、省は120億元を投資して市、県、郷の女性・児童衛生保健機構、医療設備の設立、人才拡充を強化した。'3項目の建設'を通じて末端、特に農村医療保健機構のサービス条件を改善し、サービス能力を高めた。

(4) 女性の参与権利と政策

女性の平等参与権利と政策の保障のために、河北省政府は下記のような政策を採択した。

計画をつくり女性指導者幹部を育成・選抜する。河北省は1995年に《女性幹部育成・選抜5ヶ年計画》を制定・発表し、各機関が業務人員を補充する際には女性幹部採用が必ず、一定比率に達すること、同等条件の下では女性を優先採用することにした。貧困、国境地域と小数民族地域に対して、委託学生募集と委託養成方法を採択

して、このような地域の女性幹部不足問題を解決した。同時に、県級予備幹部の中で女性幹部が占める比率が20%以上を維持するようにし、郷以上の指導者集団中、少なくとも1人の女性幹部を配置し、50%以上の省・市・県の直属部門の指導者集団で、最低1人の女性を配置するように規定した。各級人民大会代表には女性代表立候補者の比率が25%を上回って、30%を得るようにした。

各級女性連合は“大衆が女性公僕を推薦する”という活動を展開して女性人才を積極的に推薦、女性人才プールを作って定期的に幹部人才部署に優秀女性幹部を推薦した。各級組織部門は女性幹部の職場訓練を強化し他地との交流、職責循環、末端への発令等、様々な形を採択して女性幹部を鍛えさせ、実際の業務能力を強化した。選抜力量を強化するために女性の政治参与権利を確実に保障し、河北省は選抜された女性幹部に教育を実施して目標管理をして検査監督と年度審査を強化した。現在、河北省の女性幹部は66. 6万人で、省全体幹部の40.55%を占めており、省とすべての市、県指導者グループに等しく配置されている。

(5) 女性と法律保護

現在、中国はすでに《憲法》に基づいて《女性権益保護法》、《未成年保護法》を柱として《婚姻法》、《労動法》、《教育法》、《母子保健法》、《障害者保障法》、《老人権益保障法》等の関連法律法規で構成され、比較的に完全に女性と児童の権益を保障する法律体系になっている。河北省もこれに対応して《河北省(中華人民共和国婦女権益保障法)実施方法》、《河北省母子保健　条例》、《河北省女子職工労動保護実施方法》等、関係法律法規を制定した。最近我々は《河北省家庭暴力予防と防止臨時規定(草案)》を作り、省人民大会に提出した。省全体の女性連合システムは女性の合法的権益を保護するための専門機構を設立・完備して省・市・県・郷

・村の5段階インターネット網を構築し、法律と政策に詳しい専門職あるいは兼職の女性幹部を配置して公安局、検察院、法院の強力な支持を得た。また、女性法律諮問基地と法律救助センター192ヶ所を設立し、すでに女性権利維持合意庁99ヶ所を設立、30の法律サービスホットラインを開通して約12万の女性を助けた。

2. 女性発展の今後の対策と構想

中国改革開放の絶え間ない深化と社会の進歩により、女性事業発展の促進は必然的でありますが、同時に深刻な挑戦に直面しており、女性発展にも様々な新たな状況と問題がでてくるはずである。

河北省における現在の女性発展の主な障害としては：

1. 国境地域の一部女性が今だに貧困に苦しんでおり、この地域の経済発展が遅れて女性の生存条件と生活水準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女性発展の社会環境を徐々に改善すべきである。幾千年の男尊女卑の封建文化の残存と生産力発展水準の制約のため、男女不平等現象は今でも存在している。就業にはまだ、男性選好と賃金不均等の現状が存在する。農村では結婚、または、再婚した女性な中で、男女が差別的に土地を使用する問題を持っている。女性と児童に対する人身売買行為と家庭内暴力問題も徐々に社会の関心と注目を集めはじめた。

3. 流動人口の中、女性教育、衛生保健、教育、権益保護等の問題が各級政府の大きな関心と社会の普遍的な注目を引くようになった。

今後の主要対策としては下記のような幾つかがある。

1. 計画を規定する

2001～2010年《中国女性発展概要》を踏まえて2001～2010年《河

北省婦女発展計画》を成るべく速く舞台に上げ、省全体の各市・県(区)が持続的に当地域の女性発展計画を制定するようにする。

2. 資金投資を拡大する

中国の“10次5ヶ年計画”の実施によって、河北省は貧困地域の補助に力を注いで生産条件と生態環境を改善する。貧困地域への教育投資を増やして貧困地域の教育専門資金を構築する。農村地域の衛生保健に対する投資を増やし、女性・児童保健専門資金を構築、農村医療保健人院は必ず審査を経て業務に当るように、村の衛生室は病室、薬、医療陣、設備を備えるようにする。医療保健制度を設立・完備して女性・児童保健補償責任制を全面的に推進し、女性・児童保健サービスの水準を高める。

2010年まで妊産婦管理率、入院分娩率、婚前医療検査率を90%以上に上げる。

3. 法の執行と監督の強度をさらに一層高める

《憲法》、《女性権益保障法》、《婚姻法》、《労動法》、《女子職工労動保護規定》、《義務教育法》、《母子保健法》、《未成年保護法》等、関連法律・法規を誠実に執行した。社会全体で法制教育と法制広報を大大的に展開して、省民の法制意識を強化し法執行と監督を強化する。女性の各分野での法律保障を強化して社会の構造メカニズムを完備する。

4. 女性・児童業務委員会機構の機能を十分に発揮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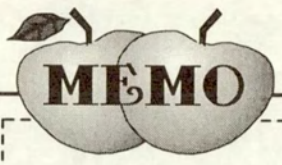
特に、指導者のための優れた参謀機能、組織協力部門、社会力量の動員および調査研究と議事方面で特別な優位を発揮し、順次に政府の総括、各部門の実施、社会の支持、群衆の参与と業務の構成を形成して政府の機能を誠実に行い、女性発展計画を組織的に実施する。社会各界から広く女性事業の発展を支持し多い関心を持つようにする。男女平等の基本国策の広報を強化し、省民の性別意識を強

化して女性に対する無視をなくし、政府とともに社会全体力量の調整動員を以て女性事業の発展を全面的に推進する。

5. 流動人口の児童教育管理を一層規範化して女学生の学業放棄を減少させる

流動人口の女性と児童衛生保健を整備し、免疫保障体系を計画し、流動人口の健康教育と人口教育を大大的に展開して衛生知識を広く知らせ、補給する。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熊本縣 辯護士 藤田光代

「쿠마모토현의 여성정책 추진사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쿠마모토현 남녀공동참여추진간담회 회장(변호사)
藤田 光代 (후지타 미쯔요)

(서론)

○ 오늘 많은 분들의 참가로 성대하게 개최된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 저는 일본 쿠마모토현에서 참가한 변호사 후지타 미쯔요라고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초대를 받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개회 테마가 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방향모색」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1999년 6월 23일에 시행된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마모토현 여성정책 추진사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 생각의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공동참가사회가 왜 필요한가)

○ 우선, 일본의 남녀공동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일본에서는 전쟁 전의 여성의 지위가 대단히 낮아, 여성에게는 정치에 참가할 권리, 즉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또 가족 중에서도 아내에게는 재산의 관리권조차 없어, 장남이 집안의 후계자로 인정되는 등, 여성의 지위는 대단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1947년 5월에 현재의 일본헌법이 시행되어 남녀가 성별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또, 가족이라 해도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어, 가족관계를 정하는 민법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전전의 일본과 같이 여성지위가 낮았던 것은 특별히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역사적인 반성에 근거하여 전후 국제적인 여성의 지위향상과 차별철폐의 움직임 중에서 「여자차별 철폐조건」이 생겨나, 일본에서도 1985년에 여성노동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도록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에 이 「여자차별 철폐조건」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사회와 가정에서 법률상의 남녀평등은 실현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회와 가정,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과연 남녀는 정말로 평등하고 대등한 입장이 된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정치가와 정부와 지방공공단체, 그리고 회사의 관리직, 학생회장과 육성회장, 자치회장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 법률에서는 결혼할 때에, 부부 어느 쪽의 성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남편의 성을 선택하는 부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가정 안에서의 가사・육아분담 면에서도 여성의 역

할이라는 의식이 강하여, 남녀가 평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쿠마모토현에 있는 110명의 변호사 중 여성은 단 6명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변호사라는 이유로 여성들로부터 상담을 요청 받는 일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낮은 여성임금, 늦은 승진, 직장에서의 성희롱, 가정에서의 남편의 폭력, 생활을 위해 이혼을 참을 수밖에 없는 등의 현상을 알아가면서, 지금도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진정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1995년에 개최된 제 4회 세계여성회의(북경회의)에서의 성과를 근거로 일본에서는 1996년에 「남녀공동참가 2000년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기본법이 되는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도 1999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확보되어 그 이익을 향유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도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법에서 책정이 의무 지워진 계획을 2002년 12월에 「남녀공동참가사회계획」으로서 책정했습니다. 본 계획의 책정에 있어, 국제연합의 특별총회 「여성 2000년 회의」(뉴욕회의)의 결과 및 정부의 심의회 답신인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 21세기의 최중요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여성인권의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변호사입니다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

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상 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왜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일까, 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남편의 가정내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있는 걸까,를 생각할 때, 여기에는 항상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의 낮음」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남녀는 평등하다」고 선언해도 남성을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성별에 의한 역할을 고정화하는 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한 진정한 남녀평등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별역할분담의식은 결국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성으로 봄으로서 양성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어서는 여성을 대등한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서, 낮은 임금과 관리직에의 적은 배치 등이 생기고, 또 성희롱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의식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에의 폭력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여성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학대받아 온 여성의 인권을 확고히 하고 21세기야말로 진정한 「인권의 세기」로 하기 위해서는 남녀공동참가사회의 실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소자녀고령화가 진전하고,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노동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능력을 더욱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사회전체가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

니다.

이는 또, 남성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차게 변화할 사회경제정세 안에서 진실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역시 이 남녀공동참가사회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간의 쿠마모토현의 대처)

○ 쿠마모토현에서는 지금까지 남녀공동참가의 추진을 현정의 중요과제의 하나로서 대응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쿠마모토현의 남녀공동참가사회 추진간담회라는 심의회에서 회장을 맡아 왔으므로 쿠마모토현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약간의 PR도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00년 6월, 현청에서 남녀공동참가과라는 전임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의 추진체제를 정비・확충함으로서, 종적 조직과 종파주의를 없애고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당연히 관계기관과 단체, NPO(비영리단체), 정부・시정촌과의 연계도 강화해 가고싶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또, 2000년 9월부터는 여성이 안고있는 고민과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여성종합상담실」을 현청에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담실에서 법률전문상담원으로서 상담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상담건수는 2000년도에 4.1건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6건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또 상담내용중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정내폭력)」에 관한 것이 1할을 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상담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앞으로도 상담건수가 증가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 또한, 남녀가 함께 행동하고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수법을 배우는 실용학문강좌로서 「남녀협동정경숙」이 개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쿠마모토현내의 3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였으나, 총280명(남성 22명 포함)이 수강했고, 대단히 호평을 받으며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기본법으로 都道府県에 의무지워진 남녀공동참가사회를 형성・촉진하는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쿠마모토현에서는 2001년 3월에 책정했습니다. 저는 이 기본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심의회의 의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왔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쿠마모토현의 실상에 입각하여, 금후 10년간 남녀공동찬가를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라는 나침반이며, 금후 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 기본계획의 특징으로서,
①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 만들기
② 남녀공동참가사회를 위한 종합추진체제만들기
③ 직장, 가정, 지역에 있어서의 남녀공동참가의 실현
④ 여성인권에 대한 배려
라는 네 항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정과 학교・지역사회・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교육・학습의 충실을,

두 번째 항목에는 현・시정촌의 추진체제의 강화, 정책・방침결정에 있어 여성참가의 확대, 性的으로 중립인 사회제도・관행의

구축, 현민과 여성단체 등과의 협동추진, 국제적 활동의 추진을,

세 번째 항목에는 취업·고용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가 추진, 농산어촌에서의 남녀공동참가의 추진, 직업생활과 가정·지역생활의 양립지원, 가정생활·지역생활에서의 남녀공동참가추진,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를,

네 번째 항목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 미디어에서의 여성인권의 존중, 일생 동안의 여성건강의 지원이 시책의 기본적 방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알차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제시책을 전개하여 남녀공동참가사회를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쿠마모토현에서는 農山漁村에서의 남녀공동참가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쿠마모토현 農山漁村 남녀공동참가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農政部, 林務水産部가 공동으로, 또 관계단체와 함께 책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책, 방침결정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가」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왔습니다.

쿠마모토현의 심의회 등에의 여성위원의 등용율은 2000년도 말까지 20.6%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말까지 30%를 목표로 추진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05년도 말까지 3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과 시정촌이라는 행정, 혹은 정치, 경제의 분야에서도 앞으로 점점 여성의 참가와 진출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며 시책을 강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쿠마모토현의 농업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진행되고 있어, 농업 담당자의 5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전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농업위원」에 대하여 쿠마모토현에서는 여성농업위원이 1999년까지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만 현재에는 53명으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업위원수가 1726명이므로 아직 그 비율은 대단히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0년 11월에는 현내 여성농업위원으로 조직된 「쿠마모토 여성농업위원의 모임」이 설립되어, 교류와 연대, 리더로서의 자질향상이 도모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미더운 일입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반드시 배가되어, 진실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으로서도 대처해 가야 하겠습니다.

○ 일본에서는 혼인할 때, 법률상 부부 어느 쪽의 성을 선택해도 좋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다수의 부부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입니다.

여기에서도, 결혼하면 남편의 집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오랜 고정적 성별역할분담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10여년 전부터 부부별성에 과내 민법의 개정문제가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상으로는 부부별성에 대해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쿠마모토현청에서는 이미 2000년 7월부터 「직원의 旧姓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민법개정을 미리 취하는 식이 되어, 일전에 정부 각부처에서도 검토를 시작한다고 보도되는 등, 쿠마모토현이 선봉에 선 모양이 되었습니다.

쿠마모토현에서는 제도를 만들고 나서 이미 15명(그중 남자 2명)의 직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착실히 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 그러면 앞으로 쿠마모토현이 남녀공동참가를 어떻게 추진하려 하고 있는지,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녀공동참가활동의 거점 만들기(남녀공동참가센터의 정비)

○ 남녀공동참가사회는 결코 행정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민 여러분들이 각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로서 개인, NPO, 자원봉사자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주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장을 현민에게 열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쿠마모토현에서는 내년 봄, 쿠마모토시에 「현민교류프라자(아직 가칭이지만)」 남녀공동참가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백화점을 병설하고 있고, 그 9층과 10층에 있기 때문에 현민들이 대단히 들르기 쉬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민교류스페이스, 도서정보코너, AV(시청각교육)코너 등을 설치하고, 상담업무 등도 행할 예정입니다.

2) 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을 향한 쿠마모토현의 조례의 책정

○ 그리고 금년의 큰 테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위원회의 위원장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 1999년의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에 의해 남녀공동참가의 추진은 중앙과 지방을 초월한 최우선의 과제로서, 기본적인 이념과 함께 국민모두의 책무로 자리잡았습니다.

○ 쿠마모토현도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책정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부과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에 금년, 쿠마모토현 남녀공동참가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 법적 기반으로서의 조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남녀공동참가사회를 추진하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민 모두를 위한 조례로서, 파트너십 아래 남녀공동참가사회만들기를 착실히 추진하는, 그런 조례로 하고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처)

○ 이밖에 여성종합상담실, 남녀협동정경숙을 비롯해 지역지도자육성사업, 혹은 남녀공동참가 지역포럼의 실시 등은 매우 성과가 있으며, 현민들에게 호평을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남녀공동참가 지역포럼은 각지역에서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정촌장이 단상에서 패널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長이 자신의 의견을 단상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 남녀공동참가의 대처가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참가자치체의 여성정책 등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쿠마모토현도 한국과 중국의 여성정책사업의 대처와 추진방법 등을 배우고, 훌륭한 것을 모두 흡수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여성인

권은 물론 사회경제의 빠른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여성도 남성도 진실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남녀공동참가사회의 실현을 도모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熊本县的女性政策推进事例以及今后的推进方向

熊本县男女共同参与推进恳谈会会长(律师)
藤田 光代

○ 祝今天由很多人参加盛大地举办的「国际女性政策研讨会」的圆满成功。

○ 我是来自日本熊本县的律师，藤田光代.
应忠清南道女性政策开发院之邀请，参加今天的研讨会，感到非常高兴，谢谢。

○ 关于会议的主题「东北亚地方政府探索女性政策的方向」，日本也在实行于1999年6月23日的男女共同参加社会基本法中被定为最重要的课题。
今天讲一些关于「熊本县女性政策推进事例和今后的推进方向」的我的想法.

(如何需要男女共同参与社会？)

○ 首先，再一次强调在日本男女共同参与的必要性。
○ 二战前，日本女性的地位非常低。 女性没有参政权，即不赋予选举权。 而且家庭里妻子没有管理财产权，长男被承认为家庭的继承人。
战后的1947年5月，日本实行现在的宪法保障男女按性别不受差别。还保障夫妇之间拥有同等的权利.
被承认女性的选举权，决定家庭关系的民法改成基于个人的尊严和两性平等的法律。

○ 战前女性的地位底，这种现象不限于日本。

由此，根据其历史的反省，战后为提高世界女性的地位和消除男女差别的行动中出现了「撤废差别女性的条件」，日本也将1985年制定男女佣人机会的均等法保障女职工不受性差别，同年推进「撤废女性差别的条件」。

所以日本的社会，家庭，法律上实现了男女平等。

○ 但是在社会、家庭、工作地、学校和地区，是不是实现了真正的男女平等？

不是。至今在一般的情况下，女性的工资比男性的低，从政治家、中央和地方的公共团体、公司的干部、学生会长和家长会长，到自治团体长，决大多数是男性。

而且，法律上允许孩子可以选择父母的性中一个，但是大部分选父亲的性，还有家庭里把家务・养育定为女性的义务，所以说还没实现男女平等。

我自己是律师，但在熊本县110名的律师中女性只有6位。我本人是女性，所以跟女性顾客的接触较多。越了解关于低的女性工资、晚的升级、办公室里的性玩弄、家庭里丈夫的暴力、为维持生活忍受离婚等的现象，就越感受到还是女性的地位低。

○ 根据这样的现象，指向真正的男女平等，还根据1995年举办的第4届世界女性会议(北京会议)的成果，日本在1996年制定「男女共同参与2000年计划」。

接着作为男女平等的基本法的「男女共同参与社会基本法」也制定于1999年6月。

此法律以男女作为社会对等的成员，保障参加社会各部门活动的机会，共享其利益共负责其责任为目的。还明确规定为达成其目的的政府和地方公共团体的责任。

政府在基本法中成为义务化的「男女共同参加社会计划」，将策

定于2002年12月。策定的内容中，包括国际联合的特别总会「女性2000年会议」(钮约会议)的结果及政府的审议会答申「关于男女共同参加基本计划的基本想法 - 21世纪的最重要的课题」。

○ 第一个当然是「女性人权的尊重」。

我自己是律师，律师以维护基本的人权和实现社会的定义为其使命。职业的特性上，再说我自己是女性，我对女性的人权一直给予关心。

一想到女性的工资为什么低，为什么发生对女性的性玩弄，家庭内为什么发生暴力，其结论都终结为「社会上女性的地位低」。

法律上怎么宣布「男女平等」，男性干活女性呆家这么一个性差别意识没改变的话，没法实现真正的男女平等。这样的性别角色分担意识起源于歧视女性的现象。

因公司不承认女性为对等的劳动者，产生低工资和低的干部比率，而且变成性玩弄的场所。

在家庭基于妻子该服从丈夫的意识，发生丈夫对妻子的暴力 。这是对女性人权的重大的侵犯。

确定至今在历史的舞台上受虐待的女性的人权，为把21世纪建成真正的「人权的世纪」，实现男女共同参加的社会是非常重要的。

○ 第二是为适应社会经济的变化。

日本在社会的少子女、高龄化的现象日益增多，减少支持社会经济的劳动人口的情况下，更强烈地要求应该活用女性的能力。

但是，为此全社会共同支持女性在家庭和社会上两立，造成女性容易进出社会的环境。

从另一个角度来看，这可以减轻男性的过重的经济上和社会上负担。

我想各位都知道，今后在急变的社会经济里，为建造真正地丰饶

的社会，实现男女共同参与社会是多么重要。

(1年间熊本县的对策)

○ 熊本县政府一直高度重视推进男女共同参与。虽然我不是行政担当者，但是我当着熊本县男女共同参与社会推进恳谈会-审议会的会长，借今天的机会介绍一下熊本县的对策过程和本会的事业内容。

○ 2000年 6月，县政府设立了男女共同参与课。
通过整备・扩充专门的推进体系，为消除纵的体系和宗派主义谋求综合推进而努力。还有着增强相关机关和团体，NPO(非盈利团体)，政府・市町村之间的关系的目的。

○ 另，从2000年 9月，县政府开设「女性综合咨询室」支援解决女性的烦恼和问题。
我在其咨询室做法律专门咨询员的工作。
2000年每天有平均4。1件的咨询，到了今年2000年增加到6件。而且咨询内容中关于「家庭内暴力」的占10%。
由于许多女性知道咨询室的存在，今后会继续增加咨询次数。

○ 另,为建设男女共同行动共同参与的社会，开设能学到需要的知识、机能、手法的实用学问讲座「男女协同政经塾」。
去年跟熊本县的3所大学协作实施，总280名(包括22名男性)收听，受到各界的好评。
今年也将按例实行。

○ 另,熊本县于2001年3月策定了作为基本法在都道府县义务化的关于形成・推进男女共同参与社会的基本计划。策定此基本计划的过程中，我作为审议会的会长总结了多方面的意见。

此基本计划本着熊本县的现实，对今后10年间怎么推进男女共同参与的指南针。我想应该一步一步地推进此计划。

○ 此基本计划的特征为如下4项

① 建成志向不受性差别的社会意识

② 为男女共同参与社会建立综合推进体系

③ 在办公室，家庭，地区中实现男女共同参加

④ 对女性人权的关心

第一个项目提出，忠实地教育・学习关于改善固定化的性别角色分担和在学校・当地社会・家庭里推进男女平等的内容。

第二项目提出，增强县・市・町・村的推进体系，扩大决定政策・方针的过程中女性的参加，构筑中立性社会制度・惯行，跟县民和女性团体协同推进，推进国际性活动等内容。

第三项目提出，推进在就业・佣人单位的男女共同参加，推进在农山鱼村的男女共同参加，对职业生活和家庭・地域生活的两立支援，推进在家庭生活・地域生活中男女共同参加，调整高龄者享受舒适的生活的条件。

第四个项目提出，消除对女性的所有的暴力，尊重媒体中女性的人权，支援对女性的健康。

虽然内容很充实，但还要展开综合的有计划的对策实现男女共同参加社会。

尤其，熊本县重视在农山鱼村里的男女共同参加，农政部与林务水产部和有关团体共同准备着策定「熊本县农山鱼村男女共同参加推进计划」。

○ 从「在决定政策，方针的过程中女性的参加」这方面，相当先进。

熊本县审议会等的女性委员的等用率，到2000年底达到20.6%。希

望今后到2005年底增加到30%。政府也指向到2005年底把女性的等用率增加到30%。
县和市町村等的行政，或政治、经济部门里也要逐步扩大女性的参加和进出，要考虑为此行政应作出些什么？

○ 熊本县的农业部门里也扩大女性的参加，女性占农业担当的53%。
但是，到1999年农地的专用等在农业部门担当重要的政策决定的「农业委员」中，女性只有2名。现在有 53名，有了飞跃地增加。
目前在全体农业委员数为1726名的情况下，其比例还是非常低。
在这样的现实里，于2000年11月设立由县内女性农业委员组织的「熊本县女性农业委员的见面」，谋求交流和连带、 提高领导的素质，非常可靠。
为实现真正的男女平等，行政单位努力在农业部门增加女性的参加。

○ 在日本结婚时，法律上允许夫妇可以自由选两个姓中一个。但是决大多的夫妇选择丈夫的姓。关于这种现象，前面已经提到过。
在这里可以看出，把结婚认为女人属丈夫的家庭的固定的性别角色分担意识。因此，从10年前开始讨论着关于夫妇别姓的民法的改正。
从法律上还没引进夫妇别姓，但在县厅里职员从2000年7月起可以使用旧姓。这意味着提前辨取民法改正，因此导致报道政府各部门开始民法改正的检讨等，熊本县厅成为先锋。
在熊本县建立制度后已活用15名(其中有2名男性)的职员。

○ 像这样，面向男女共同参加社会的形成，慢慢的、但老实的往前走。

(今后的对策)

○ 简单地介绍一下，关于往后熊本县如何推进男女共同参与。

1) 建立男女共同参与活动的基地(调整男女共同参与中心)

○ 我想男女共同参与社会的实现不能只靠行政。
重要的是各个县民都给予关心，把它看成是自己的问题，由个人、NPO、自愿者等多样的角色自主地对待。
为此，非常重要向县民打开活动的场所。所以熊本县明年春天将开设「县民交流大广场(假称)」男女共同参与中心。
这建筑的9楼和10楼设有百货店，会成为县民容易出入的地方。
这里还要设县民交流空间、图书情报室、AV(语音教育)室等，将进行咨询业务等。

2) 面向形成男女共同参与社会，熊本县策定的条例。

○ 今年的大的课题为制定条例。我又是这条例制定委员会的委员长。
○ 根据1999年的「男女共同参与社会基本法」，男女共同参与的推进为超越中央和地方的最优先课题，跟基本意念一起已经成为全国民的责务。

○ 已提到熊本县策定基本计划，为今后也继续推进此计划，赋予其法律根据是非常重要的。
所以今年为推进熊本县的男女共同参与计划，提供作为法律基础的条例很重要。我想，这就对推进男女共同参加社会最强力的支援。
○ 要制定一个为全县民的，为推进建立男女共同参加社会共同努力的条例。

(其他的对策)

○ 此外，女性综合咨询室、 男女协同政经宿、地域领导培养事业、或男

女共同参加地域研讨会的实施等都获得很大的成果，同时得到县民的好评。

尤其，目前各地区都举办着男女共同参与地域研讨会，这里计划市町村长作为发言人发表意见。这样，通过长的意见发表，男女共同参加的对策越容易。

(结论)

○ 今天，韩・中・日三国的女性发表了关于在社会中提高女性的地位和参加的自治团体的女性政策。

熊本县学习韩国和中国的女性政策事业的对策和推进方法，吸收比我们优秀的内容的同时，在社会经济的急速的变化和世界化的潮流中，为了建设一个对男女都真正丰饶的社会，要谋求实现男女共同社会。

○ 对给我一次发表的机会，表示衷心的感谢。

「熊本県の女性政策の推進事例と今後の推進方向」講話

発表者　熊本県男女共同参画推進懇話会会長（弁護士）
藤田　光代

【はじめに】

○ 本日は、多くの方々の御参加により、盛会に開催された「国際女性政策シンポジウム」の御成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 私は、日本国熊本県から参加いたしました弁護士の藤田光代と申します。同シンポジウムに忠清南道女性政策開発院様の御招待を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感謝申し上げます。

○ 開会のテーマとして掲げられた「東北アジア地方政府の女性政策の方向模索」については、日本国に置きましても1999年6月23日に施行された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の中で最重要課題であると位置付けをしております。

本日は「熊本県の女性政策の推進事例と今後の推進方向」について、私の考えの一端を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男女共同参画社会が何故必要か】

○ まず、改めて日本国の男女共同参画の必要性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 日本国においては、戦前女性の地位はたいへん低く、女性には、政治に参加する権利すなわち選挙権は与えられず、また家族の中でも妻には財産の管理権すらなく、長男が家の跡継ぎとされるなど、女性の地位はたいへん低いものでした。

しかしながら、戦後の1947年5月現在の日本国憲法が施行され、男女が性別によって差別されないことが保障されました。また、家族にあっても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が保障されました。

女性にも選挙権が認められ、家族関係を定める民法も個人の尊厳と両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改正されました。

○ 戦前の日本のような女性の地位の低さは、何も日本国に限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だからこそ、その歴史的な反省を踏まえ、戦後、国際的な女性の地位向上と差別撤廃の動きの中、「女子差別撤廃条約」が生まれ、日本国でも、1985年に女性労働者が性別により差別されないように、男女雇用機会均等法を定め、同じ年に、この「女子差別撤廃条約」を批准したのです。

ここに、日本国では、社会の中でも、家族の中でも、法律上の男女平等は実現されました。

○　しかし、社会で、家庭で、職場で、学校で、そして地域で、果たして男女は本当に平等で対等な立場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今でも、一般的に女性は男性よりも賃金が低く、政治家や、国や地方公共団体そして会社の管理職、生徒会長やPTA会長、自治会長に至るまで圧倒的に男性が多いのです。

また、結婚するときに法律では夫婦どちらの姓を選んでも良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圧倒的に夫の姓を選ぶ夫婦が多いですし、家庭の中の家事・育児の分担という面でも、女性の役割という意識が強く、男女が平等であるとは言えません。

私自身弁護士という職業に就いているのですが、熊本県では110人いる弁護士の中で女性はわずかに6人という状況です。さらに、女性弁護士と言うことで、女性からの相談を受ける機会が多いのですが、例えば女性の賃金の低さ、昇進の遅れ、職場での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家庭では夫からの暴力、生活のために離婚を思いとどまらざるを得ないなどの現状を知るにつけ、今でも女性の地位の低さを実感せざるを得ません。

○　このような現状を踏まえ、真の男女平等を目指し、そしてさらに1995年に開催された第4回世界女性会議（北京会議）における成果も踏まえ、日本国では1996年に「男女共同参画2000年プラン」を策定しました。

さらに、男女平等の基本法となる「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も1999年6月に制定されました。

この法律は、男女が社会の対等な構成員として、社会のあらゆる分野における活動に参画する機会が確保され、その利益を享受し、共に責任を担う社会を形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そして、その目的達成のための国や地方公共団体の責務も明らかにしています。

国は、基本法の中で策定を義務付けをした計画を、2000年12月に「男女共同参画社会計画」として策定をしました。本計画の策定に当たっては、国連の特別総会「女性2000年会議」（ニューヨーク会議）の結果および国の審議会の答申である「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考え方-21世紀の最重要課題」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　一つめは、言うまでもなく、「女性の人権の尊重」ということです。

私自身、弁護士ですが、弁護士は基本的人権の擁護と社会正義の実現をその使命としております。その職務上、また女性という立場からも、これまでも女性の人権については多大な関心を寄せておりました。

例えば、なぜ女性の賃金が低いのか、なぜ、女性に対する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が起こるのか、なぜ家庭の中で夫から暴力を受ける女性がいるのか、を考えるとき、そこにはいつも、「社会における女性の地位の低さ」がありました。

法律でいかに「男女が平等である」と宣言しても、男性は仕事をし、女性は家庭を

守るものという、性別による役割を固定化する意識が根強く残っている限り、真の男女平等は実現されません。そして、この固定的性別役割分担意識は、結局のところ、女性を男性よりも劣った性と見ることで醸成されるものなのです。

職場においては、女性を対等な労働者として見ないことから、賃金の低さや管理職への配置の少なさを生み、また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の温床にもなります。

さらに、家庭の中では妻は夫に従うものという意識から、夫から妻への暴力を生みます。これらが女性の人権への重大な侵害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

これまで歴史の中で虐げられてきた女性の人権を確固たるものとし、この21世紀こそ真に「人権の世紀」とするためには、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は本当に大切な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　そして、二つめは、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するためということです。
日本国においても、少子高齢化が進展し、社会・経済を支える労働力人口が減少する状況の中、女性の能力をもっと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社会的要請には強いものがあります。

しかし、そのためには、家庭と仕事の両立を社会全体で支え、女性の社会進出をもっと容易にする環境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はまた、男性にとっても、これまでの過度の経済的負担や社会的負担を軽減していくものだと思います。

これから激しく変化する社会経済情勢の中で、真に豊かな社会を築いていくため、やはり、この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がいかに大切かがおわかり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この一年の熊本県の取組み】

○　熊本県では、これまで、男女共同参画の推進を県政の重要課題の一つとして取り組んで来ました。私は、行政の担当者ではありませんが、熊本県の男女共同参画社会推進懇話会という審議会で会長も務めて参りましたので、熊本県がこれまで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きたか、若干のPRも兼ね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　2000年6月、県庁の中に男女共同参画課という専任部署が作られました。
専門の推進体制を整備・拡充することで、縦割りやセクト主義を廃して総合的な推進を図ろうとしたものですが、当然、関係の機関や団体・NPO（非営利団体）、国・市町村との連携も　強化していきたい、そうした狙いがありました。

○　また、2000年9月からは、新たに女性が抱える悩みや様々な問題の解決を支援する「女性総合相談室」を県庁に開設されました。
私はその相談室で法律専門相談員として、その相談にもあたっています。
一日当たりの平均相談件数は2000年度で、4．1件であったものが、本年度に入っては、6件程度に増加しています。また、相談内容の中で「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家庭内暴力）」に関わるものは1割を占めています。

(1) 男女共同参画活動の拠点づくり（男女共同参画センターの整備）

○　男女共同参画社会は、決して行政だけで実現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県民の皆様方、それぞれご関心を持っていただき、自分の問題として、個人、NPO、ボランティアという様々な形で、自主的に取り組んでいただくことが大切です。

そのためには、活動の場を県民に開いていくことがとても大切なこととなります。そこで、熊本県は来春、県都熊本市の街中に「県民交流プラザ（まだ仮称ですが）」に、男女共同参画センターを開設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この建物は、デパートを併設しており、その9階と10階になります。県民の皆様が非常に立ち寄りやすい場所になります。

そこでは、県民交流スペース、図書情報コーナー、AV（視聴覚教育）コーナーなどを設け、相談　業務などもここで行う予定です。

(2) 男女共同参画社会の形成に向けた熊本県の条例の策定

○　そして、今年の大きなテーマは、条例を作ることです。私は、この条例の策定委員会の委員長も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　1999年の「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により、男女共同参画の推進は、国、地方を通じた最優先の課題と位置付けられ、基本的な理念とともに、国民全ての責務として位置付けられました。

○　熊本県もそれにしたがって、基本計画を策定したことは既に述べたとおりですが、今後もこの計画を継続的には推進するためには、その法的根拠を与えることが大変重要なこととなります。

そこで、本年、熊本県男女共同参画計画を着実に推進するために、その法的な基盤としての条例を制定することが大変重要なのです。これは男女共同参画社会を推進する、何よりも強力なバックボーンにもなると考えております。

○　そして、県民の皆様方全てのための条例として、パートナーシップの下、男女共同参画社会づくりを着実に進める、そうした条例に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その他の取組み】

○　このほか、女性総合相談室、男女協働政経塾をはじめ、地域リーダー育成事業、あるいは男女共同参画地域フォーラムの実施などは、大変成果が上がっており、県民から好評をいただいている事業でございます。

特に、男女共同参画地域フォーラムは、各地域でフォーラムを実施しておりますが、そこでは市町村長に壇上でパネラーとして意見を述べていただくという企画にし

ております。首長が自分の意見を壇上で語ることによって、男女共同参画の取組みが進みやすくなっております。

【まとめ】

○　本日は、韓国、中国、日本と三カ国の女性の社会的な地位向上や参加自治体の女性政策等についての発表があります。

　私たち熊本県においても、韓国や中国における女性政策事業の取組みや推進の図り方など学習させていただき、優れているものをどしどしいただきながら、これからも、ますます、女性の人権という面はもとより、社会経済の激しい変化やグローバル化の中で、女性も男性も真に豊かな社会を築いていくために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を図って参りたいと考えています。

○　本日はこのような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へ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忠淸南道 國立 公州大學校
敎授 金 景 淑

또한 여성정책이란 헌법상의 명분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류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대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에도 법률상 평등과 사실상 평등간의 괴리 현상이 잔존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유교문화권 국가들로 서구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복지 증진 및 여성 주류화 흐름이 뒤늦게 나타났다. 그리고 서구의 여성운동과 달리 정부시책 추진 과정에 구호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여성운동의 관변화 및 어용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공업화단계에서 여성들이 저연령, 저학력, 저임금군에 편재되어 여성을 가계 보조적 인력으로 보는 성 차별적 시각이 여성의 차별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 세 나라에서도 여성 위상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가족유형의 변화, 취업여성의 증가, 노동시장의 변화, 정보화 및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여성의 의식 변화, 고학력 여성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성 주류화 흐름을 주도해 온 UN의 역할 등 여성운동에 관한 국제적 분위기와 환경,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민주화를 지향하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1] 등이 배경적 요인이 되어 낙후된 여성부문의 균형을 회복하고 여성도 사회발전의 주체자라는 시각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 주요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각 사회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이나 여성해방 및 여권론의 입장에 따라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에서 차

1) 헌팅턴은 1974년 부터 1990년 사이에 30여개국에서 진행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작업을 분석하면서 이를 민주화를 지향하는 "제3의 물결"로 규명했다.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 London : Univ. of Oklahoma Press, 1991)

이를 보이기도 한다.[2] 왜냐하면 추구하는 이상과 바람직한 사회질서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각 사회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의 동일한 문화권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제반 환경적 요인으로 상이성도 노정시키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반정책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지방 정부의 여성정책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 연구로서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 양상 및 방향을 전반적 기조와 지방 정부 중의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가부장적 가치체계 하에서의 동북아 여성들의 위상과 이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유사성을 규명하고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 사례와 방향

한국의 여성관련 정부 업무는 보사부 중심[3]의 부녀행정으로 시

2) 이를 자유주의적, 복지주의적, 사회주의적, 급진적 여권론의 입장에서 대별해 본다면 자유주의적 여권론에서는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 보장을 강조하여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평등을 제약하는 구조적 힘을 과소 평가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복지주의적 여권론에서는 여성 억압의 원인이 여성의 중요한 기능인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없는데 있다고 보아 모성 및 아동보건 서비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입각하므로 기존의 고정된 성별 역할 분담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주의적 여권론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전통적 가부장제의 결합에 의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성별 노동분업에 의한 여성 종속 타파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체제를 위한 여성 인력 동원의 필요성에서 주장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급진적 여권론은 남성 우위의 가부장제와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서 여성 억압의 원인을 찾는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 의무로 부터의 해방과 여성 중심의 양식을 갖는 여성문화의 재창조를 통한 여성중심적 가치 고취를 강조하는데 이는 정치적 분리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M. Wollstonecraft, 『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Women』, Elisabeth Wilson, 『Women and the Welfare State』, Z. R. Eisenstein,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ase for Socialist Feminism』, A. Koedt, 『Radical Feminism』 참조.

3) 한국 정부의 여성관련 행정 조직은 1946년 미군정 보건후생부 부녀국, 1948년 사회부 부녀국, 1963년 보사부 부녀아동국, 1981년 보사부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3과체제로 개편되어 왔다. 이 외에도 노동부내 부녀담당관, 근로기준국 내 부녀소년과에서도 여성업무를 담당했으며 1980년대에 여성문제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여성정책의 일관성과 전

작되었다. 당시 여성정책으로는 1947년 부녀보호사업 추진계획, 1950년 여성 일터 알선, 고아원, 탁아, 아동보호사업계획, 1953년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갱내 노동 금지, 월1회 생리휴가제, 취업 중 육아시간제, 산전산후 휴가제 도입, 1961년 가족계획, 윤락행위 방지법, 아동복지법, 1962년 아동복리시설 기준령이 이루어졌다.[4)]

1960년대 이후 미국여성운동의 영향 확산과 1975년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 선포 등 국제적 조류는 한국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 모자보건법, 1979년 민법개정에 이어 1980년대 이후 국가가 여성부문을 독자적 영역으로 상정하고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가시화한 것이다.

이어 1975년 보사부의 '한국여성의 해' 선포, 1980년 세계여성대회에서의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 설치 공언,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988년 정무제2장관실 신설, 1994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2001년 여성부 발족 등 여성관련 정책을 위한 일련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안, 1985년 여성발전기본계획안 및 남녀차별개선 지침안,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88년 근로여성지위향상 및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안, 1989년 가족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여성정책 추진 기능 강화안,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92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안,

---

문성이 제고되었다.

4) 그러나 정책에 비해 내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전쟁 직후 요구호 아동 대책의 시급함으로 인해 탁아사업은 실시 초기에는 좌절되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 정부 장려책으로 1970년 377개소, 1976년 607개소의 탁아소가 운영되었다. 여성의 야간근로 제외도 부득이한 경우에 처한 사업장에 한해 이를 인가한 예외 조항 적용의 확산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해방 후 공창폐지령에 근거해 실시한 매매춘정책도 과도정부기간의 혼란, 전쟁, 자유당 시기의 생활고로 인해 사창과 매춘여성의 수가 급증했다. 윤락행위방지법 역시 법 집행에 있어 처벌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해 법과 현실적 집행간 괴리 양상을 노정시켰다. 가족계획 역시 한편으로는 가사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여성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 모자보건법에서의 임신 28주 이내 낙태의 합법적 사유 규정이 오용되면서 불법적인 여아 선별 낙태를 통한 성비불균형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994년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2001년 모성보호법 등 제반 정책 및 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여성정책의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

정치분야에의 여성 참여는 입법과정에 여성이 참여함과 동시에 여성의 관점을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저조해 현재 여성의원은 5.86%인 16명에 불과하다.[5]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에서도 할당제 논의가 제기되어 의회의 전국구와 지방의회 광역선거에서 비례대표가 도입되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16명 중 전국구 의원이 11명이며 2기 지방 광역의회 여성의원 55명 중 42명이 비례직으로 진출했다.[6]

지방정부 중 충남의 경우에는 그 동안 여성 국회의원은 1명도 배출되지 못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방의회에서는 1995년 선거에서 도의원 1명, 지역구 비례대표 2명의 여성의원이 진출했으며 1998년 선거의 경우 직선 의석에는 여성이 없으며 비례대표 2석을 할당받았다.

한국 여성계는 정치적 장에서의 여성 비율 30% 할당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며 정당들 역시 선거 때마다 여성표를 의식해 공약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성 후보자 발굴, 유권자 의식교육 등을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정당 등에서 실시중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책의 일

5) 이러한 한국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은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1991년 1기 지방선거에서 기초, 광역 각각 0.9%에 불과했으며 1995년 2기 역시 기초 1.6%, 광역 선출직 1.5%에 그쳤다.

6) 이범준, 『21세기 정치와 여성』, (나남출판, 1998), p.258.

환으로 2000년까지 11건의 남녀차별 법규 정비작업을 벌였으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자치대학」,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를 운영하고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관 「여성정치학교」 등 여성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또한 여성의 요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996년「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강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안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별 최소 목표율을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18%, 2000년 20%, 2002년 25%, 2005년 30%로 설정, 운영토록 했다.

충남의 경우 도청 내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각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996년 6.1%, 1999년 11%, 2000년 말 23%이다. 2002년까지 30%로 제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30% 할당제가 실현되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1998년 15%, 1999년 18%, 2000년 20%의 5, 7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4.4%인 660명에 불과하며 25개 중앙부처의 경우 실장과 국장, 과장급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7]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를 위해 충남 역시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여성채용 비율을 8, 9급 25%, 6, 7급 23%로 설정해 노력 중이며[8] 여성공무원의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여성공직자 업무능력 향상과정」을 실시했다.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8년에 인사관리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행정자치부는 20001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7) 동아일보, 2001년 5월 26일자.

8) 충남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청의 경우 일반직이 4급 이상 2.8%, 5급 1.5%, 6급 4.3%, 7급 5.8%, 8급 13.8%이며 기능직은 5급 이상은 없으며 6급이 8.3%, 7급 3.4%, 8급 14%, 9급 54%이다. 별정직 역시 1급-4급은 없고 5급이 20%, 6급 28.6%, 7급 33.3%, 8급 63.6%이다.

중앙기관에는 2-3년 내 여성국장 또는 과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각 부처 실, 국장급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책임관' 을 지정해 각 부처 정책 수립에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부처간 중첩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정책을 조정, 협의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9] 승진, 개방형 직위제, 계약제 채용 시 여성공무원을 우선 배려하며 2005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5급 여성 비율을 10%까지 제고시키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현재 광주에서만 여성부시장이 배출된 여성 부단체장직을 점차 확대하고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도록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요청하도록 했다.[10] 그러나 관리직 여성 임명과 관련된 강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장과 자치 단체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관장과 단체장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의식교육 병행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 원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성 차별적 고정관념과 잘못된 사회화 과정 및 이로 인한 보수적 정치문화이다. 이는 차별 의식과 관행 및 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공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대 국민 홍보활동, 대중매체의 성 차별적 내용 개선 등 가장 기초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적 주체 인식 확립과 정치과정에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할당제 공약 실현과 소수세력의 보다 높은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 논의 등 제도 개선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경제

9) 한겨레, 2001년 4월 10일자.
10) 동아일보, 2001년 4월 14일자.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3년 42.8%에서 1996년 48.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 패턴은 결혼이나 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육아 후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11] 또한 아직도 노동시장에 남녀 차별적 관행이 상존해 여성들은 취업 기회에서 제한 받고 있고[12], 취업한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 여성근로자가 많다.[13]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부문의 여성정책으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2001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대한 성차별 금지조항과 강제조항을 규정했다. 또한 동일 작업장내에서의 동일노동 및 동일가치노동(유사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산전 산후 유급 휴가제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의 1년 이내 휴직제를 두었다. 이 밖에도 국가의 임대주택, 탁아소 설치 등 복지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기업주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14]

---

11)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996년의 경우 15-19세 13.6%, 20-24세 66.0%, 25-29세 51.1%, 30-34세 49.1%, 35-39세 60.1%, 40-44세 65.6%, 45-49세 62.2%, 50-54세 57.2%, 55-59세 53.3%이다. 특히 30-35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5.2-37.7%나 낮아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1997) 자료.

12) 대졸자 중 여성 비율은 41.4%인데 비해 50대 그룹 대졸 신규입사자 중 여성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 정무제2장관실, 앞의 책, p.23.

13)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1992년도)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55.6% 정도이며,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3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이 고용된 전체 여성의 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1989년 당시 임금노동자중 1-4인 사업체 종사자의 25.9%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분쟁 및 성차별 피해 해결을 담당하는 고용문제조정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장의 의뢰에 의해서만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조정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조항 차이의 문제와 동일가치, 동일노동조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과 평가 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보육시설 규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시설 규정 등을 통합, 조정해 국가와 지방자자단체의 영유아보육 책임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정부 지원 탁아시설을, 사업체 및 공단에는 사업주 부담의 직장탁아시설을, 일부지역에는 수혜자부담의 민간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15]

모성 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해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서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60일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나머지 30일치 봉급은 사용주가 90일간 휴가를 준 뒤 다시 복직시켰다는 증명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무급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 출산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생계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로써 근로자가 아닌 아내가 출산한 경우에도 남편의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역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감봉, 해고 조치한 사용주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과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었다.

다음 성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해 간접 차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장내 성차별 범위를 확대시켰다. 간접차별이란 사업주가 채용, 임금, 승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이 특

---

15) 법 제정 당시는 취업모의 0-5세 아동 수 175만5천명 중 보육대상 아동이 99만명인데 비해 직장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 비율은 0.6% 밖에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국가의 육아에 대한 기본적 의무 규정이 없어 육아를 사적 영역이자 여성의 의무로 인식하는 기존의 시각이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기혼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100-150명 규모 정도의 중소기업체나 100인 미만 영세기업에 밀집되어 있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게다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규정으로 되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완, 실행에도 2000년 말 2세 영아 197만명 중 보육시설 이용자는 11만 9,600명에 불과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222개 사업장만 이행 중이라는 현실이 벌칙 조항 없는 의무사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1년 3월 15일자.

정 성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16]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되어 성희롱 예방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여성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본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여성의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조항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데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반면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의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 외 근로를 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보호를 강화했다.[17]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충남에서도 노동관서, 유망 기업 등과 연계해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여성창업과정」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충남의 경우는 여성의 농가 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18]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충남여성포럼」이 「충남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농촌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워크샵」에서도 농촌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여성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정책 역시 여성들은 산업화에 저임금의 노동력만 동원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했다는 점을 되새기고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16) 예를 들어 '여성은 부장이 될 수 없다' 는 것이 직접차별이라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부장이 될 수 없다' 는 것은 간접차별로 이 경우 역시 피해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1년 7월 18일자.

17) 재원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재계, 당·정, 여성계간의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여성계가 주장해 온 태아검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등이 배제되었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 25만원 내외 책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동아일보, 2001년 8월 6일자.

18)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 평균 40.6% 보다 높은 55.3%이나 이 중 농가 취업자가 70.3%로 전국 66.2% 보다 많다. 산업별 취업 비율도 1차산업 61.7%, 2차산업 10.1%, 3차산업 28.2%로 여성 취업에 전근대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 전산업에서의 여성관리자는 0.3% 뿐이다. 이는 무급가족 봉사자, 불안정 취업, 가사노동과 분리되지 않는 노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낮은 보상, 주변적 노동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충남, 『21세기 충남여성발전 정책방향』, (1997년 충남여성정책토론회), pp.44-45.

교육 및 홍보를 충실히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여성차별 사례를 조사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용상 차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충남의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여성정책간의 상호 연계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노동의 평가 및 보수가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여성 출산 보조금제 확산, 토지소유권의 부부공유화, 농어민여성의 생산활동과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여성농어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농, 수협 조합 대의원, 이사 구성에의 여성 직능제 도입, 여성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원, 영농, 농기계교육 훈련, 전산화 교육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경영 프로그램에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사회문화 및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촌여성에 대한 배려 등을 더욱 활성화는 방안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남 여성의 취업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증가해 가는 경향과 기혼이 88.9%로 압도적인 양상, 그리고 중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가사노동과 산업노동이 병행될 수 있는 1차산업의 특성상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퇴출현상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한국 전체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미혼, 저연령층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크게 흡수되어 왔지만 충남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성 노동력은 주로 충남권 밖으로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저연령, 고학력, 미혼 여성의 노동력이 흡수될 수 있는 취업정보, 취업 알선의 체계화, 취업 의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 등 고용 창출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회

1958년 새 민법의 제정은 한국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요소를 상당부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서는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

로 친족범위가 차별화되던 것을 부, 모계 모두 동일한 8촌 이내로 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 시집쪽, 처가쪽 4촌까지 하도록 했다. 또한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고,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차별을 없앴다. 이혼한 어머니에게는 친권을 인정하지 않던 것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종전에는 남편의 전처 소생 아이 또는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에 대해서 아내가 무조건 어머니로서의 관계 즉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를 강요했으나 아이가 원하는 경우에만 양자로 입양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인척관계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도 문제가 잔존하는데 호주승계 순서가 나이에 관계없이 아들 다음에 딸로 되어 있어 남아선호의 불평등이 고수되고 있다. 남계혈족 중심 규정으로 헌법 제36조 1항 "혼인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 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봉건적 가부장제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제도로 일제시대 군국주의적 천황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소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19] 호주제에 대해 여성계는 폐지운동을 전개 중이다.

모자보호법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로 편모를 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늘어가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서는 전체 모자가정 가운데 공적 부조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모자세대를 모자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수용, 보호하고 퇴소 시 자립정착금 150만원을 지급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생계를 보조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을 담고 있다.[20]

---

19) 장공자 (외), 『새로운 정치학』, (인간사랑, 1998), p.393.

20) 1988년에는 37개소 모자보호시설에 805세대가 보호를 받았는데 이는 보호 대상자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법이 도입된 후 1992년까지의 집계에서도 39개소 836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투자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소 후 자립 정착금 액수도 한 가정의 실질적 자립에는 크게 못 미치며, 모자 보호 대상이 첫 아이 기

또한 최근에는 이혼율 급증에 따른 양육비 지급 문제도 소외여성의 복지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21] 이 역시 출산 및 육아와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으로만 환원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을 신청하는 법적 장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 주는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22]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시도하고 있다.[23]

준으로만 되어있어 복지혜택이 더욱 절실한 부양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이 오히려 혜택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과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를 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의 실효성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1993년도 보사부 전체예산의 0.2%, 정부 총예산의 0.009%만이 저소득 모자복지 예산으로 할당되었던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1) 2000년 한국의 연간 이혼 수는 12만 건이며,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70.4%였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이 중 양육비를 규칙적으로 받은 경우가 38.7%, 전혀 받지 못한 경우 41.9%, 불규칙적으로 받은 경우 10.9%이다. 별거 여성의 경우는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18.2%, 전혀 받지 못한 경우 70.9%, 불규칙적으로 받은 경우 10.9%이다. 법원이 책정해 주는 자녀 양육비도 통상 1명 당 15만원 내지 30만원 선에 불과하나 이혼한 129명의 가정 중 협의이혼한 경우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모두 여성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이혼을 고려 중인 255명 여성의 84.3%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 조사』, (2001)

22) 이를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역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지며,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책임을 강제로 집행시킬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부양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급제도'나 아동복지기관이 부양료 청구를 대신 해주는 '보좌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23)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제 추행은 고소기간 6개월의 친고죄로 되어 있어 강간 신고율이 2.2%에 그치고 나머지는 은폐되어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신분 보도 및 처벌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고 및 판결 양상이 노정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전국 경찰관서의 여성상담실 운영 강화,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대를 시도 중이다.

여성의 사회적 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에서도 자녀 양육비, 중고생 학비, 월동비 등 생활 보호비를 지원하고 주택 임차, 사업자금 융자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모자가구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해 자활 능력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요 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를 위해서도 9개소의 성, 가정폭력 상담소와 1366 상담전화 운영, 경찰, 병원,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정책이 시도 중이다. 그리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 아동복지 상담요원 교육」,「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교육」, 「성폭력관련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초 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인간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남녀평등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가정정책 부재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교육 및 가족법의 보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육

양성 평등 교육을 위해 1988년 5차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차별적 관점이 내재된 부분을 삭제 보완하고 중학교 교과과정에 기술과 가정을 통합해 남녀공통 과목화하며 고교 실업교과에도 정보산업 교과를 신설해 남녀 공동으로 선택 이수하게 했다. 초등학교 실과에서도 빨래, 바느질, 요리, 공구 다루기, 가정 기기 다루기 등을 공동 학습시키고 있다. 이는 7차 교과과정에도 이어져 교과서 개발 지침과 검정기준에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 명시, 예화·사진·삽화 등에서의 남녀역할의 평등한 구성, 중·고교 기술, 산업교과

와 가정교과의 「기술·가정교과」로의 통합 및 고교 1학년까지의 공동 이수,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교과의 남녀 구분 없는 선택 교과화를 시도했다.[24]

또한 일부 특수대학에 잔존하던 여학생 입학제한을 철폐해 1988년 세무대, 1989년 경찰대, 1990년 철도전문대, 1991년 농협전문대에 여학생 입학이 가능해졌으며 사관학교에서도 금녀의 벽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99년에는 교사용 「남녀평등교육지침서」가 개발 보급되었다. 교육의 장에서는 교사의 양성 평등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 연수 시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내실화하고 사대, 교대 교육과정에서도 여성학 관련 교과 개설이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양 여성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학문간 협동연구에 의한 팀 티칭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 의식은 오랜 세월에 걸친 뿌리가 매우 깊고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학교 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의식전환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급 연수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시달시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확대하고 여성사회교육 전담기관에서도 종래의 교양과정이나 취미활동에 치우친 교육 내용에서 탈피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분야 역시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의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더욱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부문 중 하나가 교육분야이다. 1997년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체 교원 중 여성 비율은 유치원 95.8%, 초등학교 57.4%, 중등학교 50.1%, 고등학교 24.1%이다. 그러나 상급

24) 이 외에도 1990년 한국여성개발원이 개발한 「중학교 여학생 진로 모듈」을 전국 시, 도 교육위원회에 보급해 여성으로서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아 의식 확립을 통해 폭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를 시도했다. 1998년에는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남녀공학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남자 또는 여자 중·고교의 공학으로의 전환 유도, 학교 신설시 남녀공학 권장 및 남녀평등교육 물적기반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직책 중 여성비율은 교(원)감 중 25.3%, 교(원)장 중 10.3%, 장학관 중 4.5%, 연구관 중 9%에 불과하다.[25] 이는 여성이 상위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성 차별적 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55세 이상 교원 중 여성비율이 유치원 58.5%, 초등학교 19.1%, 중등학교 8.2%, 고등학교 3.7%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년에 이르기까지 직업을 계속 가지고 활동하면서 관리직에 도전하는 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 동안 수많은 여성정책안이 개발되고 집행되어 왔으나 이 보다 여성 스스로의 의식 및 태도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에서는 시군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에 서의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단체 지도자 및 회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초등교원 대상의 열린교육 실현을 위한 「개별화 교육 워크샵」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이루어졌다.

3. 동북아 여성의 과제와 교류 협력 방안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이나 능력개발의 기회가 제한되어 온 나라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한국 여성정책 중 상당 부분이 중국, 일본에서도 시도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실질적 평등에 이를 만큼실현되지 못한 부분도 많다. 이러한 유습으로 인한 3국 여성 문제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과제 및 교류 협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5) 충남의 여교사 비율은 1998년도 초등학교 47.9%, 중학교 42.6%, 고등학교 23.2%이며 교감은 초등학교 2.9%, 중학교 6.3%, 고등학교 1.9%, 교장은 초등학교 2.5%, 중학교 8.3%, 고등학교 4.9%이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통계연보』, (1998)

(1) 가부장적 가치체계의 타파

20세기 초 유교는 국가권력의 이념체계로서의 성격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중국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이념이나 행동에 실천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권위주의와 육체노동의 비하 그리고 전통의 존중과 함께 유교는 선천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우월한 사람을 엘리트로 선발하는 재(才)·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로 환원시켜버리는 인(仁)·인위적이지 못한 세계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천명(天命)의 사회적 원리는 부자간의 수직적 관계와 함께 남녀간에도 엄격한 구별의 근거로 남아 여성은 온순하며 복종적인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가부장적 가치체계는 인민의 사상과 습속까지 체계적으로 개조해 나간 사회주의의 비공(批孔)운동과 함께 예교(禮敎)의 구질서와 3종 4덕의 가족제도에 대한 중국 여성 지식인들의 인습 타파운동으로 이어졌다.[26] 일본이나 한국 역시 이러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운동이 이의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유습을 시정하기 위한 운동과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치체계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동북아 국가들에 아직도 폭넓게 잔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단지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귀한 생명의 출생조차 차단 당하는 비인간적 양상이 횡행하고 있다. 모택동 시기부터 행해져 온 절육(節育, 출산제한)정책은 남자가계 계승관념과 중남경녀(重男輕女)식 사고가 남아있는 한 여아의 살해, 아내의 박해 등을 엄격히 금하는 법률적 제재를 병행하지 않는 한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는 저출산 경향과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한 성비 불균형 심화 및 낙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27]

---

26) 강유위(康有爲)의 '대동사회론(大同社會論)', 양계초(梁啓超)의 '부학진흥론'(婦學進興論), 금천핵(金天翮)의 저서 『여계종』(女界種), 나가윤(羅家倫)의 저서 『부녀해방』(婦女解放) 등에서 여성 해방, 전통적 가족제도의 개혁, 여성교육이 주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해도 가부장적 가치체계가 잔존하는 한 실질적 평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UNDP의 국가간 비교지수에 한국과 중국은 남녀개발척도에서, 한국과 일본은 남녀권한척도에서 서구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IMD (Int'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국가별 성희롱과 폭력지수에서도 3국 모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서구국가들에 비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교적 문화권의 국가들에서도 실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북아 여성들이 힘을 모아 역사적 뿌리 속에 잠재해 있는 성 차별적 가치체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논리를 개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의정 참여 증대

중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참정권 획득운동을 주도했던 추근(秋瑾), '여자참정동우회'를 창립한 임종소(林宗素), '여근공검학회'(女勤工儉學會)의 향경예(向警豫), 채창(蔡暢) 등이 재산상속권, 선거권, 피선거권, 교육의 기회균등, 취업의 동등권, 자유의사에 따른 혼인결정권 등 5가지 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5종(種)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에 대한 의식이 제기되었다.[28]

1890년 제1회 일본제국의회 선거에서도 여성은 배제되었다. 제헌의회 개원과 함께 제정된 '집회 및 정사법(政社法)'과 미성년자 및 여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치안경찰법' 5조로 인해 여성은

27) 25-29세의 성비는 2000년 남 120.2명/여 100명이며 2010년에는 남 128.6명/여 1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무제2장관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 1998-2002』, p.5.

28) Tse-tsuing Chow, 『The May Forth Movement :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193-194.

정치운동이나 조직에 참여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대적 입헌국가로서의 출발이 동시에 여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의 시작이었던[29] 일본에서도 '신부인회'(新婦人會)의 이치카와 후사에, 오쿠 무메오 등이 치안경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부인참정권 획득 기성동맹회'를 결성했다.

1925년에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도 여성은 제외시켰던 일본에서 2차 대전 후 미군정 하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해방과 함께 주어진 서구민주주의제도로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시작된 동북아 국가들에서의 여성 참정은 아직도 서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국 중 상대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높은 중국의 경우에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1999년 IPU 자료에 의하면 세계 여성의원 평균 비율 13% 보다 높은 21.8%이다. 1992년 14기 당대회 시 총 중앙위원 중 여성은 6.3%,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의 여성대표 비율은 21.03%[30]였다. 전인대에서의 진모화(陳慕華), 정협 부주석 전정영(錢正英), 국무위원 팽패운(彭佩雲) 등이 여성 지도자로 활약했으며 국무위원에 속한 각 부와 위원회에 여성부장 3명, 부부장 15명이 임명되기도 했다. 1993년에는 전국에 250명의 여성 정·부시장이 탄생했으며 현급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는 여성간부가 약 7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권력의 핵인 공산당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에 여성이 선출된 적은 거의 없다.[31]

일본은 고이즈미 내각에서 다나카 외무상, 모리야마 법무상 등 5명이 입각해 30%를 차지했다. 중·참 양의원에서의 여성비율도

29) 金城春子, 『法女性學』, (東京 : 日本評論社, 1996), pp.11-12.
30) 조위, "중국여성의 적극적 의정 참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제1차 한·중여성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3)
31) 정치국에는 9전대에서 강청(江靑)과 엽군(葉群)이 정의원으로, 10전대에서 강청이 정위원, 11전대에서 진모화가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강청은 모택동의 부인이며 엽군은 임표(林彪)의 부인이다.

10% 남짓으로 세계 평균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1967년 통일지방선거 이후 어느 선거에서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특성과[32]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보편적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저대표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도 여성계의 노력과 선거 시 할당제 공약으로 2000년 의회에서 5.86%의 여성의원을 배출했으나 IPU에서 조사한 130여개국 중 99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 극복을 위해 1993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여성 정치지도자 대회」에서 채택했던 "정치란 모든 사람의 일이다. (Politics is everybody's business)" 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성차별 없는 올바른 정치사회화, 정치문화 정립과 소수세력에 불리하지 않은 선거구제 조정과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 할당제 실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경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화에의 대응

산업화, 동원화 과정에서의 여성 노동력의 기여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정보화,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 세계화의 거센 파고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에서 여성해방이 고무된 배경적 요인 중에는 여성들의 혁명 동참과 노동력 동원이라는 측면도 빼 놓을 수 없다. 정권(政權)·족권(族權)·신권(神權)·부권(夫權)의 4가지 사슬 타파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역설했던 모택동은 노동여성에게서 혁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간파하고 여성인력을 혁명투쟁의 성패요인으로 인식했다. 이에 "전국의 여성이 일어나는 날이 중국혁명이 승리하는 때 (全國婦女起來之日, 就是中國革命勝利之時)" 라면서 "중국여성은 하나의 위대한 인력자원으로 이는 반드시 발굴

32) 井上輝子·江原由美子(編), 『女性のデータブック』, (東京 : 有斐閣, 1995), p.147.

하여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분투하게 해야 한다." 는 점이 강조되었다.[33]

일본 역시 제2차 대전 중 일본의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이 국가에 협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 도움이 컸다는 유럽의 사례에 착안하여 일본의 국가정책에 적극 협력했다.[34] 뿐만 아니라 1960-70년대 일본에서도 급증한 여성근로자가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이들의 1인 평균 월급은 남성의 50.9%에 불과해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35]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역시 여성의 저임금 노동이라는 희생적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IMF 시기에 여성들이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로 경제적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중국이나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불황에서 예외일 수 없는 일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결국 이는 세계화의 거센 파고 및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제력 상실 가능성이 높아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

33)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編, 『毛澤東・周恩來・劉小奇・朱德 論婦女解放』, (北京 : 人民出版社, 1988), pp. 64, 67.

34) 山口みっ子, "共生社會にむけて", 女性總合センター, 『アダチ女性大學學習記錄』(東京: 足立區教育委員會, 1993), pp.64-66.

35) 坂東眞理子 編著, 『日本の女性データバンク』,(東京: 大藏省印刷局, 1992), pp.48-49.

36) 동아시아 국가의 성별 임금구조 (전업종 기준)

(단위 : %)

	일본 [1]	대만 [2]	태국 [3]	한국 [4]
	1988년	1988년	1987년	1987년
남자	100	100	100	100
여자	60.5	64.5	66.2	50.3

[1] 10인 이상 전사업체의 월 급여 기준임

[2] 전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 기준임

[3] 도시민간부문 근로자의 월 급여기준임

[4]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 기준임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각년도), 일본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8), 대만행정원주계처 및 경제건설위원회, 『인력운용조사보고서』(1988), 태국총리실 통계청, 『Report of the Labour Force Survey』, (각호)

계화는 제3세계권의 주변화 심화 양상을 초래하는 가운데 노동력, 교통, 통신, 시장 등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제공할 거리가 마땅치 않은 국가들일수록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나 기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는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에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정보통신 기술 교육과 여성 전문직업 교육을 강화해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에서 여성들이 산업화, 동원화 과정에 이어 경제적 권리 및 복지를 다시 제약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의식화·조직화·정치화를 통한 여성의 권리 부여(Empowerment)와 네트워크 강화

3국 모두 여성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중국에서는 '여자참정동우회', '여근공검학회(女勤工儉學會)', '중국여자참정동맹회', '호남여자연합회', '여자참정협진회', '여권운동동맹회'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대중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1919년-1928년까지 37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혁명운동 등 애국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37] 정권 수립 후에는 '전국부녀연합회(婦聯)'가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에의 여성 참여를 주도해 나갔다.

1996년 당시 일본 중의원 중 4.6%이었던 여성 비율이 그 후 10% 정도로 높아질 수 있었던 것 역시 많은 여성단체들이 노력한 결실이다. 1945년 이후 '신일본부인회'(부인유권자동맹으로 개칭), '부인민주클럽', '부인단체협회' 등을 위시해 활동을 해왔던 일본여성들은 지방자치에 여성 공동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977년부터 생활협동조합을 활동 기반으로

37)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北 : 商務印書館, 1963), p.411.

의원을 대리인으로 해 정치의 생활화를 꾀하는 '대리인' 운동을 전개한 것이 그 한 예이다.[38] 일본의 우익 역사 교과서 채택율이 0.03%에 그치게 한 것도[39] 풀뿌리 시민 파워의 승리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길 수 없다는 투철한 의식으로 어머니와 교사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뭉쳐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막았던 것이다.

여성의 의식화, 조직화, 정치화는 여성 개인이 풀어나가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직화된 여성의 세력은 여성 개인의 삶에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며, 여성들이 다른 여성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이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중요한 발판이 된다. 여성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여성의 소집단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는 연대운동을 확산해 가야 할 것이다.

(5) 여성들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동북아 3국에서 여성정책이 국가의 중점시책이 되는데는 UN의 여성주류화 전략이 주효했다. 중국은 1995년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일본 역시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이후 부계 우선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이 이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984년 국적법을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개정했다.[40] 한국의 경우에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1985년에 조약 제855호로 공포,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면서 정부가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자세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움에 참가한 충청남도

38) 横はま市女性協會 (編), 『女性問題とキーワード』, (東京 : ドメス出版, 1997), p.222.
39) 조선일보, 2001년 8월 15일자.
40) 金城春子, 앞의 책, pp.29-30.

와 허베이성, 구마모토현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1) 한, 중, 일 3국 여성들의 활동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각국 여성들의 역사적 자취, 삶의 지혜, 여성 지도자들의 활동 양상, 차세대 여성인력, 여성교육, 여성정책 등을 일반여성들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은행을 공동으로 만들어 활용한다면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2) 인적 교류의 활성화이다. 3국간 여성문제 전문가 및 연구소, 여성정책 담당자와 심의위원, 여성단체, 여학교 및 여교사들의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환 체류하며 정례화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 내 여성단체의 의식화, 조직화, 정치화 시도 뿐 아니라 3국간 여성세력의 연대화를 이루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동북아에는 단지 여성이라는 선천적 이유만으로 전쟁에서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여성들이 힘겹게 여생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아직도 기지촌이 잔존 하며 북한에서는 경제적 난관에 더해 여성이라는 약점 때문에 탈북 후 매매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역사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라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보다 넓은 공감대 속에,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이러한 아픔을 겪는 여성이 이 지구상에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필요를 되새겨 이러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를 주제로 3국 공동의 조사 연구와 세미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및 선언 채택 등을 제안한다. 첨

예한 국제적 문제가 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나 신사참배 문제도 여성이라는 공감대 위에서, 그리고 냉전체제의 남성 중심 정치권력관계에서의 논리가 아니라 탈냉전 시대 평화와 여성성간의 상대적 친화력을 기초로 풀어간다면 매듭의 얽힘을 조금이나마 덜 복잡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인간들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꿈꾸어 왔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도 그래서 탄생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실존하지 않는다는 말뜻을 지녔다는 유토피아. 그러나 성, 인종, 혈통, 출신지역 등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유리지붕(glass ceiling)이 사라지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유토피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의 명분적 평등은 이루었으나 오랜 가부장적 문화의 유습으로 21세기에도 사실상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제안과 실행 노력이 서구에 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사례와 방향, 동북아 3국 여성문제의 유사성과 해결 과제 및 협력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① 가부장적 가치체계 타파 ② 여성의 의정 참여 증대 ③ 여성의 경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화에의 대응 ④ 의식화·조직화·정치화를 통한 여성의 권리 부여 및 네트워크 강화 ⑤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국제교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① 동북아 3국 지방정부간의 여성자료 정보은행 설립 및 활용, ② 여성정책 및 교육 관련 인적 교류 활성화와 단체간 자매 결연 체결,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움의 정례화, ③ 종군위안부, 탈북 여성, 기지촌 여성 등 냉전기

남성 중심의 정치권력 역학관계의 희생자가 되어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북아 소외여성을 주제로 한 공동 연구, 세미나 개최 및 평화선언 채택 등을 제안하였다.

謀求東北亞地方政府的女性政策方向

公州大學國際關系學系教授
金　景　淑

1. 提出問題

女性政策是指以實現女性的基本人權和男女平等爲目標，象抑制、性差別的女性問題看成社會和國家的問題，爲此解決而努力的行動計划。

這起源于在家父長中心的社會制度下，支持女性的公的力量微小，便出現女性的周邊化現象，失去女性的利害和要求反應到政策的機會。女性政策不止于憲法上的名分的平等，爲實現事實上的平等强求社會成員的意識變化和積極的制度上措施。卽，在人類社會的諸部分進行大跳躍的21世紀，仍然存在着法律上平等和事實上平等之間的疏遠現象，因此持續必要女性政策。

韓中日爲相似的儒教文化圈國家，提高女性的社會地位及福利增進和女性主流化趨勢比西方國家出現得較晚。差別于西方的女性運動，在政府政策的推進過程中，以口號形態進行或成爲人力動員的手段，出現了女性運動的官方化及御用化現象。不但如此，在初期工業化的階段，女性傾向于低年齡、低學曆、低工資階級，女性差別在女性看成家庭的補助人力的性差別意識中獲得了其正當性。

在這三國，慢慢開始提出來關于提高女性地位的問題意識。人口社會學的因素，家庭結構的變化，家務形態的革新，就業女性和高學曆女性的增加等；UN的作用等關于女性運動的國際環境；在全世界爲指向民主化而進行的第3波浪等爲背景，回復女性部門的均衡，女性也是社會發展的主題者-從這個角度來解決女性問題。在這樣的努力下，女性問題成爲國家主要政策的一部分。

韓中日在同一的儒教文化圈里，保持其相似性的同時暴露出按諸環

境因素的相異性，試圖爲提高女性地位的諸政策。所以我寫本文章着重于謀求東北亞地方政府的女性政策交流及合作方案，爲此研究以地方政府中忠淸南道的事例爲中心的韓國女性政策的推進現狀和方向，確定在家父長中心价値體系中女性的位相和出現在這里的女性問題的相似性，强調爲解決共同課題的努力。

2. 韓國女性政策的推進事例和方向

韓國政府的有關女性的工作以保社部中心的婦女行政開始。當時的女性政策由婦女保護事業的推進計划，介紹女性就業，孤兒院，托兒，兒童保護事業計划，勞動基准法里對女性和不到滿18歲的靑少年禁止夜間勞動及礦內勞動，月1次月經假制，就業中養兒時間制，引進産前后休假制，計划生育，賣春行爲防止法，兒童福利法，兒童福利設施基准令構成。

美國女性運動的擴散和UN宣布‘世界女性之年’等國際潮流影響爲韓國的女性問題以獨立的領域政策上解決。從此實現了保社部宣布‘韓國女性之年’,世界女性大會上發言組織女性政策擔當國家機構，建立韓國女性開發院，設立國務總理所屬的女性政策審議委員會，新設政務第2長官室，建立國會女性特別委員會，女性部發起等爲女性政策的制度化。因此試圖的韓國女性政策按政治，經濟，社會，教育部門研究如下。

(1) 政治

女性的觀點反應于立法和決定政策，從這角度看女性的參政意義重大。盡管如此，韓國女性的參政率非常低，目前女性議員只有5。86%，16名。爲了消除如此的問題，韓國也努力實行配額制。還引進「强化各種委員會的女性參與擴大方案」,「采用5, 7級女性公務員目標制」等。

爲擴大女性的議政參與，忠淸南道也設立女性政策審議委員會，到

2002年各委員會女性比率努力提高爲30%。還推進通過「女性自治大學」,「培養新一代女性領導的女大學生夏令營」,「爲擴大忠南女性議政參與的研討會」等，提高女性的政治意識。發起爲開發女性政策的「忠南女性研討會」。

爲消除女性的政治上微小代表性，需要改變差別的固定觀念和錯誤的社會化過程及因此的保守的政治文化的政策。卽,持續推進成人教育和向國民的宣傳活動，改善大衆媒體的性差別內容，轉換行政機關長的認識，確立女性自己的政治主題認識，積極參與政治過程的同時實現配額制公約，討論更高地反映少數實力的代表性的選擧區制等的制度改善政策。

(2) 經濟

韓國女性的經濟活動參與率于1963年的42。8%持續增加到1996年的48。7%。但是，按生涯階段的經濟活動，表現出隨着結婚或産生離開勞動市場，養兒后再就業的典型的M字型。在勞動市場，還蔓延女性的就業受限制或干跟男性同一的工作確受差別的待遇的情況。

爲改善這樣的差別環境，男女雇傭平等法規定在招聘和采用的過程中賦予平等的機會，對教育、調動、升級、停年，退職、解雇的性差別禁止條款。嬰幼兒保育法把國家和地方自治團體的嬰幼兒保育責任明文化。母性保護關聯法修改産生休假從60天增加到90天，規定對不履行此項的或不支付60天工資的企業主進行兩年以下的牢形或賦予1000萬元以下的罰款。無工資的幼兒休職(最長休一年)，不分男女産生子女時可申請，雇傭保險提供生活補助金。而且，爲强化性差別禁止明確規定間接差別概念，如有責任防止性玩弄的企業主自己搞性玩弄時付1000萬元以下的罰款。

忠淸南道爲增大女性的雇傭擧辦「女性就業博覽會」，進行「女性創業過程」教育。另，考慮到忠南女性就業于農家的比率高，爲提高女性政策和農業政策之間的連接性擧辦「忠南女性農業人爲提高生活

的質謀求政策代案」,「爲增進農村家族福利的研討會」。

爲促進女性的雇傭及安定，强化關于女性在産業化的過程中動員于低工資的勞動力，確拿不到正當的代价的國民意識教育，調查在勞動市場中各種女性差別的事例，有效地補充制度的缺點。

(3) 社會

新民法制定改善原來韓國社會的家父長制因素。親族範圍差別爲父系8寸、母系4寸，改爲父母系都8寸以內，而且結婚后的親族範圍規定爲丈夫和妻子各家族的4寸。新設離婚時對象的財産分割請求權，消除繼承財産時的男女差別。但是，繼承戶主的順序還是不管年齡男先女后，女性界爲改善這樣的不平等現象展開着戶主制廢止運動。母子保護法規定在母子保護設施期爲3～5年收容和保護低收入無住宅的母子，如母子要獨立時提供150萬韓元的自立定居金，有資格申請永久租借住宅的入住等的生計補助及保障自立基礎政策。關于處罰性暴力犯罪及保護被害人等的法律規定，除了旣存的刑法及特定犯罪加重處罰等法律規定的性暴力罪以外，把親族間的强奸、對殘疾人的准强奸、由工作上威力的丑行、淫亂罪規定爲性暴力犯罪試圖消除對女性的暴力。

爲提高女性的福利，忠淸南道向母子住戶支援子女養育費、初高中生學費、越冬費，還實施專門技術教育。爲預防和先導保護女性的發生，强化與9個所的性・家庭暴力咨詢所、運營1366咨詢電話、警察、醫院、119救助台等的有關機關協助體制。還擧辦「女性,兒童福利咨詢人員的教育」,「對性暴力專門咨詢人員過程的教育」, 「有關性暴力擔當者研討會」。

家庭作爲構成維持社會的基礎單位，負責很重要的機能。幷且，形成人的价值觀的社會化第一個階段，再說是男女平等的出發點。因此，爲健康的家庭實現家庭教育及家族法的補充和改正。

(4) 教育

爲兩性的平等教育，教育過程中刪去和補充包含男女差別觀點的部分，廢除一部分特殊大學里殘存的限制招女生的規定。已通過教師用「男女平等教育指南」的開發和普及强調過，教育現場里重要的是教師們對兩性的平等意識。教員研修時充實意識教育內容，師大和教大的教育過程中要開設有關女性學的教科。下達對各級研修機關的教育訓練方針時，要擴大爲改善性差別的教育過程運營。女性社會教育擔當機關的教育內容不應側重于教養過程或愛好活動，應提高適應世界化・情報化時代的專門性。

忠南的女性教育政策，强化市郡女性會館、社會福利館等的女性教育節目，實施對女性團體領導及會員的情報化教育。此外，還進行「個別化教育研討會」和「特殊領域工作研修」。

3. 東北亞女性的課題和交流合作方案

韓國、中國、日本受儒教文化的影響，女性的基本人權或開發能力的機會相當受限制。因此，上述的韓國女性政策中的相當部分曾在中國和日本試圖過，但在一些部分還沒實現實質上的平等。首先了解三國女性問題的相似性，此后研究爲克服這些問題的課題及合作方案。

(1) 打破家父長的价值體系

中國的才・仁・天命，這種社會的原理同父子間的豎置關系，成爲男女間嚴格地區別的根據束縛着女性的生活。但是，如此的中國家父長的价值體系與社會主義的批孔運動，使中國女性知識分子進行對禮教的舊秩序和三從四德的家族制度的打破因習運動。韓國或日本也離開不了如此的儒教文化。目前，在韓國進行的廢止戶主制運動就表現出上述的情況。

但是，不管上述運動的進行，家父長的价值體系由于其曆史的背景

還廣泛存在于東北亞國家。特別蔓延着因只是一個女兒所以被中斷其可貴的生命的現象。自毛澤東時期起實行的節育政策，在沒有對禁止殺害女兒、迫害妻子等的法律制裁的情況下，其副作用會繼續出現。這種情況在出現低出産，深化性比不均衡及墮胎傾向的韓國也如此。而且實現了法律和制度上的平等，但仍存在家父長的价值體系的話，達到實質上的平等還是遙遠。UNDP發表的國家間比較指數中韓國和中國的男女開發尺度里，韓國和日本比西方國家排在相當低的順位，這才證明上述內容。看IMD (Int'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發表的國家別性玩弄和暴力指數，三國都比西方國家高。

所以爲在儒教文化圈的國家里實現實質上平等，東北亞女性團結在一起繼續提出潛在于曆史根中的性差別价值體系的問題，盡力形成對此的社會同感。

(2) 增大女性的議政參與

在中國從1910年代主導獲得參政權運動的秋瑾,創立‘女子參政同友會’的林宗素,‘女勤工儉學會'的向警豫,蔡暢等人展開要求保障對財産繼承權、選擧權、被選擧權、教育的機會均等、就業的同等權、自由婚姻決定權等5個權利的五種運動，這爲契機關于女性的政治代表性問題的意識開始提出來。

1890年第1屆日本帝國議會選擧排除女性。按‘集會及政社法’和禁止未成年及女性的政治活動的‘治安警察法’第5條，女性不得參加政治運動或組織。但在日本，‘新婦人會’的ICHIKAWA HUSAE, OKU MUMEO等人要求改正上述法案，建立‘獲得婦女參政權旣成同盟會’。在韓國由于跟解放的同時近來的西方民主主義制度，女性可以享有參政權。

在這樣的曆史背景下開始的東北亞國家的女性參政還比西方低得低。三國中相對來說女性的政治位相較高的中國，女性議員的比率按

1999年IPU資料比世界女性議員的平均比率高13%的21。8%。1992年14次黨大會市總中央委員中女性爲 6.3%, 1993年全國人民代表大會的女性代表比率爲21.03%。還有全人大的陳慕華, 政協副主席錢正英, 國務委員彭佩云等人爲女性領導。但是女性几乎沒當選爲權力的核-共産黨常務委員或政治國院。

日本的小泉內閣中女性占30%-田中外務相,森山法務相等五名。衆·參兩議院中的女性比率也達10%左右, 接近世界平均。但從1967年同一地方選擧以后在任何選擧中女性的投票率超過男性的, 而且有權者的一半爲女性, 考慮到這兩點還出現低代表性的狀態。

韓國隨着女性界的努力和選擧中實施份額制, 2000年議會培養出5.86%的女性議員, 但IPU調查的130多國中還停留在99位。爲克服如此的女性政治過小代表性, 應努力確立無性差別的政治社會化和政治文化、調整對少數勢力不利的選擧區制、造成淸廉的選擧氣氛、實現份額制等。

(3) 再考女性的經濟位相及對應世界化

被承認産業化、動員化過程中的女性勞動力的貢獻, 要求對此的正當的代价, 强化情報化、專門化敎育。

在中國鼓舞女性解放的背景要素中重要的一個就是女性參加革命和動員勞動力。 主張打破政權·族權·神權·夫權的四個鏈子和女性的社會解放的毛澤東, 洞察到勞動女性的潛在力, 認爲全國婦女起來之日,就是中國革命勝利之時”的同時强調“中國女性是偉大的人力資源, 這一定要發掘出來爲建設偉大的社會主義國家奮斗”。

日本二戰的許多女性運動者參考歐洲的一些國家承認一戰中女性的功勞而獲得女性的參政權給予很大的幫助, 積極合作日本的國家政策。不但如此, 1960-70年代的日本由激增的女工實現了高度增長, 可是她們的1人平均工資只占男性的50。9%, 導致爲改善女工勞動條件的法斗爭。

被稱爲漢江的奇迹, 韓國的高度經濟成長也沒有女性的犧牲(低工資

勞動)就實現不了的。但是韓國遇到了亞洲金融危機，女性被成爲減員的第一個對象。這種現象也可能發生在從經濟部門引進資本主義要素的中國或全世界的經濟不景氣中不可例外的日本。

這反映着在世界化及經濟結構的重建過程中越高女性喪失經濟力的可能性。世界化造成第三世界圈的周邊化深化傾向，勞動力、交通、通信、市場等沒資源提供給多國企業的國家更努力提供對直接投資規則的放松或爲招商引資動機。這樣的世界經濟秩序的變化對專門的知識和信息掌握力相對弱的女性很不利。因此，强化信息通信技術教育和女性專門職業教育，在激變的經濟環境里，女性對策不應該再被制約經濟上的權利和福利。

(4) 通過意識化・組織化・政治化給女性賦予權利(Empowerment)和强化網絡

三國爲提高女性的位相，女性團體作出了很大的作用。在中國‘女子參政同友會’、‘女勤工儉學會’等謀求女性大衆運動的擴散，從1919年至1928年組織37個女性團體展開革命運動。之后‘婦聯’主導了在女性運動和建設社會主義中的女性參與。

1996年當時日本衆議員中占4.6%的女性比率，其后增加10%，這都是很多女性團體努力的結果。1945年以后通過‘新日本夫人會’、‘夫人民族俱樂部’、‘夫人團體協會’等團體進行活動的日本女性，爲女性共同實踐謀求網絡的擴大。1977年起展開‘代理人’運動(以生活協同組合爲活動基盤，以議員爲代理人謀求政治的生活化)，這是一個例子。日本的右翼曆史教科書選定率只限于0.04%也是市民力量的勝利。由徹底的意識(不可被剝奪孩子的未來)，母親和教師們團結在一起阻止選定曆史歪曲教科書。女性的意識化、組織化、政治化助于解決女性個人難解決的結構上問題，韓國的許多女性團體在强化活動。

組織化的女性勢力對女性個人的人生給予力量，女性支持女性時這

對女性政治勢力化成爲重要的跳板。更擴散活躍女性的小集團運動，廣泛地形成互相網絡的連帶運動。

(5) 女性間的國際交流激活

東北亞三國的女性政策成爲國家的重點施策，UN的女性主流化戰略起很大的作用。1995年在中國的北京擧辦的第4屆世界女性會議受到世界的矚目，日本批准女性差別撤廢協約以后，提出來按父系優先血統主義的國籍法違反該協約的主張，1984年國籍法改爲父母兩系血統主義。韓國批准女性差別撤費協約，1985年公布爲條約第855號，遵守作爲聯合國會員國的義務，政府開始積極接近女性問題。

我提出有關參加今天國際女性政策研討會的忠淸南道和河北省，熊本縣間可以實行的几個方案。

1) 韓、中、日三國女性爲共享活動和情報建立情報交流合作體系。爲一般女性容易了解各國女性的曆史的痕迹、人生的智慧、女性領導的活動、新一代的女性人力、女性教育、女性政策等，共同建造情報資料銀行，能擴大互相了解和交流的深度。

2) 人交流的激活。三國間締結女性問題專家及研究所、女性政策擔當者和審議委員、女性團體、女子學校及女教師們的姐妹關系，互相交換居留着擧辦政策研討會。這不但使一個國家內女性團體意識化、組織化、政治化，而且使三國間女性勢力連帶化的方法。

3) 東北亞地區的女性只由她是女性而在戰爭中成爲奴隸，過得艱難的余生。幷且還存在着基地村，在北韓加上經濟難關脫北后陷落爲賣淫對象的女性越增加。也許有國家別曆史・政治立場的差異，但在作爲女性的更大的共感帶里，而且在我們的女孩生活的未來的地球里不應該有由同樣的問題傷心的女性。回顧上述的需要，提出以女

性的問題爲主題的三國共同調查研究和研討會，而且基于其調查研究和研討會的提案政策及采取宣言。成爲尖銳的國際性問題的曆史教科書歪曲問題或崇拜神士問題在作爲女性的共感帶至上解決，不要用冷戰體系的男性中心政治權力關系的倫理，而要用脫冷戰時代的和平和女性間的相對的親和力，慢慢解開復雜的結。

東北アジア地方政府女性政策の方向摸索

公州大学校国際関係学科教授
金 景 淑

1. 問題の提起

女性政策とは、女性の基本的人権と男女平等の実現を目指して女性の抑圧、あるいは性差別のような女性問題を個人的次元ではなく、社会的・国家的次元の問題として認識し、これを解決しようとする行動計画である。

このような女性政策の必要性は家父長的社会制度の下で女性の公的存在基盤が弱かったため、女性が周辺部にとどまることによって、自らの利害と要求を政策的な面で反映してもらう機会を得られないことから始まる。また、女性政策では憲法上の名だけの平等にとどまらず、実質的な平等のために社会構成員の意識変化と積極的な制度的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人類社会の諸　分野で大跳躍が行われている21世紀にも法律上の平等と実質的な平等との乖離現象が残っているため、女性政策の必要性が持続しているのである。

韓国、中国、日本は同じ儒教文化圏国家で、欧米に比べて女性の社会的地位向上や福祉増進及び女性主流化の流れに後れをとった。そして、欧米の女性運動とは異なって、政府施策の推進過程におけるスローガンの形で行われるか、人力動員の手段として活用されることで女性運動が政府の主導で動くパターンが表れた。それだけではなく、初期工業化段階で女性が低年齢、低学力、低賃金群に入って、女性を家計の補助的人力とみなす性差別的な見方が女性差別を正当化した。

その中で、この三つの国でも女性の社会的地位に対する問題意識が提起されるようになった。家族類型の変化、家事形態の革新、就業女性の増加、高学力女性の増加等の人口社会学的要因、国連の役割等の女性運動に関わった国際的環境、全世界的な次元で進んだ民主化を指向する第3の波(The Third Wave)等が背景要因となり、後れた女性部門のバランスを回復させ、女性も社会発展の主体という観点で女性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努力が国家主要政策の一分野として扱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韓国、中国、日本は同じ儒教文化圏のなかで類似性と諸環境的要因からの相異性を併せ持ちながら女性の地位向上のための様々な政策を試みている。従って、ここでは東北アジア地方政府の女性政策交流及び協力方法の摸索に焦点を合わせて、このための一つの基礎研究として韓国の女性政策推進の様子及び方向を全般的な基調と地方政府のなかで忠清南道の事例を中心に見た後、家父長的価値体系の下での東北アジア女性の社会的地位とここから表れる女性問題の類似性を究明し、共同課題の解決のための努力を強調することに焦点を合わせたい。

2. 韓国女性政策の推進事例及び方向

韓国の女性関連政府業務は保健社会部中心の婦女行政から始まった。当時の女性政策として、婦女保護事業推進計画、女性への職場斡旋、孤児院、託児、児童保護事業計画、勤労基準法上の女性と18歳未満の青少年に対した夜間勤労及び坑内労動の禁止、月1回の生理休暇制、就業中の育児時間制、産前産後休暇制の導入、家族計画、淪落行為防止法、児童福祉法、児童福利施設基準令が作られた。

アメリカの女性運動の拡散や国連の'世界女性の年'宣布など、国際的な流れは韓国でも国家が女性部門を独自的領域と想定して政策的次元での努力が高められるよう影響を与えた。これによって保健

社会部の'韓国女性の年'宣布、世界女性大会での女性政策担当国家機構設置の公言、韓国女性開発院の設立、国務総理傘下女性政策審議委員会の設置、政務第2長官室の新設、国会の女性特別委員会設置、女性部の発足等、女性政策のための制度化が行われた。これを通じて試図された韓国女性政策を政治、経済、社会、教育分野別に見ると次の通りである。

(1) 政治

女性の議会活動参加は女性の観点を立法と政策決定に反映出きるという面で非常に重要である。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女性の政治参与率は低く、現在の女性議員は全体の5.86%の16人にすぎない。この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韓国でも割当制実現に向けて努力している。そして、「各種委員会への女性参加拡大強化方案」、「5・7級女性公務員採用目標制」等を導入した。

女性の議会活動参加拡大のために忠清南道でも女性政策審議委員会を設置しており、各委員会の女性比率を2002年まで30%に高めようと努力している。そして、「女性自治大学」、「次世代女性指導者育成女大生キャンプ」、「忠南女性の議会活動参加拡大のためのワークショップ」等を通した女性の政治意識提高政策を進めてきた。また、女性政策の開発のための「忠南女性フォーラム」も発足された。

女性が持っている薄い政治的代表性を解消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差別的な固定観念と誤った社会化過程及びこれからの保守的政治文化を変えていく政策が必要である。即ち、持続的な教育と国民への広報活動、大衆媒体の性差別的内容改善、行政機関長の認識転換、女性自らの政治的主体としての認識確立、政治過程への積極的参加とともに割当制公約の実現、小数勢力のより高い代表性が反映できる選挙区制の論議など、制度改善のための政策を継続的に推進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経済

韓国女性の経済活動参加率は1963年の42.8%から1996年の48.7%へと増加してきた。しかし、生涯段階別経済活動のパターンは結婚、出産とともに労働市場から外れ、育児活動後に再就業する典型的なM字型を表している。また、未だに女性は労働市場において就業機会で制限を受けるか、男性と同じ職務を行っても差別的な扱いをされるケースが多い。

このような差別的環境を改善するために男女雇用平等法では、募集、採用において平等な機会を与えて教育、配置、昇進、定年、退職、解雇に対した性差別禁止条項と強制条項を規定した。嬰・幼児保育法は国家と地方自治団体の嬰・幼児保育責任を明文化している。母性保護関連法では出産休暇を60日から90日に拡大し、これを保障しない、または、事業主が負担すべき60日分の給与を払わない使用主は2年以下の懲役あるいは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罰する規定を設けた。無給で最大1年の育児休職は男女問わず子供を出産した際に申請ができ、休職期間中に雇用保険から生計補助金が支給されるようにした。そして、性差別禁止強化のために間接差別概念を明確に規定してセクハラ予防責任を持っている事業主自らが直接セクハラ行為をした場合、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罰するようにした。

女性の雇用増大のため、忠清南道では「女性就業博覧会」を開催し「女性創業課程」教育を実施した。また、忠南の場合、女性の農家就業者比率が高いところから女性政策と農業政策との連携性を高めるため、「忠南女性農業人の生活水準向上のための政策代案の模索」、「農村家族の福祉増進のための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た。

女性の雇用促進および安定のためには、産業化において女性が安い賃金で使われたことを知らせる国民意識教育を強化し、労働市場での様々な女性差別事例を調査して制度的補完を効率的に行うべき

である。

(3) 社会

新しく制定された民法は従来の韓国社会の家父長的要素をかなり改善したが、父系8等親、母系4等親以内の親類で親族の範囲が差別されていたのを、すべて8等親以内にして結婚後には夫も褄も両系の4等親までにした。また、離婚した場合の配偶者の財産分割請求権を新設し、財産相続における男女差別を無くした。しかし、戸主承継の順番が年齢に関係なく息子から娘になっている男子選好の不平等に対して女性界は戸主制の廃止運動を展開している。母子保護法では低所得無住宅母子世帯を母子保護施設で3-5年の間受け入れて保護鵜し、退所時には自立定着金150万ウォンを支給して永久賃貸住宅への入住申請ができるようにする生計補助及び自立基盤助成政策を含めている。性暴力犯罪処罰及び被害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では既存の刑法及び特定犯罪加重処罰等、法律で定められた性暴力犯罪以外に親族関係での強姦、障害者に対した準強姦、業務上威力等によるセクハラ、淫乱罪等を性暴力犯罪として規定し、女性に対する暴力の根絶を試みている。

女性の福祉向上のために忠清南道では母子家庭に対して子女養育費、中高生学費、冬季補助金を支援し、住宅賃借金と事業資金の融資等で自立の基盤を助成し、専門技術教育を実施している。保護を要する女性の発生予防及び先導のために9ヶ所の性・家庭暴力相談所と1366相談電話の運営、警察、病院、119救助隊等の関連機関との協力態勢の強化政策が試されている。そして、「女性・児童福祉相談要員教育」、「性暴力専門相談員課程教育」、「性暴力関連担当者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た。

家庭は社会を構成し維持する基礎単位として、非常に重要な機能を担当する。また、人間の価値観が形成される社会化の最も重要な

初めての段階で、男女平等の出発点である。従って、家庭を私的領域と見なす家庭政策不在から脱皮して健康な家庭のための家庭教育及び家族法の補完、改定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教育

両性の平等教育のため、教育課程では男女差別的観点が内在された部分を削除・補完し、一部の特殊大学に残存していた女学生の入学制限を撤廃した。そして、教師用「男女平等教育指針書」の開発・普及を通して強調されたように教育の場では教師の両性平等意識が重要である。教員研修の時、意識教育プログラムを充実させ師範・教育大学の教育課程でも女性学関連教科の開設を勧めるべきである。そして、各級研修機関に対して教育訓練指針を下す時に性差別慣行の改善のための教育課程運営を拡大すべきである。女性社会教育専担機関でも従来の教養課程や趣味活動に片寄っていた教育内容から脱皮し、世界化と情報化時代に相応しい専門性を高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女性教育政策として忠南では市郡の女性会館、社会福祉館等での女性教育プログラムを強化し、女性団体の指導者と会員に対する情報化教育を実施している。その他にも「個別化教育ワークショップ」と「特殊分野職務研修」も行われた。

3. 東北アジア女性の課題と交流協力方案

韓国、中国、日本は儒教文化の伝統により長い間女性の基本的人権や能力開発の機会が制限されてきた国々である。従って、既に述べた韓国女性政策の中の相当な部分が中国や日本でも試されたが、まだ実質的平等に至るほど、実現されてない部分も多い。このようなことからの3国の女性問題の類似性を指摘し、これを克服して行

くための課題および交流協力方案を見てみると次のようである。

(1) 家父長的価値体系の打破

中国での「才・仁・天命」の社会的原理は親子間の垂直的関係とともに男女間にも厳しい区別の根拠となり、女性は温厚で服従的な生活を余儀なく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ような中国の家父長的価値体系は社会主義の批孔運動(儒教批判運動)とともに禮教の旧秩序と3従4徳の家族制度に対する中国の女性知識人の因習打破運動に繋がった。日本や韓国もまた、儒教文化の影響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現在、韓国で進められている戸主制廃止運動がこの一つの例に他ならない。

しかし、このような運動にも関わらず家父長的価値体系は歴史的背景とともに東北アジア国家に未だに幅広く残存している。何よりもただ女の子というだけで掛け替えのない命の誕生まで遮断する非人間的なことが蔓延している。毛沢東時代から行われてきた「節育」政策は男子の家計継承及び重男軽女の考え方が残っている限り、女児の殺害、褁への迫害を禁じる法律的制裁を並行しなければ逆機能が大きくならざるを得ないものであった。これは低出産傾向と男児選好思想に基づく性比不均衡の深化及び落胎の問題が起こっている韓国でも同じである。これだけではなく、法律的、制度的平等が得られたとしても家父長的価値体系が残っている限り実質的な平等は遠い話である。UNDPの国家間比較指数からみると、韓国と中国は男女開発尺度で、韓国と日本は男女権限尺度で、欧米国家に比べて著しく低い順位に留まっていることがこれを証明している。また、IMD (Int'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が発表した国家別セクハラや暴力指数においても3国とも女性に対するセクハラや性暴力が欧米国家より高かった。

したがって、儒教文化圏の国において実際的平等に近づくために

は東北アジアの女性が力を合わせ、歴史的に潜在している性差別的価値体系の問題を持続的に提起し、これに対する代案的論理を開発して社会的共感帯を作り上げることに力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女性の議会活動参加の拡大

中国では1910年代から参政権獲得運動を主導した秋瑾、'女子真同友会'を創立した林宗素、'女勤工検学会'の向警予、蔡暢などが財産相続権、選挙権、被選挙権、教育の機会均等、就業の同等権、自由意思による婚姻決定権等、5つの権利に対する保障を要求する5種運動を展開するなかで女性の政治的代表性問題における意識が提起された。

1890年第1回日本帝国議会選挙でも女性は排除された。'集会および政社法'と未成年者と女性の政治活動を禁じた'治安警察法'5条により女性は政治運動や組織へ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し、日本でも'新婦人会'のイチカワふさえ、オク ムメオ等がこの改定を要求し'婦人参政権獲得同盟会'を結成した。韓国でも日本同様、解放とともに与えられた欧米式民主主義制度により女性の参政権が認められた。

このような歴史的背景を以て始まった東北アジアでの女性参政はまだ欧米に比べ著しく低いレベルにとどまっている。3国のなか、比較的に女性の政治的立場が進んでいる中国の場合は女性議員の比率が1999年IPU資料によると世界の女性議員の平均比率13%より高い21.8%であった。1992年14期党大会の時、中央委員のなか、女性は6.3%、1993年の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の女性代表比率は21.03%であった。そして、全人代の陳慕華、政協の副主席である銭正英、国務委員の彭佩雲などが女性指導者として活躍した。しかし、未だに権力の核である共産党常務委員、または、政治局員に女性が選ばれたことは殆んどないのである。

日本は小泉内閣で田中外務相、森山法務相など、5人が入閣して30%を占めている。衆・参の両議員での女性比率も10%くらいで、世界平均に近づいている。しかし、これもまた1967年統一地方選挙後のほとんどの選挙で女性の投票率が男性のそれより高い日本の特性と有権者の半分が女性といった普遍的側面からすると、まだまだ代表性が低いといえる。

韓国も女性界の努力及び選挙における割当制公約により2000年議会で5.86%の女性議員が進出したが、IPUで調査した130ヶ国の中、99位に留まっている。このような女性の政治的過少代表性の克復のため、性差別のない正しい政治社会化および政治文化の定立、小数勢力に不利な選挙区制の調整、きれいな選挙風土の助成、割当制の実現などのために努力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女性の経済的地位確立及び世界化への対応

産業化過程のなかで女性労動力が寄与した部分を認めてもらい、これに対する正当な見返しを要求するとともに情報化、専門化教育を強化して世界化の激しい波に積極的に対応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

中国において女性解放が鼓舞された背景要因には女性の革命参加や労動力提供といった側面が取り上げられる。政権・族権・神権・夫権の打破と女性の社会的解放を強調した毛沢東は労動女性が持っている革命推進の潜在力を見抜き、“全国の女性が奮起する日が中国革命の勝利の時(全国婦女起来之日,就是中国革命勝利之時)”といい、'中国女性は一つの偉大なる人力資源であり、必ずこれを発掘して、偉大な社会主義国家建設のために奮闘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った点を強調した。

日本もまた、第2次大戦時に多くの女性運動家が、第1次大戦当時、女性の国家に対する協力が功労として認められ女性の参政権獲

得に影響を与えたヨーロッパの事例に着眼して、日本の国家政策に積極的に協力した。それだけではなく、1960-70年代には日本でも急増した女性勤労者が高度成長の捨て石となったが、1人の平均給料は男性の50.9%に過ぎず、女性勤労者の労動条件改善のために法律的闘争が起きることもあった。

ハン江の奇跡と呼ばれた韓国の高度経済成長もまた、女性の低賃金労動という犠牲的基盤なしでは不可能なものであった。それにも関わらず、IMF危機下の韓国では女性がまず構造調整の対象となった。これは中国的社会主義で、経済的部門で資本主義的要素が導入されている中国と、全世界で表れている経済不況から逃れられない日本でも見られる現象である。

これはまた、世界化の激しい流れと経済構造の再編過程のなかで、女性の経済力がなくなる可能性が高まることを反映している。世界化は第3世界圏の周辺化が進む中で労動力、交通、通信、市場において多国籍企業に提供するものが少ない国であるこそ、直接投資に対する規制緩和や投資誘致のためのインセンティブをさらに多く提供するよう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世界経済秩序の変化は専門的な知識と情報の統制力が男性に比べて低い女性にとっては雇用不安につながる可能性が大きい。したがって、情報化時代に後れない情報通信技術教育及び女性専門職業教育を強化して急変する経済的環境のながで、産業化過程において女性の経済的権利および福祉にまた制約を受けさせることのないように対処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

(4) 意識化・組織化・政治化を通した女性への権利附与(Empowerment)とネットワークの強化

3国すべて、女性の地位を高めるために女性団体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中国では'女子参政同友会'、'女勤工倹学会'等が女性大

衆運動の拡散を図り、1919年-1928年まで37ヶ女性団体が組織されて革命運動を展開した。その後には'全国婦女連合会(婦連)'が女性運動と社会主義建設への女性参加を導いた。

1996年当時、日本の衆議員のなか4.6%であった女性比率が、その後10%くらいまで上がったのも、多くの女性団体が努力した結果である。1945年以後、'新日本婦人会'、'婦人民主クラブ'、'婦人団体協会'等をはじめ、様々な団体で活動してきた日本の女性は、地方自治において女性共同実践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拡大を図っている。1977年から生活協同組合を活動基盤とし、議員を代理人として政治の生活化をはかる'代理人'運動を展開したのがその一つの例である。日本の右翼歴史教科書の採択率を僅か0.04%にしたのも、市民パワーの勝利であった。子供たちの未来を奪われないという徹底した意識で、母と教師が市民団体を中心に一つとなり、歴史歪曲教科書の採択を防いだのである。女性の意識化、組織化、政治化は女性個人では解決しにくい構造的問題の解決の鍵となることから、韓国でも多くの女性団体が活動を強化している。

組織化された女性の勢力は女性個人の生活にも活気を与えることができ、女性が他の女性によって支持される時、これは女性の政治勢力化に重要な足場となる。女性の小集団運動をさらに活性化して相互ネットワークを幅広く作り上げる連帯運動をもっと広げ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女性国際交流の活性化

東北アジア3国において女性政策が国家重点施策になるには、国連の女性主流化戦略の効果が高かった。中国では1995年北京で第4次世界女性会議が開催されて世界の注目を集めた。日本でも、女性差別撤廃協約の批准以後、父系優先の血統主義に基づいた国籍法がこれに反するといった主張が提起されて、1984年に国籍法を父母両

系血統主義に改定した。韓国の場合にも女性差別撤廃協約に批准してこれを1985年に条約第855号として公布、国連会員国としての義務を果たすようになり、政府が女性問題に接近する見方や姿勢に積極性が現れはじめた。

以上の内容に基づいて、本日の国際女性政策シンポジウムに参加された忠清南道、河北省、熊本県で試せる幾つかの方法を取り上げることにしたい。

1)　韓、中、日の3国女性の活動と情報が共有できるように情報交流協力体系を樹立することである。各国女性の歴史的背景、生活の知恵、女性指導者の活動、次世代女性人力、女性教育、女性政策等を一般女性にも理解してもらえるように情報資料銀行の形に共同で作り上げて活用したら、相互理解と交流の幅が広がって行けると思わ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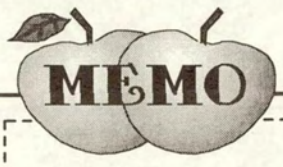
2)　人的交流の活性化である。3国間女性問題専門家および研究所、女性政策担当者や審議委員、女性団体、女学校と女教師の姉妹提携を結んでお互い交換滞在し、定期的に政策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ことである。これは一国内の女性団体の意識化、組織化、政治化への努力だけでなく、3国の女性勢力が繋がりを持つ方法になると思われる。

3)　東北アジアは、ただ女性というだけで戦争につれていかれ性的奴隷になった女性が生き残っている地域である。そして、未だに軍隊周辺の売春宿が存在し、北朝鮮では経済的な問題に加えて女性という弱点のため、脱出後に売買春の対象に落ちる女性が増加している。国家ことの歴史的、政治的立場の差といった微妙で難しい問題もあり得るが、女性というより広い共感帯のなかで、そして、我が子孫が生きる未来にはこのような苦しみを味わう女性がこの地球に

存在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当たり前な理由と、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定着の必要性を考えて、このような傷みを持って生きている女性の問題をテーマに3国共同の調査研究とセミナー、そして、これに基づいた政策提案及び宣言採択等を提案する。敏感な国際的問題となった歴史教科書歪曲問題や神社参拝問題も女性という共感のうえで、そして、冷戦体制の男性中心政治権力関係からの論理ではなく、脱冷戦時代の平和と女性の親和力を踏まえてアプローチしていけば、問題はそれほど複雑なものには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附　　錄

主要 參與者 프로필

〈基調 演說者〉

張夏眞 (Jang, Ha-Jin), 여, 50세

○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E-mail : hajin@kwdi.re.kr)

○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문학박사)

○ 주요경력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성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분과 위원
- 미국 Davis & Elkins College 초빙교수 역임
- 독일 Freie Universitat Berlin 연구교수 역임
- 충남대학교 교수 역임

〈主題發表 및 討論 進行者〉

林善姬 (Lim, Sun-Hee), 여, 50세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shlim@cnu.ac.kr)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과 (문학박사)

○ 주요경력

-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 대전여성발전연구위원회 위원
-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장

〈 主題發表 및 討論者〉

1 忠淸南道

主題發表者	金景淑 (Kim, Kyung-Sook) 여, 45세

○ 공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mail : "KimKyungSook"〈KSKim114@hotmail.com)

○ 학 력 : 고려대 정치학박사

○ 주요경력

- 「충남여성포럼」 정치·경제·법률분과위원장
- 제3기 충청남도 여성정책 심의위원
- 한국국제정치학회 여성분과위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위원
- 한국정치학회 여성분과위원장 역임

討論者	安貞善 (Ann, Jung-Sun) 女, 45세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mail : Jsann@Kongju.ac.kr)

○ 학력 : 부산대·서울대보건대학원(보건학), 대전대대학원(공공행정)

○ 주요경력

- 제3기 충청남도 여성정책 자문교수
- 제1·2기 충청남도여성정책 심의위원 역임
- 정무 제2장관실 사회교육위원 역임

2 中國 허베이성

主題發表者	呂愛英 (luaiying) 女, 44세

○ 허베이성 부녀자 연합회 어린이 업무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 학　력 : 대학졸업

○ 주요경력

- 省 井陘현 北障城 중학교 교사
- 省 부녀연합회 어린이부에서 활동
- 省 부녀연합회 어린이부 부부장

討 論 者	劉 花 冊 (liuhuace) 女, 55세

○ 허베이성 부녀연합회 사업발전부 부장

○ 학　력 : 전문대 졸

○ 주요경력

- 省 고성(藁城)시 南營중학교 등에서 교사
- 省 고성시 부녀연합회 주임
- 省 부녀연합회 홍보부 간사

3 日本 구마모토현

主題發表者	藤田光代(후지다 미쯔요, HuJita Mitsuyo) 女, 42세

○ 현직 변호사(코스모스 법률사무소)

○ 학　　력 : 九州大學 卒業

○ 주요경력

- 縣 男女共同參畫社會推進懇話會 會長
- 縣 地方社會福祉 審議會 委員
- 縣 母子寡婦連合會 專門相談員

討 論 者	緖方洋子(오가타 요꼬, Ogata Yoko)女, 56세

○ 縣 男女共同參畫課 課長補佐

○ 학　　력 : 仏教大學 卒業

○ 주요경력

- 縣 兒童家庭課 家庭福祉係長
- 縣 地域振興局 福祉課長
- 縣 高齡福祉保險課 老人醫療主幹

主要與會者簡曆

〈主旨發言者〉

張夏眞 (Jang, Ha-Jin), 女, 50歲

○ 韓國女性開發院長 (E-mail : hajin@kwdi.re.kr)

○ 學曆 : 梨花女子大學文科大學社會學系 (文學博士)

○ 主要簡曆

- 總統咨詢政策企畫委員會委員, 女性部政策企畫委員會委員
- UNESCO韓國委員會社會科學分課委員
- 曾任美國 Davis & Elkins College 招聘教授
- 曾任德國 Freie Universitat Berlin 研究教授
- 曾任忠南大學教授

〈主題發言及討論發言人〉

林善姬 (Lim, Sun-Hee), 女, 50歲

○ 忠南大學教育學系教授(E-mail : shlim@cnu.ac.kr)

○ 學　曆 : 梨花女子大學教育社會學系 (文學博士)

○ 主要簡曆

- 韓國女性開發院代表研究院
- 忠南大學學生生活研究所長
- 大田女性發展研究委員會委員
- 忠南大學女性政策研究所長

〈主題發言及討論發言人〉

[1] 忠淸南道

主題發言人	金景淑 (Kim, Kyung-Sook) 女, 45歲

○ 公州大學國際關系學系敎授 (E-mail: "KimKyungSook"〈KSKim114@hotmail.com)

○ 學　曆 : 高麗大政治學博士

○ 主要簡曆

- 「忠南女性硏討會」政治·經濟·法律分課委員長
- 第3期忠淸南道女性政策審議委員
- 韓國國際政治學會女性分課委員
- 大田地方法院公州支院調整委員
- 曾任韓國政治學會女性分課委員長

討論發言人	安貞善 (Ann, Jung-Sun) 女, 45세

○ 公州大學護士學系敎授 (E-mail : Jsann@Kongju.ac.kr)

○ 學曆 : 釜山大·漢城大保健大學院(保健學), 大田大大學院 (公共行政)

○ 主要簡曆

- 第3期忠淸南道女性政策咨詢敎授
- 曾任第1·2期忠淸南道女性政策審議委員
- 曾任政務第2長官室社會敎育委員

[2] 中國河北省

主題發言者	呂愛英（luaiying）女，44세

○ 河北省婦女兒童工作委員會辦公室副主任

○ 學　曆：大學畢業

○ 主要簡曆

- 省井陘縣北障城中學教師
- 在省婦女聯兒童部工作
- 任河北省婦聯兒童部副部長

討論發言人	劉 花 冊（liuhuace）女，55歲

○ 河北省婦聯組織部副部長

○ 學　曆：大專

○ 主要簡曆

- 在省藁城市南營中學等地任教
- 任藁城市婦聯主任
- 省婦聯宣傳部干事

3 日本 熊本縣

主題發表人	藤田光代 (HuJita Mitsuyo) 女, 42歲

○ 現任律師 (코스모스 法律事務所)

○ 學　曆：九州大學畢業

○ 主要簡曆

- 縣男女共同參與社會推進懇談會會長
- 縣地方社會福利審議會委員
- 縣母子寡婦聯合會專門咨詢員

討論發言人	緖方洋子 (Ogata Yoko) 女, 56세

○ 縣男女共同參與課課長助理

○ 學　曆：佛教大學畢業

○ 主要簡曆

- 縣兒童家庭課家庭福利系長
- 縣地域振興局福利課長
- 縣老年福利保險課老年醫療主干

主要参加者プロフィール

〈基調演説者〉

張夏眞（Jang, Ha-Jin), 女, 50才

○ 韓国女性開発院長（E-mail：hajin@kwdi.re.kr）

○ 学歴：梨花女子大学校文科大学社会学科（文学博士）

○ 主要経歴

- 大統領諮問政策企画委員会委員、女性部政策企画委員会委員
- ユネスコ韓国委員会社会科学分科委員
- アメリカDavis & Elkins College招聘教授歴任
- ドイツFreie Universitat Berlin研究教授歴任
- 忠南大学校教授歴任

〈主題発表者及び討論進行者〉

林善姫（Lim, Sun-Hee), 女, 50才

○ 忠南大学校教育学科教授（E-mail：shlim@cnu.ac.kr）

○ 学歴：梨花女子大学校教育社会学科（文学博士）

○ 主要経歴

- 韓国女性開発院首席研究員
- 忠南大学校学生生活研究所長
- 大田女性発展研究委員会委員
- 忠南大学校女性政策研究所長

〈 主題発表者及び討論者〉

[1] 忠清南道

主題発表者	金景淑（Kim, Kyung-Sook）女, 45才

○ 公州大学校国際関係学科教授(E-mail："KimKyungSook"〈KSKim114@hotmail.com)

○ 学歴：高麗大学校（政治学博士）

○ 主要経歴

- 「忠南女性フォーラム」政治·経済·法律分科委員長
- 第3期忠清南道女性政策審議委員
- 韓国国際政治学会女性分科委員
- 大田地方法院公州支院調停委員
- 韓国政治学会女性分科委員長歴任

討論者	安貞善（Ann, Jung-Sun） 女， 45才

○ 公州大学校看護学科教授（E-mail：Jsann@Kongju.ac.kr）

○ 学歴：釜山大·ソウル大保健大学院(保健学)·大田大大学院(公共行政)

○ 主要経歴

- 第3期忠清南道女性政策諮問教授
- 第1·2期忠清南道女性政策審議委員歴任
- 政務第2長官室社会教育委員歴任

2 中国河北省

主題発表者	呂愛英（luaiying）女，44才

○ 河北省婦女子連合会児童業務委員会辦公室副主任

○ 学歴：大学卒業

○ 主要経歴

- 河北省井陘県北障城中学校教師
- 河北省婦女連合会児童部にて活動
- 河北省婦女連合会児童部副部長

討 論 者	劉 花 冊（liuhuace）女，55才

○ 河北省婦女連合会事業発展部長

○ 学 歴：専門大学卒業

○ 主要経歴

- 河北省藁城市南営中学校教師
- 河北省藁城市婦女連合会主任
- 河北省婦女連合会広報部幹事

3 日本熊本県

主題発表者	藤田光代(HuJita Mitsuyo) 女, 42才

○ 弁護士(コスモス法律事務所)

○ 学歴：九州大学卒業

○ 主要経歴

- 熊本県男女共同参画社会推進懇話会会長
- 熊本県地方社会福祉審議会委員
- 熊本県母子寡婦連合会専門相談員

討 論 者	緒方洋子(Ogata Yoko)女, 56才

○ 熊本県男女共同参画課課長補佐

○ 学歴： 仏教大学卒業

○ 主要経歴

- 熊本県児童家庭課家庭福祉係長
- 熊本県地域振興局福祉課長
- 熊本県高齢福祉保険課老人医療主幹

충청남도

CHUNG CHEONG NAM – DO
AM010364